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단서 경쟁 모형에 기반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양상 연구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진 예 린

(陳彥伶, CHEN YANLING)

단서 경쟁 모형에 기반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양상 연구

지도교수 김호정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진 예 린

진예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단서 경쟁 모형(Cue Competition Model)에 기반하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관여하는 의미 기능 단서 습득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을 각각 ‘선택지정, 도입 주제, 지시적 신정보’와 ‘대조,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6개의 의미 기능을 각각 하나의 ‘단서’로 보고, 이 단서들을 서로 조합하여, 선택적 결합 관계인 ①‘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②‘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③‘대조+지시적 신정보’, ④‘대조+지시적 구정보’와 고정적 결합 관계인 ⑤‘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⑥‘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의 총 6개 조합을 도출하였다. 또한 빈칸 채우기 과제를 연구 도구로 채택하여 각 발화 맥락에서 주어진 각 단서 조합에 있어, 중국어권 초·중·고급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선택 및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과 더불어 발화 맥락에 의해 이 의미 기능들이 동시에 드러났을 때, 어떤 의미 기능에 우선적으로 의존해서 조사를 선택하는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단서 경쟁 모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탐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서 경쟁 모형을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선택 및 습득 양상 분석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기본 가정들을 탐구하였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 도구의 설계 과정, 예비 실험 및 본 실험의 진행 절차와 데이터 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IV장에서는 중국어권 초·중·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보다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에서 모든 학습자 집단이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어떤 조합이든 ‘이/가’의 ‘선택지정’이 포함된 단서 조합 항

목인 경우, 모두 낮은 수준의 습득을 보여 학습자들이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선택지정’ 의미 기능 단서가 포함되는 항목 중에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은 물론,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발화 맥락에 맞게 조사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 단서에 있어서는 해당 지시체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인 ‘지시적 구정보’일 때, 즉 단서 경쟁이 없을 때, ‘대조’ 의미 기능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초급 학습자 집단을 제외한 중, 고급 학습자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습득 정도를 보여, 단서 경쟁 모형의 기본 가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모든 의미 기능 단서들이 서로 같은 형태로 유도하여 연합(coalition)되면, 이때 각 단서의 강도가 높아져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문장을 해석하고 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각 의미 기능 단서가 대응되는 형태가 달라 단서 경쟁이 있는 경우, 즉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 단서가 ‘이/가’의 의미 기능 단서인 ‘지시적 신정보’와 같이 드러날 때는 적합한 조사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들을 하나씩 분리시켜 교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선택 및 사용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택지정’, ‘대조’ 등의 의미 기능에 집중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선택할 때 어떤 의미 기능 단서에 영향을 받는지를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문장 구조를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여 더 다양한 단서들 간의 습득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제2언어 습득,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 중국어권 학습자,

제2언어 습득, 단서 경쟁 모형

학 번 : 2020-24715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3
2.1. 국어학에서의 조사 ‘이/가’와 ‘은/는’ 연구	3
2.2. 한국어교육학에서의 조사 ‘이/가’와 ‘은/는’ 연구	6
2.3. 단서 경쟁 모형 연구	12
3. 연구 범위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7
1. ‘이/가’, ‘은/는’의 의미 기능	17
1.1. ‘이/가’의 의미 기능	22
1.1.1. 선택지정	22
1.1.2. 지시적 신정보 및 도입 주제	27
1.2. ‘은/는’의 의미 기능	35
1.2.1. 대조	35
1.2.2. 지시적 구정보 및 중심 주제	39
1.3. ‘이/가’와 ‘은/는’의 선택 층위	44
2. 단서 경쟁 모형 이론	49
2.1. 단서 경쟁 모형의 정의	49
2.2. 단서 경쟁 모형의 기본 가정	52
2.3. 단서 습득과 언어 습득의 관계	54
제3장 연구 방법	57
1. 실험 도구 및 문항 개발	57
2. 실험 절차	61

2.1. 예비 실험	62
2.2. 본 실험	66
2.2.1. 실험 대상	66
2.2.2. 신뢰도 검증	67
2.2.3. 자료 분석 방법	68

제4장 결과 분석 70

1.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조사 선택과 정확도	70
2. 단서 경쟁이 없는 경우의 조사 선택 양상	80
2.1. ‘이/가’ 의미 기능 단서 조합에 따른 조사 선택 양상	81
(1)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	82
(2) ‘선택지정’과 ‘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	83
(3) ‘이/가’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의 조사 선택 비교	85
2.2. ‘은/는’ 의미 기능 단서 조합에 따른 조사 선택 양상	88
(1)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	88
(2) ‘대조’와 ‘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	90
(3) ‘은/는’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의 조사 선택 비교	92
3. 단서 경쟁이 있는 경우의 조사 선택 양상	95
3.1. 숙달도별 ‘선택지정 단서 유무’에 따른 선택	95
3.2. 숙달도별 ‘대조 단서 유무’에 따른 선택	99

제5장 논의 103

1.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습득에 대한 논의	103
1.1. 단서 경쟁이 있는 경우 의미 기능 습득	103
1.2. 단서 경쟁이 없는 경우 의미 기능 습득	111
2. 교육적 함의	113
2.1.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교육 방향	113
2.2. 단서 경쟁 모형을 토대로 한 교육 내용	116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4
부록	133
Abstract	140

표 목 차

[표 1]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 및 습득 양상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이/가’ 혹은 ‘은/는’의 의미 기능 설정	10
[표 2] 본고에서 설정한 의미 기능이 대응되는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전영철, 2009: 224 참조)	20
[표 3] 본고에서 설정한 의미 기능이 대응되는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전영철, 2009: 224 참조)	45
[표 4] 본고에서 설정한 의미 기능이 대응되는 조사	47
[표 5]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정리	57
[표 6]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조합	58
[표 7]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적 및 화용적 의미 기능 단서 조합	59
[표 8] 경쟁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항목	59
[표 9] 경쟁 관계가 일어나는 항목	60
[표 10] 빈칸 채우기 과제 문항 제시 예시	60
[표 11] 문항 수정 내역	64
[표 12] 피험자 숙달도별 인원 수	66
[표 13] 피험자 국적별 인원 수	66
[표 14] 자료 분석 방법 정리	68
[표 15] 경쟁이 있는 문항과 경쟁이 없는 문항의 세부 분류	70
[표 16] 전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의 기술 통계량	71
[표 17] 전체 학습자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의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72
[표 18] 숙달도별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의 기술 통계량	73
[표 19] 초급 학습자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75
[표 20] 중급 학습자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75
[표 21] 고급 학습자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76

[표 22] 집단 간의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정답률 차이 검정(ANOVA) 결과	77
[표 23] 집단 간의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정답률 차이 검정(ANOVA) 결과	77
[표 24] 고급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평균 정답률 독립표본 t검정 결과	79
[표 25] 고급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평균 정답률 독립표본 t검정 결과	79
[표 26] 숙달도와 단서 경쟁 여부 간의 상호작용 효과	79
[표 27]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의 조사 ‘이/가’ 선택률 기술통계량 및 F검정(ANOVA) 결과	82
[표 28]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의 조사 ‘이/가’ 선택률 기술통계량 및 F검정(ANOVA) 결과	84
[표 29]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조사 ‘이/가’의 선택률 기술 통계량	85
[표 30] 각 숙달도별 집단 내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조사 ‘이/가’의 선택률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87
[표 31]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의 조사 ‘은/는’ 선택률 기술통계량 및 F검정(ANOVA) 결과	89
[표 32]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의 조사 ‘은/는’ 선택률 기술통계량 및 F검정(ANOVA) 결과	91
[표 33] 구정보’에 따른 조사 ‘은/는’의 선택률 기술 통계량	92
[표 34] 각 숙달도별 집단 내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와 ‘대조+지시적 구정보’에 따른 조사 ‘이/가’의 선택률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94
[표 35] 비교 항목 예시	96
[표 36]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단서 경쟁이 있는 ‘지시적 구정보+선택지정’에 따른 ‘은/는’ 선택률 기술 통계량	96
[표 37] 숙달도별 화용적 단서에 따른 조사 ‘은/는’의 선택률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98
[표 38] 비교 항목 예시	99
[표 39]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단서 경쟁이 있는 ‘대조+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이/가’ 선택률 기술 통계량	100
[표 40] 숙달도별 화용적 단서에 따른 조사 ‘이/가’의 선택률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101
[표 41] 각 숙달도 집단의 각 변인 정답률 기술 통계량(내림차순)	104
[표 42] ‘이/가’와 ‘은/는’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	117

그 립 목 차

[그림 1]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전영철, 2009: 224)	20
[그림 2] 본고에서 설정한 틀과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전영철, 2009: 224 참조)	31
[그림 3] 본고에서 설정한 틀과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전영철, 2009: 224 참조)	34
[그림 4] 본고에서 설정한 틀과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전영철, 2009: 224 참조)	38
[그림 5] 본고에서 설정한 틀과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전영철, 2009: 224 참조)	42
[그림 6] 연구 과정	61
[그림 7]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	71
[그림 8] 숙달도별 단서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	74
[그림 9]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의 단서 조합 조사 ‘이/가’의 선택률	82
[그림 10]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의 단서 조합 조사 ‘이/가’의 선택률	84
[그림 11]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조사 ‘이/가’의 선택률	86
[그림 12]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의 단서 조합 조사 ‘은/는’의 선택률	89
[그림 13]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대조+지시적 구정보’의 단서 조합 조사 ‘은/는’의 선택률	91
[그림 14]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대조+지시적 구정보’에 따른 조사 ‘은/는’의 선택률	93
[그림 15]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단서 경쟁이 있는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의 ‘은/는’ 선택률	97
[그림 16]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단서 경쟁이 있는 ‘대조+지시적 신정보’의 ‘이/가’ 선택률	100
[그림 17]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별 정답률	103

[그림 18] 숙달도별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항목의 조사 ‘이/가’ 선택률	106
[그림 19] 숙달도별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와 ‘대조+지시적 신정보’ 항목의 조사 ‘이/가’ 선택률	108
[그림 20] 숙달도별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과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항목의 ‘이/가’ 선택률(%)	109
[그림 21] 숙달도별 ‘대조+지시적 신정보’과 ‘대조+지시적 구정보’ 항목의 ‘이/가’ 선택률(%)	110
[그림 22] 숙달도별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와 ‘대조+지시적 구정보’에 따른 정답률	111
[그림 23] 숙달도별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정답률	11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단서 경쟁 모형(Cue Competition Model)에 기반하여 중국 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관여하는 의미 기능 단서 습득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착어인 한국어의 유표적인 문법 특징 중의 하나는 조사이다.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 문장에 있는 다른 단어에 대하여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첨가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조사는 다양한 용법과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초급 단계부터 배우는 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은 자주 쓰이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단계까지 이른 학습자에게서도 오류가 발생하는 문법 항목이다.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조사 ‘이/가’와 ‘은/는’은 가장 높은 사용률과 오류율을 보이는 조사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정보영, 2004). 그 이유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이 다양할뿐더러 상황 맥락 혹은 문어와 구어에 따라 사용 규칙이 달라지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가’는 격을 나타내고, ‘은/는’은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의 조사가 의미 기능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에서는 격조사로 알려져 있는 조사 ‘이/가’에는 보조사적인 기능이 존재하고(이관규, 2014), 보조사로 알려진 조사 ‘은/는’도 ‘이/가’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학습자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벌러리, 2017).

‘이/가’와 ‘은/는’의 선택이 자의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가’와 ‘은/는’을 문장 차원에서만 국한하여 분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즉, 문장의 미시적인 관점을 넘어서 담화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법을 바라본다면 ‘이/가’와 ‘은/는’의 선택은 훨씬

덜 자의적일 것이다(유민애, 2017). 두 번째 이유는 이미지(2013:414)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가’가 드러내는 ‘신정보’의 의미 기능과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가’와 ‘은/는’을 선택할 때 고려되는 의미 기능의 종류는 다양하며 다층적인 것이다. 다층적이란 것은 ‘이/가’와 ‘은/는’의 통사적, 의미·화용적, 정보 구조적 측면을 말한다. 그간의 연구 결과는 대개 ‘이/가’와 ‘은/는’은 통사적, 의미·화용적, 정보 구조 측면에서 각각 ‘주어와 주제’, ‘선택지정과 대조, 신정보와 구정보’ 등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측면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 기능, 즉 경쟁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단서’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하나하나의 단서로 설정되는 의미 기능들이 대응되는 조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 경쟁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서 경쟁이 있는 경우 모여 화자라면 이 의미 기능, 즉 단서들의 강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직관적으로 ‘이/가’와 ‘은/는’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학습자들은 서로 경쟁이 있는 여러 단서 중에서 신뢰도가 높은 단서에 의해 조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의미 기능, 즉 단서의 조합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강하게 인지하는 단서는 무엇이고, 약하게 인지하는 단서는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한국어 조사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현지, 2008: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을 단서 강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단서 경쟁 모형(Competition Model)에 기반하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주어진 한국어 담화를 해석하고 주어 자리에 오는 ‘이/가/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의 조합에 따라 조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가’와 ‘은/는’의 습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단서 경쟁 모형에 기반하여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들에게 난해한 조사 ‘이/가’와 ‘은/는’에 관해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상의 견지에서 설정한 본고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경쟁 유무에 따라 중국어권 한국어 초·중·고급 학습자 집단은 어떠한 습득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조합에 따라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숙달도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이러한 양상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있어서 ‘선택지정’ 의미 기능 단서의 유무에 따라 선택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2-2.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있어서 ‘대조’ 의미 기능 단서의 유무에 따라 선택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때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조합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2.1. 국어학에서의 조사 ‘이/가’와 ‘은/는’ 연구

우선 조사 ‘이/가’는 전통적으로 흔히 주어에 쓰여 문장 내에서 통사적 의미 기능을 하는 ‘격조사’로 알려져 왔다(서정수, 1971; 유동석, 1998). 이와 같은 해석은 ‘이/가’가 격 통사적 기능 외에 다른 의미·화용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이/가’가 통사적 기능 외에 일정한 의미·양태적 기능을 가진다고 본 논의로는 남기심(1972), 신창순(1975), 고석주(2002, 2004) 등이 있다. 먼저, 남기심(1972)은 ‘이/가’의 의미 기능을 ‘배타적 지칭’과 배타적인 의미 없이 단순히 행동주를 지칭한다는 뜻하는 ‘중화적 지칭’으로 구분하였다. 아래 예시(1)과 같이 정적(靜的) 상태나 상습(常習) 상태는 ‘배타적 지칭’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다른 남자가 아닌 ‘저 남자’가 멋있다는 것과, 다른 산이 아닌 ‘백두산’이 제일 높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래 예시(2)와 같은 ①일시적인 동작의 변화나, ② 의문사(무엇, 누구) 뒤에 붙이는 경우, ③ ‘수사+명사’인 경우에는 ‘배타적 지칭’뿐만 아니라, ‘중화적 지칭’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1) ㄱ. 저 남자가 멋있다.

 나. 백두산이 제일 높다.

(남기심, 1972: 128 참고)

(2) ㄱ. 영희가 지금 학교에 가고 있다.

 나. 아이들이 공을 찬다.

(남기심, 1972: 128 참고)

신창순(1975)에서는 ‘이/가’의 의미 기능을 ‘지정’으로 보고, 이를 다시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정서술은 아래 예시(3)과 같이 대화의 장에서 직접 감각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이고, 선택지정은 아래 예시(4)와 같이 제시된 여러 지시체 가운데서 특히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강조’의 양태적인 의미를 동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 꽃이 참 예쁘네.

(4) 가: 뭐가 예쁘다고?

 나: 꽃이 예쁘다고.

고석주(2002, 2004)에서는 ‘이/가’는 의미가 없는 격표지가 아니라 “발화 맥락에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개체 또는 대상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이란 ‘선택지정’의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임을 제안하였다.

한편으로 ‘이/가’를 화용적 혹은 정보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본 논의로는 김영희(1980), 김선희(1983), 최규수(1999) 등이 있다. 이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이/가’가 ‘새로운 정보’, 즉 ‘신정보’ 혹은 ‘주제의 도입’을 표시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즉 ‘이/가’를 제시 주제나 도입 주제 또는 담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어 보조사 ‘은/는’에 관한 논의로는 일반적으로 ‘주제’와 ‘대조’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논의가 예전부터 있어 왔다(남기심, 1972; 채완 1976; 성기철, 1985; 홍사만, 2002).

채완(1976)에서는 체언에 연결되는 ‘은/는’의 의미를 선행하는 체언의 성격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뉘고 명사는 다시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로 나뉘며, 고유 명사, 대명사 중에서 1, 2인칭 대명사와 ‘이, 그, 저’ 뒤에 연결된 명사는 추가적인 조건 없이 주제가 될 수 있는 반면, 일반 명사가 주제가 되려면 한정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남기심(1972:128-129)에 따르면 주제의 하위 범주를 ①총칭적인 것(예컨대, 인간), ②유칭(唯稱)적인 것(예컨대, 해, 달), 즉 하나밖에 없는 사물을 가리키는 것일 때, ③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 것, 혹은 화·청자 모두 알고 있는 화제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¹⁾ 이와 같이, ‘주제’의 하위 분류로 흔히 ‘대하여성’, ‘총칭성’, ‘구정보’ 등으로 구분되어 왔다. ‘대하여성’은 문장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성기철, 1985: 68). ‘총칭성(總稱性)’은 특정한 한 개체가 아닌 모든 개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남기심(1972), 채완(1976)에서도 명사가 총칭적일 때 ‘주제’의 의미 기능 역할을 가지는 ‘은/는’이 결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이란 ‘은/는’과 결합하는 개체 또는 체언이 자매항이 존재한다는 뜻이다(홍사만, 1980). 비슷한 개념, 다른 용어로는 이익섭·임홍빈(1983:165)에서는 ‘소극적 배타’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대조’의 의미가 유도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조’의 의미 기능은 자매항이 문맥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따라 ‘명시적 대조’와 ‘암시적 대조’로 구분될 수 있다. ‘명시적 대조’의 경우 자매항이 문중에 대등 접속문의 형식을 취하게 되며 ‘암시적 대조’

1) 더불어 남기심(1972:129)에 따르면, 주제에서의 ‘총칭 명사’, ‘유칭 명사’, ‘전술 명사’가 모두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은 위 세 가지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의 경우 자매항이 청자에게 암시적으로 존재하여 함의적인 문장의 성격을 보인다(홍사만, 2002: 177).

그렇다면 ‘주제’와 ‘대조’가 공존하느냐 서로 배타적이냐에 따라 논의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은/는’에 대조의 의미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문장의 중간에 위치한 ‘은/는’에 대조의 의미 기능을, 문두의 ‘은/는’에 주제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이정민, 1973; 채완, 1976)²⁾. 그러나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한계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고찰되어야 할 주제와 대조의 개념을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윤재원, 1988:74). 윤재원(1988:74)에 따르면 주제(topic)란 문장의 구성성분 중의 하나이고, 대조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것끼리의 비교에서 생기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는, 전영철(2006:172)에서 ‘주제’와 ‘대조’ 두 의미 기능의 용법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두 의미 기능 중에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즉, 주제는 대조의 의미 기능이 첨가될 수도 있고 첨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2. 한국어교육학에서의 조사 ‘이/가’와 ‘은/는’ 연구

한국어교육학에서의 ‘이/가’, ‘은/는’에 관한 연구는 대개 오류 양상 분석, 사용 양상 분석 연구, 습득 양상 분석 연구, 그리고 위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교육 내용 혹은 교육 방안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사용 양상 중의 오류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김지은(2009), 이보혜(2011), Yu Xiao Qian(2013) 등이 있다.

김지은(2009)에서는 ‘연세 한국어의 학습자 말뭉치’에서 중국어권, 영어권, 일본어권 학습자들에게 나타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대치 오류 현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은/는’을 ‘이/가’로 대치하는 오류보다

2) 양동휘(1975)에서는 문두에서의 ‘은/는’에도 강세가 놓이면 대조를 표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가’를 ‘은/는’으로 대치하는 오류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이/가’를 ‘은/는’으로 대치하는 오류는 내포문 중의 부사절 항목에서 오류빈도가 가장 높았고, ‘은/는’을 ‘이/가’로 대치하는 오류는 주제 용법 중의 [N는 N이다] 구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왔다. 이보혜(2011)에서는 폴란드어권 학습자들이 숙달도별로 산출한 문어 자료에서 나타난 ‘이/가’와 ‘은/는’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초, 중 고급 학습자 모두 ‘이/가’와 ‘은/는’의 상호 대치 오류율이 가장 높았고 ‘이/가’가 나타낸 주제 및 대상(주어), 지정, 신정보의 의미 기능들과 ‘은/는’이 나타낸 주제, 구정보의 의미 기능들 간 대치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Yu Xiao Qian(2013)에서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학습자들에게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용법에 따라 오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용법별 오류율에 차이가 있는지, 중급과 고급 학습자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선행 연구와 달리 ‘은/는’은 총체적으로 볼 때 누락 오류가 대치 오류보다 많았다. 하지만 유독 조사 용법 중에서 신정보에 해당하는 주어 자리의 ‘이/가’는 대치 오류가 누락 오류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은/는’의 경우, 대조에 해당하는 용법의 대치 오류 빈도가 제일 높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 ‘은/는’의 오류율이 조사 ‘이/가’의 오류율에 비해 높았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 결과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가’가 보격조사인 경우는 고급 학습자의 오류율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김호정·강남옥(2010)에서 언급한 ‘U자형 발달 곡선’의 현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호정·강남옥(2010)에서는 중·고급 학습자 세 명의 문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양상을 분석한 바가 있다. 횡단성을 벗어나 종단적으로 하여 다양한 문법적 오류 양상들을 고찰하였는데 제2언어 및 외국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U자형 발달 곡선’을 발견하여,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통사적 특징을 반영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오류 분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를 대상

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는 다언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원미진(2016), 이난희(2019), 단일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김미경 외 (2017), 김미경(2017), 이셋별(2020), 역번역문을 통해 ‘이/가’, ‘은/는’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허용, 박은정(2019) 등이 있다.

원미진(2016)에서는 그간에 많이 해왔던 오류 양상 분석에서 벗어나 중간언어 발달 및 사용 양상의 체계를 밝히기 위해 학습자 말뭉치를 통해 초급 중국인 학습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학습자가 주로 조사 앞 명사 또는 대명사 사용상의 특성과 조사 뒤에 오는 서술어의 특징에 따라 조사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사용 양상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려는 시범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 학습자 숙달도를 중·고급으로 확대시켜 종적인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발달 양상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김호정·강남옥(2010)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시도한 바가 있으나 추후에는 종적 자료 분석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후 김미경 외(2017)에서는 중간 언어적 관점에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 선택 요인을 서술어의 유형, 주어의 유정성, 주어의 정보량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용 양상을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다’, 유정물, 구정보 주어에는 ‘은/는’, 형용사와 ‘있다’, ‘없다’, 무정물, 신정보 주어에는 ‘이/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세 가지의 선택 요인이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 관계 살펴보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 김미경(2017)에서는 앞서 세 개의 선택 요인과 더불어 ‘결합 문장 성분’, ‘절의 유형’을 추가하여 중국어권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중간 언어적 규칙 체계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역시 여러 가지 선택 요인들이 동시에 교차적으로 작용할 때 어떠한 조사 사용 양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다른 언어권을 대

상으로 하여 이셋별(2020)에서도 네덜란드인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한 작문 자료 중에 나타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중간언어의 관점으로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선행 주어와 후행 서술어에 따라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 중 선택하는 경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이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사용 및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즉 구, 절, 문장의 차원에서만 ‘이/가’와 ‘은/는’을 바라보았는데, 이는 ‘이/가’와 ‘은/는’의 담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의미 기능을 놓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이/가’, ‘은/는’과 결합하는 선행 체언의 특성을 분석하였지만 한 담화 안에서 ‘이/가’, ‘은/는’과 결합하는 선행 체언들의 관계를 주목하지 못하였다. 또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은 최석재(201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서술어라고 해도 발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에 따라 조사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있다’, ‘없다’ 등의 서술어가 쓰인 문장에서의 주어는 주로 ‘이/가’와 결합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김지은, 2009), 문맥에 따라 “(펜은 없지만) 종이는 있다.”처럼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김영일, 2012).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구정보의 구분을 단순히 선행 언급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근거는 양세희(2014)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선행 언급이 없는 정보이더라도 앞의 명제에 대한 대조의 의미를 가진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은/는’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양세희, 2014:109). 그러므로 담화·텍스트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가’와 ‘은/는’의 사용 양상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보영(2004), 김령(2012), 한비하(2019), 이난희(2019) 등 연구의 실험 문항에서 담화·텍스트적 맥락을 포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영일(2016)과 김일규(2016)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김영일(2016)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자체를 학습자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이 언제 어떤 담화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이해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미형(2011)에서 제시한 ‘기본 전제’와 이미지(2013)에서 사용한 상황 모형의 방법론을 발전시켜 초급을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의 은는과이가의 분포와 조사 선택 요인 분석맞추어 여러 가지 ‘이/가’와 ‘은/는’ 사용에 관한 상황 모형을 제시하였다. 김일규(2016)에서는 초급에서 고급까지 ‘이/가’, ‘은/는’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견해를 제안하였다. 초급에서는 ‘주어’, ‘주제’만을 제시해도 무방하지만 중·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보다 정확한 ‘이/가’, ‘은/는’의 의미 기능을 교수·학습 하려면 정보 구조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고급 단계인 학습자로 하여금 정보 표지 중의 하나인 ‘이/가’, ‘은/는’으로 정보 구조를 포장하여 맥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 구조의 기본 개념인 화제, 초점, 대조 등의 의미를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습자 조사 ‘이/가’와 ‘은/는’의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한송화·원미진(2017)에서는 모어 화자 자료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토대로 결합 체언의 특성과 후행 용언의 특성, 조사와 결합한 결합구의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이/가’와 ‘은/는’의 분포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선택 요인을 살펴보고 학습자의 중간 언어 양상을 밝혔다. 김미경(2017)에서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가’, ‘은/는’ 결합 문장 성분, 선행 체언의 유정성, 선행 체언의 신/구정보, 절의 유형, 후행 서술어 유형에 따른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중간언어를 탐구하였다. 하지만 이상 연구들의 공통적인 한계점은 ‘이/가’와 ‘은/는’은 담화 맥락의 의존성이 강한 조사인데, 결합 명사와 후행 용언을 살피는 데에 주된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진행된 중국어권 학습자 대상 조사 ‘이/가’와 ‘은/는’ 연구에서 각 조사의 의미 기능을 밝힌 바를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 및 습득 양상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이/가’ 혹은 ‘은/는’의 의미 기능 설정

연구	‘이/가’의 의미 기능 설정	‘은/는’의 의미 기능 설정
이안나(2010)	주어	주제, 대조
백수진(2011)	주격조사, 초점, 신정보	주제, 대조·강조, 구정보
김령(2012)	내포절 주어, 지정, 신정보	대조, 구정보
Yu Xiao Qian (2013)	내포문 주어, 의문 대명사 주어, 신정보	주제, 알려진 정보, 대조
유혜경, 방성원 (2015)	주어, 지정, 신정보	주제, 대조, 구정보
오아림, 박선희 (2016)	정보적 초점, 선택적 초점, 특정적 초점, 배타적 초점	주제, 대조
원미진(2016)	있다/없다 앞, 사람 주어, 형용사 앞, ‘(장소)에 있습니다’ 앞	1인칭 주어, ‘(장소)에서 왔습니다’ 앞
김미경(2017)	절의 유형, 선행 체언의 유정성, 선행 체언의 신/구정보, 후행 서술어 유형	
최성희(2017)	내포문, 지정, 신정보, 배타성	-
공평(2018)	주어 표시, 선택지정, 특정성, 신정보, 초점	주제, 총칭성, 구정보, 내포문, 대조
한비하(2019)	-	주제, 대조
이난희(2019)	지시체 도입 및 사건 제시/보고, 수정문 및 확인문	화제에 대한 설명, 대조
고효단(2020)	주어, 지정서술/선택지정, 특정성, 배타성, 신정보	주제, 구정보, 총칭성, 대조
오아림(2021)	선택적 초점, 수정적 초점, 정보적 초점, 특정성, 배타성, 수사 의문문, 확인 의문문, 비한정적 주어	구정보, 총칭성, 대조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이/가’와 ‘은/는’의 선행 연구는 모두 이들 조사를 의미 기능별로 연구해 왔다. 하지만 담화 맥락에서의 한 지

시체가 ‘이/가’ 혹은 ‘은/는’의 한 가지 의미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동시에 지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2.3. 단서 경쟁 모형 연구

단서 경쟁 모형에 관한 연구는 영어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80년대에는 주로 영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90년대에 들어서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로 확대되어 영어와의 비교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하 영어 또는 영어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McDonald(1987)는 네덜란드어 원어민 영어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네덜란드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명사-동사-명사’의 전형적 어순에서 생물성, 격 굴절, 어순 단서의 영향을 논의하였다. 실험 결과, 목표어 환경에서 거주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네덜란드어 원어민 영어 학습자는 모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격 굴절 단서에 따른 영향에서 벗어나 영어에서 중요한 단서인 어순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 발견되었다. 반대로, 목표어 환경에 더 오래 거주한 영어 원어민 네덜란드어 학습자는 격 굴절 단서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asaki(1991)는 일본어 원어민과 영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강세, 어순, 명사의 유정성을 단서 변인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단서 경쟁이 있을 때 영어 원어민 일본어 학습자는 일본어 원어민과 유사하게 명사의 유정성에 의존하여 일본어 문장의 주어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 원어민이 어순 단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과 달리 모어 문장에서 유정성 단서를 이용하던 습관을 전이시켰다. 더불어 Sasaki(1994)에서도 영어 원어민 일본어 학습자의 일본어 습득 양상을 조사한 결과,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전이시키지 않았으며 일본어의 어순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Liu, Bates & Li(1992)는 중국어 원어민과 영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어순과 명사의 유정성을 단서 변인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어에서 유

정성을 이용한 중국어권 영어 학습자는 목표어인 영어에도 유정성 단서를 이용하였으나, 모어에서 통사 단서인 어순 단서를 이용하던 영어 원어민 중국어 학습자는 중국어 문장 해석에 중국어 원어민과 마찬가지로 유정성 단서를 이용하였다. 이 결과는 즉, 모어에서 의미 단서의 역할이 중요한 학습자는 통사 단서의 기여도가 큰 언어를 학습할 때 목표어의 통사 단서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반면에 모어에서 통사 단서가 중요한 학습자는 의미 단서의 역할이 큰 언어를 학습할 때 의미 단서의 이용이 쉬운 것을 시사한다.

권영신(1997)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습득 과정을 단서 경쟁 모형에 비추어 학습자들이 새로운 유형의 단서와 단서 강도를 지닌 목표어를 학습할 때, 어떠한 정보에 의존하여 중간 언어를 발달시켜 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영어 문장을 해석하고 주어를 파악할 때 어휘-의미 단서에 편협하게 의존하였고, 영어 화자는 문법 단서인 일치 단서를 비롯한 다양한 단서들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어 원어민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화자와 같이 격조사 단서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봉수(2005)에서 한국어 원어민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문장의 주어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단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 학습자들이 명사의 생물성 단서에만 의존하여 주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은 한국어에서 중요한 단서인 조사 단서는 영어에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휘-의미 단서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로써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문장 안에서 주어를 파악할 때 문법 단서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영어 학습할 때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과 함께 다양한 예문을 제시해 주면 영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 영역에서 단서, 혹은 경쟁 모형에 관한 연구로는 김민희(2021), 김현지(2014), 김현지(2008), 홍윤기·김중섭(2010)이 있다.

김민희(2021)는 한국어 피동문에 대한 인식과 생산이 숙달도와 언어적 단서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여 중국어권 한국어 학

습자의 피동문 습득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어순 단서가 문장을 인식할 때 중·고급 학습자 집단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형태·통사적 단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는 어휘·의미적 단서를 주로 활용하여 문장을 인식한다는 점을 밝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적 단서가 갖는 의미와 원리를 활용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피동문 습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현지(2014)에서는 중국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한국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떠한 단서를 이용하는지 수용성 판단 과제를 실시하였다. 수용성을 판단할 때 사용된 문장의 유형으로, 여격-대격 수여구문, 사동 구문, 대격-대격/여격-대격 수여 구문으로 세 가지가 있었고, 조사한 단서로는 조사 단서, 어순 단서, 생물성 단서가 있었으며, 분석 기준으로 한국어 원어민 화자의 응답 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세 집단이 한국어 수용성 판단에서 강한 단서로 사용한 단서의 위계는, 한국인 원어민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경우 모두 ‘조사 단서>어순 단서>생물성 단서’ 순으로 나타났고, 중급 학습자의 경우, ‘어순 단서>조사 단서’ 순을 나타냈고, 생물성 단서의 강도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중급 학습자의 생물성 유무에 따른 단서에 대한 수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세 개의 문장 유형에서 모두 집단과 단서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경쟁 모형의 대한 논의가 대개 주어의 판별에만 그친 데 반해 이 연구는 더 깊이 있고 넓게 완성된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조사를 선택할 때 어떠한 단서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지 탐구한 연구로는 김현지(2008), 홍윤기·김중섭(2010)이 있다. 김현지(2008)에서는 중간언어를 통해 학습자가 문장을 생성할 때 어떠한 단서(cue)에 의해 한국어 조사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명사의 의미적인 자질’, ‘논항과 논항 간의 의미관계’, ‘서술어의 의미 구조’, ‘어순’, ‘조사가 가진 의미적인 자질’, ‘의미 완성된 문장에 주어진 조사 정보’ 등의 단서를 도출하였다.

홍윤기·김중섭(2010)에서는 다양한 언어권의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들이 주어진 문장에서 어휘, 형태, 통사 중에 어떤 정보를 이용해 조사를 선택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문항에 따라 특정 정보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과 고려해야 할 정보나 조건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장에 여러 정보가 있음을 인지하고, 어떤 조사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학습자들이 조사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조사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알 수 있듯이 단서 혹은 단서 경쟁 모형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문장의 주어 판별과 전체적인 문장의 이해에 관하여 주로 이루어졌고 한국어 조사, 특히 학습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가’와 ‘은/는’의 습득에 관한 논의는 현재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3. 연구 범위

본고의 연구 대상은 중국어권 한국어 초급 학습자 60명, 중급 학습자 60명, 고급 학습자 60명, 한국어 모어 화자 60명이다. 그리고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들을 서로 조합해 6개의 단서 조합을 설정하여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설문지의 형식 및 유형은 한 담화에서 주어 자리의 조사에 빈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적절한 조사, 즉 ‘이/가’ 혹은 ‘은/는’을 선택하여 넣는 빈칸 채우기 테스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어 담화에서의 복문을 배제 시켜 단일 주어문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를 서로 조합하여 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문까지 연구 범위로 포함하면 통사적 단서로서 모절, 내포절, 대등절, 종속절, 후행절 주어 등 다양한 변이가 생기게 되고, 게다가 연결어미에 따라 주어 제약 각각이 달라져 지나치게 많은 변인이 설정되어 엄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문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두고 본 연

구에서는 테스트 문항으로 제시되는 문장을 단일 주어문으로 통제하여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간 경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이/가’, ‘은/는’의 의미 기능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 구조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란 세상의 지식이 사람의 머리에서 어떻게 기억되는가에 관한 언어 구조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를 알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거나 접하게 되는 정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Brown & Yule, 1983:2)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담화의 구조, 내용,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화자가 문장을 발화할 때, 발화된 문장은 보통 신정보와 구정보라는 두 종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구정보, 흔히 주제에 대응시켜 발화시 이미 청자와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이고 신정보, 흔히 초점(focus)에 대응시켜 발화의 결과로 청자가 새롭게 가지게 되는 정보를 말한다(전영철, 2009).

하지만 ‘신정보’와 ‘구정보’, ‘초점’과 ‘주제’라는 용어만 봤을 때, 그 정의가 매우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임홍빈(2007:495)에서는 초점은 신정보이므로 아래 예시(1)의 ‘경미가’를 초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1) 가: 경옥과 경미 중 누가 머리가 좋으냐?

나: 경미가 머리가 좋다.

(1가)에서 이미 ‘경미’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1나)의 ‘경미가’는 구정보 이기에 초점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영철(2009:222)에서는 ‘경미’는 의문사가 요구하는 대답이므로 전형적인 초점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구정보와 신정보는 각각을 주제와 초점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전영철, 2006; 조진수, 2018:270). 이를

해소하기 위해 Gundel & Fretheim(2004)은 구정보와 신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주어집성(givenness)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어집성(givenness)을 다시 지시적(referential) 주어집성과 관계적(relational) 주어집성 두 가지로 나누었다(Gundel, 1988; Gundel & Fretheim, 2004).

지시적 주어집성은 그 지시체가 수신자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인지적 위계를 가지는지에 따라 이미 활성화(activate)된 정보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정보로 나눌 수 있다(최윤지, 2016). 수신자의 머릿속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발신자가 전달함으로써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정보인 경우, 그 정보는 지시적 신정보라고 부른다. 반면, 수신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활성화(activate)되어 있는 정보는 지시적 구정보이다(박진호, 2015: 383-384). 이때 다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의 구분 기준이 그 정보가 수신자에게 기억되느냐가 아닌 의식되어 있느냐는 점이다(Chafe, 1974; 윤재원, 1988:56). 전영철(2006:175)에서는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의 하나로 ‘대화 중에 이미 언급되었는지’를 들고 있다. 이것이 곧 본고의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인 지시적 신정보/지시적 구정보의 구별 기준이 된다. 더불어 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지시적 신정보이면 ‘이/가’를 붙이고, 지시적 구정보이면 ‘은/는’을 붙인다고 한다(박진호, 2015:384).

다음 관계적 주어집성은, 말 그대로 한 문장 안에 있는 요소들 서로 간의 ‘정보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구조이다. 한 문장의 상보적인 두 부분인 X와 Y로 분할되어, X는 그 문장이 기술하고 있는 대상이며, Y는 X에 대한 기술이다. 이때 X가 Y에게는 구정보이고 Y는 신정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관계적 구정보는 주제 또는 화제(topic)³⁾, 관계적 신정보는 초점 또는 평언(comm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전영철, 2006:174-176; 박진호, 2015:384).

이렇게 정보 구조를 지시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으로 나누는 관점이 널

3) ‘주제’와 ‘화제’란 용어를 혼용하는 현상이 계속 있어 왔다. Von Heusinger(1999:102)에서 제시한 학자별로의 정보 구조에 대한 용어 정리는 다음과 같다.

정보 구조에 대한 용어 정리(Von Heusinger, 1999:102)

리 수용되며(전영철, 2006, 2013; 박진호, 2015; 최윤지, 2016⁴⁾) 신정보와 구정보의 개념 정의가 더 정교화되고 다양한 정보 구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조진수, 2018: 270). 위 (예)에서 일어난 논쟁도 역시 이 개념으로 해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주제와 초점이란 것은 지시적 주어집성인 화·청자가 해당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정보가 아닌 관계적 주어집성에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지시적 구정보는 관계적으로도 항상 구정보인 것은 아니다. 본고도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다. 즉 맥락에서의 한 지시체가 동시에 초점이자 지시적 구정보일 수도 있다

정보 구조에 대한 용어	대표 논저
psychological subject - psychological predicate	von der Gabelentz(1869), Paul(1880)
theme - rheme	Ammann (1928), Thema-Rhema, Mathesius(1929), Prague School (Dane , Firbas), Halliday (1967b)
topic - comment	von der Gabelentz (1869), Reinhart(1982)
topic - focus	modern Prague School: Sgall & Hajičová & Benešová 1973)
presupposition - focus	Chomsky(1971), Jackendoff(1972)
background - focus	Chafe(1976) for contrastive focus, Jacobs((1982)
old/given - new	Halliday(1967b), Chafe(1976)
open proposition - focus	Prince(1981)
notional subject - notional predicate	É. Kiss(1995)

이처럼 해외 논저에서도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학자들도 역시 보는 관점과 번역에 따라 ‘화제-평언, 화제-초점, 주제-평언, 주제-초점(유유현, 2010), 주제부-설명부(이희자, 1994), 주제-논평, 전제-초점, 배경-초점, 구정보-신정보, 잉여적 정보-필수적 정보(윤재원, 1988)’ 등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다. 각 정의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문장을 초점과 그 나머지 부분을 나누는 것은 대부분의 논의에서 동의하다(유유현, 2010).

그리고 다시 ‘화제’와 ‘주제’의 용어 문제로 되돌아 가, ‘주제’ 혹은 ‘화제’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사용하는 연구자도 있고, 구분해서 사용하는 연구자도 있다. 후자의 경우, 주제는 문어적 개념, 화제는 구어적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보는 입장도 있다. 혹은 주제와 화제를 상·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보는 연구자도 있다. 본고에서는 주제와 화제를 동일시하기로 하였으며 ‘주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4) 최윤지(2016)에서 사용한 용어는 ‘절대적 정보 구조’와 ‘상대적 정보 구조’이지만 사실 상 그 개념은 각각 ‘지시적 정보 구조’와 ‘관계적 정보 구조’와 동일하다.

고 본다(전영철, 2009:222-223).

<그림1>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전영철, 2009: 224)

관계적 구정보	관계적 신정보
지시적 구정보	지시적 신정보

위 <그림1>을 보면, 지시적 구정보는 관계적 구정보일 수도 있고, 관계적 신정보일 수도 있으나, 지시적 신정보는 반드시 관계적 신정보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제2언어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만큼, 이러한 분류 체계는 제2언어 습득 실험에 적용하기엔 다소 복잡하고 무리가 있다고 본다.⁵⁾ 실험뿐 아니라 실험 후 제2언어로서의 교수·학습 시사점도 같이 제시해야 하므로, 정보 구조적인 개념인 초점 대신, 더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적 신/구정보’ 외에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인 ‘선택지정’과 ‘대조’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 기능들이 실제 담화에 적용해 봤을 때, 관계적 주어집성의 자질로, 선택지정은 항상 초점, 즉 ‘관계적 신정보’가 되고, ‘대조’는 ‘지시적 신정보’인지, ‘지시적 구정보’인지에 따라, 전자는 ‘관계적 신정보’, 즉 주제가 되고, 후자는 ‘관계적 구정보’, 즉 초점이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2> 본고에서 설정한 의미 기능이 대응되는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

5) 예컨대 “담화의 관점에서 보는 ‘이/가’의 앞에 명사구는 지시적 신정보일 수도 있고, 지시적 구정보일 수도 있지만, 관계적 구정보일 수가 없으면 반드시 관계적 신정보여야 한다(윤재원, 1988:63)”는 것을 교수 현장으로 대입시키면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가’의 앞에 명사구는 지시적 신정보일 수도 있고, 지시적 구정보일 수도 있지만, ‘선택지정’ 또는 ‘대조’의 의미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조사의 사용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 제2언어 학습자에게 더 수용되기 간단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선택지정	+	지시적 신정보	→	관계적 신정보(초점)
		지시적 구정보		관계적 신정보(초점)
대조	+	지시적 신정보		관계적 신정보(초점)
		지시적 구정보		관계적 구정보(주제)

위 <표2>를 보면 해당 지시체가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지시체가 지시적 주어집성의 자질로서 ‘지시적 신정보’일 때 (이하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로 표기) 나타낸 관계적 주어집성은 ‘관계적 신정보’인 것이다. 다른 조합도 마찬가지로,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와 ‘대조+지시적 신정보’도 ‘관계적 신정보’이고, ‘대조+지시적 구정보’일 때 드러낸 관계적 주어집성은 ‘관계적 구정보’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근거는 이필영(1982), 김선희(1983), 전영철(2006)에서 찾을 수 있다.

이필영(1982:426-427)에서는 아래의 예시(2)를 들면서 선택지정이며 동시에 초점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2) 울릉도가 항상 눈이 많이 내린다.

이필영(1982:426-429)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울릉도’를 주제로 간주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 원인은 (2)란 문장의 경우, 반드시 이전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선행되어야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예시(2)의 서술부는 이미 전제된 것이므로 ‘울릉도가’는 선택적 지시를 받은 지시체이므로 동시에 초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선택지정의 명사구는 문장의 ‘주제(관계적 구정보)’가 아닌 ‘초점(관계적 신정보)’이 된다는 것이다. 김선희(1983:37)에서도 ‘의문사+이/가’ 지시항은 정보의 초점이 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이/가’ 지시항이 초점이 되며 전제성이 낮다고 한 바가 있었다. 더불어 이필영(1982:429)에서 ‘대조’의 ‘은/는’도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한 ‘대

조’는 ‘지시적 신정보’에 해당할 때일 것이다. 전영철(2006)에서 ‘주제-초점’에서의 ‘주제’와 ‘초점’의 개념은, ‘대조’와는 서로 다른 차원의 정보 구조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대조가 초점, 주제에 덧붙여질 수 있어 초점의 대조 및 주제의 대조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학습자들이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지시적 주어집성이란 개념을 수용하고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로 단서를 설정하였으며 아울러 화자의 의도 또는 문맥에 의해 드러난 ‘선택지정’ 단서와 ‘대조’ 단서를 설정하였다. 다만, ‘선택지정’ 단서 혹은 ‘대조’ 단서가 문맥에 의해 드러나지 않을 때, ‘지시적 신정보’ 혹은 ‘지시적 구정보’ 단서만 남아, 이때 ‘이/가’와 ‘은/는’이 붙는 지시체는 단순히 ‘지시적 신정보’ 혹은 ‘지시적 구정보’의 의미 기능보다 ‘도입 주제·중심 주제’란 의미 기능이 실행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정’ 혹은 ‘대조’ 단서가 없이 ‘지시적 신정보’ 혹은 ‘지시적 구정보’ 단서만 주어지는 경우, ‘도입 주제’ 단서 혹은 ‘중심 주제’ 단서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상 설정을 예로 들자면, 위 (1나)에서의 ‘경미’는 (1가)의 의문사에 요구되는 답이므로 ‘선택지정’으로 간주하고, 지시적 주어집성 측면에서 선행 맥락에서 이미 언급된 지시체이기 때문에 ‘지시적 구정보’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하 ‘이/가’와 ‘은/는’ 각각의 의미 기능 정의 및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1.1. ‘이/가’의 의미 기능⁶⁾

1.1.1. 선택지정

6) 조사 ‘이/가’의 의미 기능으로 ‘강조’를 들고 있는 학자도 있다(성기철, 1994:31). 하지만 이에 관한 쓰임으로는 대개 ① 부사어 구성 (예: 개는 원래가 그래.) ② 부정 표현 구성(예: 그렇게 싫지가 않아.) ③보조사 구성(예: 오늘부터가 문제가 있었어.)을 들 수 있다(별리러, 2017). 이는 본고에서 주목하는 목표 항목인 주어의 ‘이/가’와 ‘은/는’의 습득과 별개인 것으로 논외로 한다.

학교 문법에 따르면 ‘이/가’는 격조사로 간주되며 앞에 결합 체언으로 하여금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게 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특정한 의미 기능을 가진다기보다는 통사 층위에서 할당된 구조적인 격을 나타낸다는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다(양세희, 2014). 또한 일상 언어생활에서 격조사 ‘이/가’의 생략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로 ‘이/가’의 의미 기능은 무표적인 성격을 띠 수 있다고 했다. 반면에, 유표적으로 나타나는 ‘이/가’, 즉 구조적 조사로서의 ‘이/가’가 실현 유무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문장이 어색해지는 경우에 대하여 ‘이/가’가 일정한 어휘적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었다(신창순, 1975; Kuno, 1973; 이필영, 1982; 김선희, 1983).

(3) 소미 씨가 학생이에요.

(4) 가: 누가 학생이에요?

나: 소미 씨가/*∅/*는 학생이에요.

위 예문(3)에서 ‘이/가’는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는 격조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3)의 문장을 (4)의 맥락에 넣었을 때, ‘이/가’가 격조사 이외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나)의 대답에서 ‘소미 씨가’는 ‘수빈이나 영진 등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소미 씨’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 ‘가’를 생략하거나 ‘은/는’을 첨가하여 ‘소미 씨는’처럼 사용하면 의미가 어색해지거나 비문이 된다. 그러므로 ‘가’로 인해 이러한 의미가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가’는 주격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 특정하게 ‘소미 씨’를 가리키는 선택지정 의미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필영, 1982:419-420).

‘선택지정’이란 용어에 관하여 신창순(1975)에서는 한국어의 조사 체계와 유사한 일본어 조사를 연구한 Kuno(1973)를 참고하여 ‘이/가’는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지정서술은

대화의 장에서 직접 감각 또는 인식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이고, 선택지정은 제시된 여럿 가운데서 특히 하나를 선택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의 의미는 모두 ‘지정’이란 의미를 가지며 몇 가지 조건에 의해 구별된다고 하였다. 신창순(1975)에서 제시된 ‘지정서술’과 ‘선택지정’이란 용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필영(1982)에서 ‘이/가’를 ‘지정’의 의미 기능으로 설정하여 이를 다시 문맥적 활용, 즉 서술부 내용의 전제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나누었다. 만약 전제가 없다면 주격조사 ‘이/가’는 지정의 의미를, 서술부가 전제되었다면 선택지정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5) 하늘이 푸르다(구나).

(6) 가: 무엇이 푸른가?

나: 하늘이 푸르다.

(이필영, 1982:421)

이필영(1982:421)에 따르면 문장 (5)는 화자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각적으로 느낀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서, 문맥상 아무런 전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6나)는 (6가)에 의해 이미 서술부 ‘푸르다’가 전제된 상태에서 푸른 것은 곧 하늘임을 선택하여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전자의 주어는 ‘하늘’에 대하여 중립적 지시를, 후자에서는 선택적 지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중립적 지정을 하는 경우, 주어의 ‘이/가’는 그대로 ‘지정’의 의미만을 지니고, 선택적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의미 외에 ‘선택’이라는 의미까지 포괄한다고 하며, 후자의 경우를 ‘선택지정’이라고 불렀다.

김선희(1983:33)는 담화-화용의 측면에서 ‘이/가’의 의미 기능을 ‘특정성’, ‘배타성’, ‘정보 초점’, ‘담화의 출발점’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에 ‘담화의 출발점’은 본고에서 ‘도입 주제 및 지시적 신정보’란 의미 기능으로 분류하여 다음 절에서 논하겠다. 김선희(1983)는 ‘특정성’에 관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개체를 지시할 때, ‘이/가’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고 하였다. 아래 (7ㄱ)와 (7ㄴ)은 개와 남자의 일반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특정한 시간에 ‘어떤 한 개/남자’의 특정한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가’의 이러한 의미 기능을 ‘특정성’으로 칭하였다. 이는 발화 현장에서 화자가 직접 감지하고 인식한 것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신창순(1975)에서 사용한 ‘지정서술’과 이필영(1982)에서 제시한 ‘지정’이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 ㄱ. 남: 무슨 일이야?

여: 어머니, 개가/*는 사람을 물었네.

ㄴ. (식당에서 어떤 남자 직원을 쳐다보면서) 남자가/*는 친절하네.

다음으로 ‘배타성’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는 그럴 수 있니?”라는 문장처럼 모든 지시항의 집합 속에서 옳은 지시항만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상 ‘특정성’과 ‘배타성’은 결국 신창순(1975)과 이필영(1982)에서 제시된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8) 가: 한국에서 어느 계절이 좋아요?

나: 겨울이/*은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보 초점’ 의미 기능은 ‘의문사+이/가’의 지시항에 대한 대답에 ‘이/가’가 쓰이는 경우로 위의 예에서 ‘겨울이’는 ‘어느 계절이’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으로 고석주(2002:229-232)에서 ‘특정성’, ‘배타성’, ‘정보 초점’을 각각 ‘선택 구문’, ‘배타적 의미’, ‘수사 의문문’ 등 ‘이/가’가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9) ㄱ. 지금 밖에 비-*○/가/*는 오냐, 눈*○/가/*는 오냐, 우박*○/가/*는 오냐? (왜 안 가겠다는 거야?) (선택 구문)

ㄴ. 철수-*○/가/*는/*도 제일 먼저 학교에 갔다. (배타적 의미)

ㄷ. (1) 누(구)-가/*○ 알아, 내가 일등할지? (수사 의문문)

(2) 누(구)-가/*㉠ 그것을 안 하겠어? (수사 의문문)

(9ㄱ)과 같이 여럿을 나열하면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듯이 질문하는 경우는 ‘이/가’의 출현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조사가 실현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대비하면 조사 ‘이/가’가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9ㄴ)의 경우, 학교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철수인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배타성’의 의미를 가진 문장에서 ‘이/가’가 필수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조사 ‘이/가’의 의미 기능이 ‘선택지정’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9ㄷ)과 같은 수사 의문문에서도 ‘이/가’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9ㄷ1)에서는 주어에 해당하는 개체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고, (9ㄷ2)에서는 주어에 해당하는 개체가 여럿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이/가’를 써야 할 이유는 특정 개체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을 보여 준다(고석주, 2002:229-232).

강현화 외(2017)에서도 ‘이/가’가 열린 범주 안에서 어떤 것을 특별히 선택하는 ‘선택지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은/는’은 ‘어디, 뭐, 언제’ 등 의문사와의 결합이 부자연스러운 반면, ‘이/가’와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이/가’가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의문사를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다음 (예)와 같이 역시 ‘이/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10) 가: (누가/* 누구는) 김수지 씨이에요?

나: (제가/* 저는) 김수지예요.

이상의 ‘이/가’가 실현 여부에 따라 의미 해석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 ‘이/가’가 필수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하는 환경과 ‘이/가’가 실현이 되면 안 되는 환경⁷⁾ 등의 증거로 ‘이/가’를 격조사가 아닌 의미·화용적인 조

7) ‘이/가’가 실현이 되면 안 되는 환경으로는 부정 대명사 ‘아무’(“요즘은 아무*가 대학에 간다”)와 유일성을 들었다. 부정이란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렇게 특별히 정하지 않는 어떤 개체라는 부정(不定)의 의미와 모순되는 것이 곧 조

건과 화자의 판단에 의해 나타내는 ‘양태 조사’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석주, 2000)⁸⁾. 더불어 ‘이/가’의 의미는 ‘말화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의 지시체들 중의 하나로서 기술되는 사태와 관련이 될 수 있는 지시체들 중의 하나를 선택지정’하는 것임을 밝혔다(고석주, 2002; 2004). 최영환(1987:56)도 같은 맥락으로 ‘이/가’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어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은 서술어와 연결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이/가’의 ‘선택지정’의 의미는 ‘주어 위치에 올 수 있다고 예상되는 여러 개체 또는 대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필영, 1982; 김선희, 1983)’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더불어 고석주(2002, 2004)에서는 다른 대상이 있음을 함축하는 ‘먼저’, ‘제일’, ‘가장’ 등이 있는 경우를 ‘이/가’의 ‘선택지정’ 사용 제약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1.2. 지시적 신정보 및 도입 주제

‘이/가’의 화용·정보적 기능으로서 흔히 ‘도입 주제’ 또는 ‘신정보’ 기능이 논의되어 왔다. ‘도입 주제’는 화용·정보 구조적 관점에서 쓰는 용어, 흔히 ‘신정보’란 용어로도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II장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정보’란 용어만 사용할 때, 많은 혼란이 초래된다. 따라서 본고는 보다 정교하게 이를 나누어 분류하고자 한다. 즉

사 ‘이/가’의 의미를 ‘지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아무’는 주어가 아닌 관형사일 때 “철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와 같은 문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지정’은 단순한 지정이 아닌 ‘여러 지시체들 중의 하나’에 대한 지정, 즉 ‘선택지정’임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일성에 관하여 ‘말화 맥락에서 예상 가능한 개체가 하나뿐’일 경우에는 ‘이/가’를 쓸 수 없다(“철수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개*가/는 바보야.”). 왜냐하면 말화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개체가 유일하다는 것은 ‘예상될 수 있는 개체가 여럿이다’와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고석주, 2002:225-236).

8) 이 외에도 남기심(1972, 1991), 임홍빈(1972), 신창순(1975)에서도 조사 ‘이/가’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 논의들은 ‘이/가’가 기타 보조사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는 점, ‘이/가’의 실현 유무에 따른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각각 ‘배타적 지칭’, ‘배타적 대립’, ‘지정서술 및 선택지정’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Gundel & Fretheim(2004)에서 제시한 ‘지시적 주어집성(referential givenness)’과 ‘관계적 주어집성(relational givenness)’의 개념을 수용하고자 한다. 즉, ‘신정보’는 위 두 개의 주어집성에 따라 ‘지시적 신정보’일 수도 있고 ‘관계적 신정보’일 수도 있다.

‘지시적 신정보’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 전에 우선 ‘지시적 주어집성’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시적 주어집성’은 그 지시체가 청자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인지적 위계를 가지는지에 따라 이미 활성화(activate)된 정보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정보로 나눌 수 있다(최윤지, 2016). 청자의 머릿속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발신자의 전달로써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정보인 경우, 그 정보는 신정보 또는 지시적 신정보라고 부른다. 반면, 청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활성화(activate)되어 있는 정보는 구정보⁹⁾ 또는 지시적 구정보이다(박진호, 2015: 383-384). 이때 다시 강조해야 되는 것은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의 구분 기준은 그 정보가 청자에게 기억되느냐가 아닌 의식되어 있느냐이다(Halliday, 1967; 윤재원, 1988:56). 즉 수신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텍스트나 맥락을 통해 회복 불가능하거나, 앞서 언급이 되지 않거나, 정보성이 높은 정보인 경우, 그 정보는 신정보 또는 보다 정교롭게 ‘지시적 신정보’라고 부른다.

한편, Prince(1992)는 담화에서 나타난 어떤 지시체가 가지는 정보 지위를 ‘담화’와 ‘청자’의 두 가지 기준에서 평가하였다. 담화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화자가 가정하기에 해당 지시체가 가리키는 실체의 표상이 현재 발화되고 있는 담화의 앞선 부분에 이미 주어져 있는지 아닌지와 관련된다. 따라서 ‘담화-신정보’라는 것은 담화의 맥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보를 뜻하며 선행 담화에 존재하지 않는 지시체이다. 다음으로 청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화자가 가정하기에 해당 지시체가 가리키는 실체의 표상이 청자의 머릿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지 아닌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청자-신정보’라는 것은 발화시에 청자의 마음속에 그 표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화자가 가정하는 정보를 뜻하며 그것이 청자의 영

9) ‘주어진(given) 정보’라고 하기도 한다(Chafe, 1994).

구기억(Kuno 1972) 혹은 장기기억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담화-신정보/구정보’ 지위는 청자의 현재 작업기억 혹은 단기기억과 관련되며 ‘청자-신정보/구정보’ 지위는 청자의 장기기억과 관련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최윤지, 2016:24).

(11) ㄱ. 나 그 옆에 아가씨가 한 명 서 있었고, 내가 서 있었고, 내 오른 쪽에 아줌마가 서 있었거든? //아니 인제~ 아줌마가 인제~ 쯤 약간 머뭇거리는 듯 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

ㄴ. 나 방학 때 돈 한::푼도 안 썼어. 밥두 내가 안 사 먹구, 간식도 내가 안 사먹, 사 줘 막 이러구. // 애들한테 동생들한테 막 - 누나 줘 사 줘.

(최윤지, 2016: 61)

최윤지(2016:61-62)에 따르면 (11ㄱ, ㄴ)은 모두 자연 대화 말뭉치에서 발췌한 발화이고. 우선 (11ㄱ)의 첫 번째 밑줄 친 ‘아줌마’가 가리키는 지시체는 이 발화 이전에 청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담화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시체, 즉 ‘청자-신정보’이다. 그러나 동일한 명사가 다음 문장에서 다시 출현하는데 이때의 ‘아줌마’는 이미 이전 담화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자-구정보’이자 ‘담화-구정보’가 된다. (11ㄴ)은 대학의 같은 학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로, ‘애들’과 ‘동생들’이 가리키는 지시체는 화·청자의 학과 후배들을 가리키며 이는 화·청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지만 현재 담화에는 처음 나타난 ‘담화-신정보’이며 ‘청자-구정보’이다.

본고에서 정의한 ‘지시적 신정보’는 ‘담화-신정보’에 해당한다. ‘청자-신정보’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 학습자들이 ‘신정보·구정보’란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를 감안하여, 그렇다면 학습자들은 더 직관적인 ‘담화-신정보’로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두 번째, 만약 후자로 정의한다면 해당 지시체가 화·청자의 심층 표상이 어떠한지, 담화에 나타난 요소에 대하여 그것의 주어짐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다(최윤지, 2016:29).

즉 이것은 학습자의 인지적 표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같은 맥락으로 ‘청자-신정보, 청자-구정보’가 적용한 ‘장기 기억’ 혹은 그의 상대 개념인 ‘단기 기억’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전자는 영구적인 기억을, 후자는 현재 발화의 순간에 의식되어 활성화되는 인지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엄밀히 어떠한 뜻을 지니는지 상세히 제시한 경우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의 범주를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다(최윤지, 2016:24). 따라서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본고의 ‘지시적 신정보’는 선행 맥락에서 나타난 적 없는 지시체로 정의 하겠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2) 가. 방금 누가 들어왔어?

나. 철수가 들어왔어.

다. 철수가.

위 (12)를 보면 뒤에 ‘이/가’가 쓰인 ‘철수’는 예측할 수 없는 신정보이자 담화의 초점이다. 이때 ‘은/는’이 쓰이거나 조사를 생략하면 문맥이 어색해진다.

다시 말하자면, 본고에서 사용할 ‘지시적 신정보’는 화·청자의 머릿속이나 담화 범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한 지시체이다(전영철, 2009:223). 그러므로 모든 실체가 그의 ‘인지적 지위(cognitive statuses)’를 반드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관계적 신정보’는 흔히 ‘초점’으로 여겨 한 문장이 상보적인 두 부분인 X와 Y로 분할될 때, X는 그 문장이 서술하고 있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Y는 X에 대하여 기술되는 것이다. 이때 Y는 관계적 신정보이자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전영철, 2006:174-176; 박진호, 2015:384).

하지만 본고는 ‘관계적 신정보’ 혹은 ‘초점’이란 용어 및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이/가’와 ‘은/는’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 기능을 설정하고자 한다. 즉 ‘이/가’의 ‘선택지정’ 혹은 다음 절에서 논의될 ‘이/가’의 의미 기능인 ‘대조’이다. 이필영(1982:426-429)에 따르면 ‘선택지정’은 위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한 맥락에서 선택적 지시를 받은 지시체는 동시에 초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선희(1983:37)와 연재훈·박종원(2022:388)에서도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이 드러난 ‘의문사+이/가’ 지시항은 정보의 초점이 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이/가’ 지시항이 초점이 되며 전제성이 낮다고 한 바가 있었다.

‘관계적 신정보 및 초점’이란 개념을 연구 범위에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초점’이란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여 추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초점’에 해당되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인 ‘선택지정’과 ‘대조’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는 ‘정보 구조’를 다룬 내용을 찾기 힘들 정도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 구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제’, ‘초점’ 등 개념을 교수·학습을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보다 효율적이고 더 이해되기 쉬운 ‘선택지정’ 및 ‘대조’의 개념으로 ‘관계적 신정보 및 초점’의 개념을 대체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아래 <그림2>와 같이 ‘관계적 주어집성’이란 개념은 본고에서 수용되지 않는 대신 ‘선택지정’이란 개념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선택지정’은 ‘지시적 신정보’와 같이 나타내거나 ‘지시적 구정보’와 같이 나타내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그림2> 본고에서 설정한 틀과 관계적 주어집성 및 지시적 주어집성과의 관계(전영철, 2009: 224 참조¹⁰)

	선택지정
관계적 구정보	관계적 신정보
지시적 구정보	지시적 신정보

*회색 부분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

하지만 ‘지시적 신정보이자 관계적 신정보’이면서 상황 맥락에 따라 ‘선

10) 전영철(2009)의 그림을 참고하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기존의 표(회색 부분) 위에 대응되는 본고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의미 기능들을 덧붙였음(회색 부분)을 밝힌다.

택지정' 혹은 '대조'의 의미 기능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이때 '지시적 신정보'가 자연스럽게 '도입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도입 주제는 반드시 지시적 신정보이며(박진호, 2015:384) 담화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지시항 및 신정보를 끌어 들여 화자-청자의 공동의식의 영역을 만들어 주려고 할 때, '이/가'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지시체를 주제로 도입한다는 뜻이다(김선희, 1983)¹¹⁾. 같은 맥락으로 김지현(2007)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선행 명사구 주어집성¹²⁾에 따라 '무조사문', '이/가 구문', '은/는' 구문을 살펴본 결과, '이/가'가 사용된 지시적 신정보에서는 '도입 주제'와 '선택지정' 두 가지 의미 기능¹³⁾을 한다고 하였고, 전자는 조사 '이/가'를 생략해도 되지만, 후자의 '이/가'는 생략이 불가하며 이는 '이/가'의 주된 용법 때문이라고 하였다.

'도입 주제'에 대한 개념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황·맥락적으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새롭게 도입할 때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며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라고 화자가 인식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벌러러, 2017; 조진수, 2018:280).

우선 아래 (13)을 통해 '도입 주제'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자.

(13) 가. 우리 대학에 김 선생이 있는데,....

나. 아주 깊은 산속에 엄마곰, 애기곰이 살고 있었어

ㄷ. 날씨가,*는) 추워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ㄹ. 인사(가,*는) 늦었습니다. 김영수라고 합니다.

(김선희, 1983:39-40)

위 (13가)와 (13나)처럼 '김 선생'과 '엄마곰, 애기곰'에 '이/가'를 붙임으

11) 김선희(1983)에서 '담화의 출발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고의 '도입 주제'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서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 주제'로 통일했다.

12) 김지현(2007)에서 '정보량'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고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집성'으로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

13) 김지현(2007)에서 '논리적 연결'과 '강조'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념은 각각 본고에서 설정한 '도입 주제'과 '선택지정'과 동일하다.

로써 해당 지시항을 도입한다. 김선희(1983)에 따르면 담화를 시작할 때, ‘이/가’를 사용함으로써 도입하고자 하는 지시항을 끌어들이며 화자-청자의 공동의식의 영역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 다음으로 (13ㄷ)과 (13ㄹ)에서 볼 수 있듯이 ‘날씨’와 ‘인사’도 담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 예시들을 통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사말이 담화의 출발점이 되는 보조정보로서 중심 화제와의 연결 역할을 해줌을 알 수 있다. 이때 ‘날씨는’, ‘인사는’과 같이 ‘은/는’이 쓰이면 뒤에 이어지는 담화에 다른 내용을 함축하고 있음을 가정하게 된다(김선희, 1983:40).

‘이/가’의 이러한 ‘도입 주제’ 의미 기능은 담화의 시작 부분뿐만 아니라 아래 (14)처럼 주제를 전환하거나(김선희, 1983; 최규수, 1999) 아래 (15)처럼 상당 기간 전에 나왔던 지시체를 다시 ‘주제’로 복귀시킬 때, 이로 인해 생긴 청자의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화자가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주제가 바뀌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조사의 선택도 이와 관련된다(이인영, 1996:84).

(14) 가. 옛날에 아주 예쁜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나. 공주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서 첫째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다. 산속에 사는 도깨비가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

라. 도깨비는 탐이 나서 공주를 훔쳐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마. 도깨비는 대궐 지붕으로 숨어 들었다.

바. 공주는 궁궐 뜰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사. 도깨비는 지붕 위에 엎드려 밤이 되길 기다렸다.

(최규수, 1999:127)

(15) 가. (전략) 팔지 말고 기다려요.

나. 승용차 안에서 한 사나이가 말했다.

다. (중략)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 버렸다.

라.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 이만 원에 사는 것을 이십 오만

원씩 주고 모두 사버렸다.

마. 그날 밤에도 영희는 팬지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바. 영희는 팬지꽃 두 송이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사. 그리고, 꿈작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아.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유현경 외, 2007에서 발췌)

위 (14)를 보면, 담화의 시작인 (14가)에서는 ‘공주님’이란 주제를 새로 도입하며 ‘이/가’를 사용했고, 그다음 ‘공주님’을 중심 주제로 되풀이하다가 (14다)에서 ‘도깨비’ 뒤 ‘이/가’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인물을 다시 등장시키며 중심 주제가 도깨비로 바뀌었다. (15)를 보면 (15나)에서 사나이란 인물에 ‘이/가’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주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다음에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다가, 다시 사나이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중심 주제’ 혹은 ‘구정보’의 기능을 하는 ‘은/는’ 대신 ‘이/가’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지시체 또는 주제에 대한 기억을 다시 환기시킨다.

이상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자면, ‘선행 담화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지시체’는 ‘지시적 신정보’에 해당되고, 아울러 ‘지시적 신정보’에 해당된 지시체는 발화 맥락에 의해 ‘선택지정’ 또는 ‘대조’의 의미 기능을 하지 않을 때, 그 지시체 뒤에 붙인 ‘이/가’는 ‘도입 주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영철(2009)에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3> 본고에서 설정한 틀과 관계적 주어집성 및 지시적 주어집성과의 관계(전영철, 2009: 224 참조)

	도입 주제('선택지정' 주어지지 않을 때)
	선택지정
관계적 구정보	관계적 신정보
지시적 구정보	지시적 신정보

*회색 부분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

1.2. '은/는'의 의미 기능

1.2.1. 대조

'은/는'에 일반적으로 '주제'와 '대조'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에 관하여, '대조'는 결합 조사와 상관없이 단순히 문맥에 의해 드러난다는 입장도 있고(양인석, 1973), '은/는'에 의해 드러난다는 입장(홍사만, 2002)도 있다. 우선 전자에 관하여 양인석(1973:88)은 아래의 예시를 들면서 (16가)~(16라)가 모두 성립된다는 것으로 보아 '은/는'만이 대조의 의미 기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홍사만(2002: 179-181)에서 양인석(1973:88)에서 든 예시를 일일이 반박하여 결국 '대조'는 '은/는'에 의해 실현된다고 지적하였다.

- (16) 가. 수진은 아들을 낳았고, 미래는 딸을 낳았다.
 나. 수진도 아들을 낳았고, 미래도 딸을 낳았다.
 다. 수진만 아들을 낳았고, 미래는 딸을 낳았다.
 라. 수진이 아들을 낳았고, 미래가 딸을 낳았다.

홍사만(2002:179-181)에 따르면 (16가)에서의 '은/는'은 '수진'과 '미래'를 구분을 지어 각각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대조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기에 '대조'가 맞다. 하지만 (16나)에서 '도~도'의 조사 사용은 결국에는 아들/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대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하였고, (16다)

나: 철수는 여기 있습니다.

다: *철수가 여기 있습니다.

(임흥빈, 2007: 331)

위 (18)을 보면 (18나)와 (18다) 중에, (18나)만 적절하다. 따라서 문두의 ‘은/는’이 ‘대조’의 의미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와 같은 예시의 해명이 불가능해진다.

‘주제’와 ‘대조’에 관한 논쟁 중 또 한 가지는 과연 둘 중 어느 것이 ‘은/는’의 기본적 의미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주제와 대조의 기능은 서로 독립적 개념인 것이 논증되면서(전영철, 2006) 둘 중 무엇이 더 근본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해졌다. 즉, 주제나 초점이나 모두 대조의 의미 기능이 첨가될 수 있으며 대조는 정보 구조의 관점에서 주제와 초점의 기능과 구별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조가 덧붙여진 주제와 초점은 모두 ‘은/는’에 의해 실현된다(전영철, 2006:172).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19) 가: 애들 뭐 해?

나: **큰 애**는 자요.

(20) 가: 경기 결과가 어떨 것 같니?

나: **은메달**은 확실해요.

(전영철, 2006: 184)

(19가)에 대한 물음에 (19나)는 모든 자녀 각각이 화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큰 애’만 선택하여 대답하였다. 이 상황에서 볼 때 ‘큰 애’에 대해 잔다는 신정보가 서술되면서 ‘주제-초점’의 관계도 성립되고 여기서 큰 애는 다른 애들과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만약 (19가)의 질문이 ‘큰 애는 뭐해?’이었다면 ‘큰 애’ 외에는 잠재적인 화제가 없어서 대조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나 여전히 동일한 ‘주제-초점’의 관계는 성립한다. (20)의 경우, (20나)에 형성되는 가능한 지시항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은메달을 선택함으로써 금메달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 동메달은 확실한 것으로 대조적 정보를 전달한다. 여기서의 ‘은메달’은 대조를 드러내면서 주제에 대한 신정보로서 ‘초점’의 정보 구조적 지위도 가진다 (전영철, 2006: 178-184). 이를 본고에서 설정한 틀에 적용시키자면, (19)의 경우 ‘큰 애’는 ‘지시적 구정보’이면서 ‘대조’의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20)의 경우 ‘은메달’은 ‘지시적 신정보’이면서 ‘대조’의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에 논의된 부분들과 합쳐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4>와 같다.

<그림4> 본고에서 설정한 틀과 관계적 주어집성 및 지시적 주어집성과의 관계(전영철, 2009: 224 참조)

도입 주제(‘선택지정’ 주어지지 않을 때)	
대조	선택지정
관계적 구정보	관계적 신정보
지시적 구정보	지시적 신정보

*회색 및 사선 부분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

따라서 주제는 지시적 구정보에 국한되는 제약이 있지만 대조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는(남기심, 1972:129; 홍사만, 2002:178)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조와 선택지정의 차이에 관하여, 김선희(1983:35)에 따르면 ‘대조’는 가능한 집합 속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대립을 이루는 두 항목이 서로 상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임홍빈(2007:494-495)에 따르면 ‘대조’는 ‘은/는’ 주제가 동일 위치에 따른 자매항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에 반하여, ‘선택지정’¹⁵⁾은 ‘이/가’ 주제 위치에 따른 자매항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다고 한다.

15) 임홍빈(2007)에서 ‘베타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본고의 ‘선택지정’과 같은 개념이므로 서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택지정’으로 적는다.

1.2.2. 지시적 구정보 및 중심 주제

‘은/는’의 ‘중심 주제’와 ‘지시적 구정보’의 의미 기능은 ‘이/가’의 ‘도입 주제’와 ‘지시적 신정보’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홍사만(2002:151)에서는 ‘중심 주제’와 ‘지시적 구정보’¹⁶⁾ 사이에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심 주제’는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문맥으로부터 독립적인 개념이며, ‘지시적 구정보’는 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문맥에 의존된 개념이라고 하였다.

우선 본고에서 설정하고 있는 ‘지시적 구정보’는 앞서 설명한 ‘지시적 신정보’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시적 주어짐성에 따른 ‘지시적 구정보’이다. 즉 청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활성화(activate)되어 있는 정보이다. 그리고 Prince(1992)에서 나눈 ‘담화’의 정보 지위와 ‘청자’의 정보 지위에 따르면 본고에서 설정하는 구정보는 담화 구정보이다. 즉 선행 담화에서 지시체의 표상이 주어져 있으며 현재 발화 시점에서 현저하게 두드러진 정보이다.

최윤지(2016:63-64)에 따르면 이러한 구정보는 흔히 담화에서 생략된 정보¹⁷⁾, 인칭대명사 ‘나, 우리, 너, 너희, 이분, 이쪽’ 등,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등이 있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21) ㄱ. 가: 아 그만해. 형이 간장게장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나: 나도 ~~○~~ 좋아해 나도! 나도 간장게장 환장한다구 나도!

ㄴ. 가: 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채영 씨 제 첫사랑하고 너무 닮았어요.

나: 그분이 참 미인이셨나 봐요.

ㄷ. 야, 그 시계 풀러. 그거 내 꺼야.

(최윤지, 2016:64-67)

16) 홍사만(2002)에서 ‘중심 주제’와 ‘지시적 구정보’를 각각 ‘주제’와 ‘구정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중심 주제’와 ‘지시적 구정보’와는 같은 의미임으로 서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후자로 적기로 하였다.

17) 화자는 청자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에만 생략형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최윤지, 2016:64).

위 (21ㄱ)에서 생략형으로 나타난 실체는 바로 앞 문장에서 환기된 ‘간장게장’이다. 이는 ‘담화-구정보’ 실체가 직전 문장에 나타난 것으로 높은 주어집성을 가진다. (21ㄴ)와 (12ㄷ)는 각각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의 예로, 직전 문장에서 주어진 지시체를 다시 언급하는 경우이다.

전영철(2009:224)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여 주며 (22나)에서 밑줄 친 ‘사과’는 모두 의문사에 대한 답이므로 초점이지만 (22가)에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적으로도 신정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반면에 (23)은 선행 담화, 즉 질문에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시적 구정보라고 하였다.

(22) 가: 어제 뭐 샀니?

나: 사과 샀어?

(23) 가: 어제 사과와 배 중에 뭐 샀니?

나: 사과 샀어.

(전영철, 2009:224; 2013:26)

이처럼 지시적 구정보는 해당 지시체가 청자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위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지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시적 구정보’에 해당된 지시체는 발화 맥락에 따라 ‘대조’의 의미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24) 가: 수빈이랑 슬기 이번에 모두 서울대 대학원에 붙었다며?

나: 수빈이만 붙었어. 슬기는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붙었어.

위 (2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슬기’는 이미 (24가)에서 한 번 언급된 지시체로서 ‘지시적 구정보’의 지시적 주어집성 정보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대학원에 붙은 사람(수빈)과 대조되는 것으로 ‘대조’의 의미 기능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시적 신정보’에 해당된 지시체가 발화 맥락에 의해 ‘선택지정’ 혹은 ‘대조’의 의미 기능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도입 주제’가 되듯이, ‘지시적 구정보’가 발화 맥락에 의해 ‘대조’의 의미 기능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중심 주제’의 의미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주제’는 한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를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정보적 관계에서 명제, 또는 초점에 대한 것이다(최윤지, 2016:148). 최규수(1999;2006:47)에서는 조사 ‘이/가’와 ‘은/는’이 정보 구조와 담화 구성에서의 분포에서는 서로 ‘상보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가’를 도입주제어로, ‘은/는’을 중심주제어, 즉 “어떤 문장이 무엇에 관하여 말한다고 할 때 ‘무엇’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정의하고 이 둘을 묶어 주제어라는 하나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정보적 특성에 따라 도입주제어는 ‘알려진 또는 안 알려진, 중요한’ 요소, 중심주제어는 ‘알려진, 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홍사만(2002:175)에서도 주제는 ‘은/는’의 연결에 의해 문두에 나타나며 기지 요소, 즉 구정보에 관계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은/는’에 대한 논의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조사 ‘이/가’와의 비교를 통해 의미를 기술할 수 있다고 한 바가 있다.

(25) 가: 철수가 어디에 있어요?

나: 철수는/그는/∅ 학교에 갔어요.

(26) 가: 누가 학교에 갔어요?

나: 철수가 학교에 갔어요.

(25나)와 (26나)를 비교해 보면 주어 자리 뒤에 나타난 조사만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문장의 의미 차이는 바로 이 조사 차이로 인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25나)의 ‘철수’는 지시적 구정보이자 중심 주제의 의미 기능을 띠고 있으며 ‘은/는’을 취하고, (26나)의 ‘철수’는 지시적 신정보이자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을 띠고 있으며 ‘이/가’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담화 지시체의 지시적 주어집성의 정도와 의미·화용적 의미에 따라 형태표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남윤진(2005: 167)에 따르면 ‘은/는’의 일차적이고 중심적인 기능은 ‘언급 대상성의 부여’, 즉 ‘중심 주제’에 있다. 그러나 ‘중심 주제’가 발현 과정에서 의미·화용적인 환경에 의해 주제가 다른 대상과 ‘대조’되면 ‘대조 표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즉, 문맥상 다른 대상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거나, 다른 대상에 관심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화자가 한 대상에 언급을 조정시키게 되면 그 대상은 주제로서의 자격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인 ‘주제 표시’ 의미 기능을 갖는 ‘은/는’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조’의 의미 기능이 파생된다는 것이다. 본고도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같은 맥락으로 김지현(2007)에서도 ‘은/는’의 선행 명사구 지시적 신정보인지, 지시적 구정보인지에 따라 ‘은/는’의 사용을 살펴본 결과, ‘은/는’이 사용된 지시적 신정보에서는 ‘대조’의 의미 기능을 한다고 하였고, 지시적 구정보에서는 ‘중심 주제’, 또는 의미·화용적 상황에 따라 ‘대조’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후자 중에 ‘중심 주제’¹⁸⁾의 경우 조사 ‘은/는’을 생략해도 되지만, ‘대조’를 나타낼 때는 ‘은/는’은 생략이 불가하며 이는 ‘은/는’의 주된 용법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5>와 같다.

<그림5> 본고에서 설정한 틀과 관계적 주어집성 및 지시적 주어집성과의 관계(전영철, 2009: 224 참조)

중심 주제(‘대조’ 주어지지 않을 때)	도입 주제(‘선택지정’ 주어지지 않을 때)
대조	선택지정
관계적 구정보	관계적 신정보
지시적 구정보	지시적 신정보

*회색 및 사선 부분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

위 <그림5>를 보며 다시 정리하자면 본고에서 설정하는 ‘이/가’의 의

18) 김지현(2007)에서 ‘지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념은 본고에서 설정한 ‘도입 주제’와 동일하다. 서술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제’로 적는다.

미기능 중의 하나인 ‘선택지정’은 전영철(2009)에서 제시한 정보 구조 틀에 대응시켰을 때, 우선 관계적 주어집성에 있어 ‘선택지정’은 무조건 관계적 신정보이며, 지시적 주어집성에 있어서는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가 모두 가능하다. 다음, 본고에서 설정하는 ‘이/가’의 다른 의미 기능인 ‘도입 주제’는,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에 있어 모두 ‘신정보’, 즉 ‘관계적 신정보’와 ‘지시적 신정보’만 가능하다. 반대로 해석하자면, 해당 지시체가 ‘관계적 신정보’와 ‘지시적 신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맥락에 의해 ‘선택지정’이 드러나는 이상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이 우선적으로 의식되며, 조사도 ‘선택지정’에 의해 선택된다. 만약 맥락에서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때 해당 지시체는 자연스럽게 ‘도입 주제’의 의미 기능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설정하는 ‘은/는’의 의미 기능 중의 하나인 ‘대조’는, 관계적 주어집성으로 ‘관계적 신정보’와 ‘관계적 구정보’가 모두 가능하고 지시적 주어집성으로도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은/는’의 다른 의미 기능인 ‘중심 주제’는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에 있어 모두 ‘구정보’에 해당한다. 반대로 해석할 때, 어떤 지시체가 ‘관계적 구정보’와 ‘지시적 구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 맥락에 의해 ‘대조’의 의미 기능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중심 주제’의 의미 기능이 드러난다.

1.3. ‘이/가’와 ‘은/는’의 선택 층위

이상 논의한 ‘이/가’와 ‘은/는’의 ‘선택지정, 지시적 신정보 및 도입 주제’, ‘대조, 지시적 구정보 및 중심 주제’ 등 의미 기능들을 각각 하나의 단서(cue)로 설정하고자 한다. 단서(cue)란 언어의 특정한 형태를 통해 어떠한 기능을 의미하는지 결정하는 데에 이용하는 정보를 뜻한다 (Cooreman & Kilborn, 1991:209)¹⁹. 한국어에서 문장을 이해하거나 구성할 때 관여되는 조사들을 선택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서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곧 한국어 조사의 다면성과 다층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단서의 조합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서가 무엇인지,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조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을 통해 필요한 교육적 처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김현지, 2008:4-6).

한국어에서 중요한 단서의 하나인 조사 중(Muriel Saville-Troike, 2006/임병빈 역, 2008:101)에서도 특히 ‘이/가’와 ‘은/는’은 학습자들이 많이 어려워해 왔던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가’와 ‘은/는’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에 의해 발화된 어떤 문장에서 드러난 각 의미 기능, 즉 단서들이 서로 다른 조사, 즉 ‘이/가’와 ‘은/는’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윤재원(1989: 5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는’은 ‘주제’ 또는 ‘구정보’의 표지로 알려져 왔지만 지시적 구정보이면서 격조사 ‘이/가’를 취하는 현상이 아래 예시와 같이 빈번하게 보일 수 있다.

- (27) 가. 노루고기, 토끼고기, 산돼지 고기 중에서 어느 것이 맛있느냐?
나. 노루고기가 맛있지.

(윤재원, 1989: 56)

19) 단서 및 단서 경쟁 모형에 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윤재원(1989)은 위의 예시를 들면서, 선행 연구에서 ‘이/가’와 ‘은/는’의 ‘선택지정, 신정보’, ‘대조, 구정보’ 의미 기능을 같은 층위로 보고 분석하는 방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에 ‘신정보’와 ‘구정보’ 각각 ‘초점’과 ‘주제’로 대응시킨 것도 많은 논쟁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Gundel & Fretheim(2004)에서 제시된 지시적 주어집성과 관계적 주어집성이란 개념은 전영철(2006, 2009, 2013), 임동훈(2012), 박진호(2015), 최윤지(2016), 조진수(2018) 등의 학자들로부터 수용되면서 보다 정교하게 정의되고 더 다양한 정보 구조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시적 및 관계적 주어집성을 모두 그대로 연구 범위로 수용하지 않고 지시적 주어집성에 해당하는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만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관계적 주어집성에 해당하는 관계적 신정보(초점), 관계적 구정보(주제)를 제외하였다. ‘주제’와 ‘초점’을 ‘이/가’, ‘은/는’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아직까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를 각각 ‘이/가’와 ‘은/는’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근거는 선행 연구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박진호, 2015). 더불어 본고에서 설정한 ‘선택지정’과 ‘대조’ 의미 기능을 정보 구조적 개념과 대조시키자면 ‘선택지정’은 항상 ‘초점’에 해당되고 ‘대조’는 ‘지시적 주어집성’에 따라 ‘주제’일 수도 있고, ‘초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도표로 나타내자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본고에서 설정한 의미 기능이 대응되는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

선택지정 (이/가)	지시적 신정보 (이/가)	관계적 신정보(초점)
	지시적 구정보 (은/는)	관계적 신정보(초점)
대조 (은/는)	지시적 신정보 (이/가)	관계적 신정보(초점)
	지시적 구정보 (은/는)	관계적 구정보(주제)

위 <표3>을 보면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이 주어질 때 해당된 지시체의 지시적 주어집성 지위는 ‘지시적 신정보’이든 ‘지시적 구정보’이든 모두 관계적 신정보, 즉 초점에 해당된다. 반면 ‘대조’의 의미 기능이 주어질 경우에는, 해당된 지시체가 ‘지시적 신정보’일 때는 ‘관계적 신정보 및 초점’, ‘지시적 구정보’일 때는 ‘관계적 구정보 및 주제’에 해당된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28) 가. 조금 전에 누가 들어왔어요?

나. 현주가/*현주는 들어왔어요.

나. 가. 사슴벌레랑 장수풍뎡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나. 사슴벌레가/*사슴벌레는 이기지요!

나. 가. 너 두유 마실래?

나. 아니. 대신 *우유가/우유는 없어?

나. 가. 수빈이랑 슬기 이번에 모두 서울대 대학원에 붙었다며?

나. 수빈이만 붙었어. *슬기가/슬기는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붙었어.

(28가나)와 (28나나)를 보면 ‘현주’와 ‘사슴벌레’는 모두 질문에 요구되는 정보이며 ‘관계적 신정보’ ‘초점’ 관계적 정보 구조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가능한 후보자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 지시체이기 때문에, 이때 뒤에 붙인 ‘이/가’는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차이점은, ‘현주’는 선행 맥락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지시적 신정보이고, ‘사슴벌레’는 선행 맥락에서 이미 나타난 적이 있는 지시적 구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선택지정’에 대한 고려가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선택하는데 더 우선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28다나)와 (28르나)를 보면 ‘우유’와 ‘슬기’ 두 지시체가 맥락에 따라 각각 관계적 신정보와 관계적 구정보이다. 그리고 지시적 주어집성

에 따라 (28ㄷ나)의 ‘우유’는 지시적 신정보, (28ㄹ나)의 ‘슬기’는 지시적 구정보인 차이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지시체가 각각 ‘두유’와 ‘수빈’과 대조되며 모두 ‘은/는’을 사용해 ‘대조’의 의미 기능을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이/가’와 ‘은/는’을 선택하는 데에 ‘대조’의 의미 기능이 지시적 주어짐정보보다 우선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황 맥락에서 ‘선택지정’과 ‘대조’의 의미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29) ㄱ. 가: 은빈 씨, 괜찮아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나: 어제 어떤 사람이/*어떤 사람은 밤새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요.

ㄴ. 가: 예진 씨, 취미는 뭐예요?

나: *제 취미가/제 취미는 한국어 공부예요.

(29ㄱ나)와 (29ㄴ나)에서의 ‘어떤 사람’과 ‘제 취미’는 각각 지시적으로 신정보와 구정보에 해당하며 관계적 주어짐성으로 신정보와 구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황 맥락에 의해 ‘선택지정’과 ‘대조’의 의미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여기서의 ‘이/가’와 ‘은/는’은 단순히 주제를 도입하는 ‘도입 주제’와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 ‘중심 주제’의 의미 기능을 하고 있다. ‘도입 주제’와 ‘중심 주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각각 무조건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여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본고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틀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본고에서 설정한 의미 기능이 대응되는 조사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조합				적절한 조사 사용	
1.	선택지정 (이/가)	+	지시적 신정보 (이/가)	이/가	
2.			지시적 구정보 (은/는)	이/가	
3.	대조 (은/는)		지시적 신정보 (이/가)	은/는	
4.			지시적 구정보 (은/는)	은/는	
5.	도입 주제 (이/가)		•	지시적 신정보 (이/가)	이/가
6.	중심 주제 (은/는)			지시적 구정보 (은/는)	은/는

위 <표4>를 보면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으로 선택지정, 대조, 도입 주제, 중심 주제, 지시적 신정보, 지시적 구정보 총 6개의 종류의 의미 기능 단서를 정리하였다. 이중 ‘도입 주제’와 ‘지시적 신정보’, 그리고 ‘중심 주제’와 ‘지시적 구정보’ 간에 서로 독립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닌, ‘선택지정’과 ‘대조’의 의미 기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가 자연스럽게 ‘도입 주제’와 ‘중심 주제’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므로 부호 ‘+’가 아닌 ‘•’을 사용하여 6개의 단서 조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표4>의 맨 오른쪽은 각 단서 조합에 적합한 조사 사용을 나타낸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30) 가: 식혜랑 버블티 중에 뭐가 대만 음식이에요?

나: 버블티가 대만 음식이에요.

(30나)에서 ‘버블티’는 선행 담화에서 이미 언급된 지시적 구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은/는’이 아닌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이/가’를 사용해야 적합하다. 또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자.

(31) (교실 안에 상호와 영호가 있고, 꽃병이 깨져 있음)

선생님: 상호가 겠니? 영호가 겠니?

상호: 영호가 그랬어요. (영호: 구정보/필수적 정보; 그랬어요: 구정보/잉여적 정보)

(윤재원, 1988:59)

윤재원(1988:59)에서 위의 예시를 들면서 필수적 정보가 항상 신정보여야 한다는 제약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구정보도 필수적 정보가 되는 담화 장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강세를 수반한 부분이 항상 신정보인 것 또한 아니라고 한다.

유현경·양수향·안예리(2007)에서는 한영 병렬말뭉치의 분석 결과, 영어 관사 선택에서는 화용적 층위 중 정보량이 절대적인 요인이지만, 한국어 조사 선택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들이 의미, 통사, 화용 세 가지 층위의 기준의 순서대로 위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미경(2017)에서도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신정보와 구정보 구분에 따라 특정한 조사를 선택하는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앞선 논의를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조사와 각 의미 기능 측면의 다(多) 대(對) 다(多) 관계가 학습자들에게 이 문법 항목의 습득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단문에서의 주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을 서로 조합할 때의 습득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2. 단서 경쟁 모형 이론

2.1. 단서 경쟁 모형의 정의

지금까지 제2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는 보편문법이나 대조 분석 등 언어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한 시도들은 학습자의 문법적 혹은 통사적 구조의 습득과 발달에만 초점을 두고, 학습자의 언어 사용 측면이나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게 하지 못하였다. 즉, 언어의 형식과 기능을 분리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2언어 혹은 외국어의 습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하여, 심리언어학적인 접근법, 예컨대 감시자 모형(Monitor Model)을 비롯한 접근법은 언어의 형식과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학습자의 실제 언어 습득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의 메모리나 파싱(parsing) 등 심리언어학적인 기제를 통하여 제2언어 및 외국어 습득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Gass, Susan M., 1994).

Bates & MacWhinney(1982)에서 제시된 단서 경쟁 모형(Competition Model)은 그 시도 중의 하나이다. Bates와 MacWhinney(1982)에 따르면 사람들이 언어를 처리, 또는 습득할 때 몇 가지의 보편적인 단서(cue)가 존재한다고 한다. 단서(cue)란 언어의 특정한 형태는 어떠한 기능을 의미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를 뜻한다(Cooreman & Kilborn, 1991:209). 이것은 곧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 언어로 구성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요소로도 설명된다. 언어에 따라 형태적, 의미·화용적, 정보 구조적 단서 등 다양한 종류의 단서들이 존재하며, 단서들이 서로 상이한 의미 기능을 뜻할 경우 이 단서들은 서로 간의 경쟁 관계, 즉 단서 갈등(cue conflict)이 생성된다(황종배, 2004:77).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32) The cows eat the grass.

(Bates & MacWhinney, 1982)

위 (32)에서는 우선 영어의 ‘SVO’ 어순 단서(word order cue)에 의하면, 주어는 ‘the cows’, 목적어는 ‘the grass’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어의 어휘-의미 단서(Semantic/Animacy cue)에 의하면,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주체는 ‘the grass’보다 ‘the cows’가 더 자연스러우므로 ‘the cows’가 주어, ‘the grass’가 목적어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주어가

단수이나 복수이나에 따라 동사의 어미가 활용되는 영어의 형태적 단서 (Morphology cue)에 의하면, ‘eats’가 아닌 복수형의 ‘eat’이므로 ‘the cows’가 자연스럽게 주어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모든 단서가 모두 ‘the cows’가 주어임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모어 화자 혹은 언어 학습자들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을 비교적 덜 겪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단서들이 서로 상이한 의미 기능을 뜻하면 이 단서들은 서로 간의 경쟁 관계, 즉 단서 갈등(cue conflict)이 생성된다(황중배, 2004:77).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33) 준호에게 개가 물렸다.

위 (33)은 한국어의 피동문이다. 피동문의 전형적인 어순은 문장 의미역을 기준으로 하면 ‘피동작주-동작주-동사’이고, 통사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주어-부사어-서술어’이다. 그러나 위 (33)은 어순이 재배치되어, ‘동작주-피동작주-동사’, ‘부사어-주어-서술어’가 된 문장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의 조사 단서에 의하면 주격조사 ‘이/가’를 붙인 ‘개’는 피동작주이고, 조사 ‘에게’를 붙인 ‘준호’는 동작주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건 개연성 단서’²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더 많아 (33)은 개연성이 낮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 단서 중에서 ‘개’를 주어로 해석하게 유도하는 단서도 있고, ‘준호’를 주어로 해석하게 유도하는 단서도 있으므로 단서들 사이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단서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각 언어 특성에 따라 가장 강한 힘을 가지는 단서에 의해 문장의 해석이 이루어진다.

원어민 화자의 경우에 문장의 이해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는 다양한 단서들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제2언어 학습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학습자에게는 각 단서마다 일정한 정도의 강도(cue strength)가 있다(Bates & MacWhinney, 1982). 따라서 이

20) ‘사건 개연성’이란 문장에 주어진 명사구와 동사의 의미역에 따른 속성으로부터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의 정도를 의미한다(김민희, 2021:59).

러한 몇 개의 단서가 서로 경쟁²¹⁾을 하여, 가장 강력한 단서가 그 언어의 이해와 발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곧 Bates와 MacWhinney(1982)가 제시한 경쟁 모형(Competition Model)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은 곧 각 단서의 강도를 습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MacWhinney & Bates, 1989).

2.2. 단서 경쟁 모형의 기본 가정

기능주의의 관점에 의하면,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능(function)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form)가 발전되며 언어의 형태는 통사적 격 역할(syntactic case role), 의미적 격 역할(semantic case role), 주제(topic), 신정보, 구정보 등 의사소통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되고, 제약되고, 습득되어 사용된다(MacWhinney, Bates, Kliegl, 1984:128). 언어의 형태와 의사소통 기능을 사상(mapping), 즉 언어 형태(form)와 기능(function)을 연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화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를 끌어낼 수 있고, 청자는 상대가 의도한 것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권영신, 1997:8). 이렇게 언어의 형태와 기능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경쟁 모형의 핵심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余樂, 2016:5). MacWhinney, Bates, Kliegl(1984)에서는 경쟁 모형을 다음 네 가지의 기본 가정으로 설정하고 있다.

(1) 직접 사상²²⁾(direct mapping)

경쟁 모형에서는 발신자가 표현하려는 모든 의미와 의도로 이루어진 ‘기능’과 주어진 의미와 의도에 의해 구성되는 ‘형태’ 간의 사상이 직접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가 문법 체계를 분석할 때 의미 요소와 통사 요소를 동시에 통합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21) 언어 입력에 있어 여러 단서가 동시에 주어지기도 하는데 언어 처리 과정은 다양한 단서들 중 ‘경쟁’과 관련이 있다(Muriel Saville-Troike, 2006; 임병빈 역, 2008:101).

22) 사상(mapping)란 언어 형태(form)와 기능(function)의 연결을 말한다.

(2) 사상 관계의 다양성(multiplicity of form-function mappings)

형태와 기능의 사상은 직접적이지만, '1:1'의 관계는 드물고 대부분은 '1:다수', '다수:1', 혹은 '다수:다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러한 사상 관계에서 어떠한 형태가 어떠한 기능을 나타내는가를 파악해야 한다(권영신, 1997:9).

(3) 연합과 연합의 붕괴(Coalitions and the breakdown of coalitions)

형식과 기능 간의 사상은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서로 협동하는 연합(coalition) 경향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예컨대, 영어에서 주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문장의 첫 자리, 주어와 서술어의 일치성, 격표지, 생물성 자질 등이 있다. 이들이 힘을 합쳐 주어진 명사를 주어로 해석하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서들은 항상 협동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래 (34)의 예시에서 문장의 첫 자리는, 행동주인 'John'이 아닌, 피동주인 'the ball'이다. 일반적으로 (35)와 같이 생물성 자질과 어순이 협동함으로 주어가 'John'임을 표시하지만 (34)에서는 'the ball'을 주체화했기 때문에, 주어를 표시하는 데에 있어 주어 표시와 어순 형태의 연합이 무너졌다. 이와 같이 기능과 형태의 사상은 항상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되기도 한다.

(34) The ball is being hit by John.

(35) John is hitting the ball.

(4) 경쟁(competition)

경쟁 모형의 관점에서 문법 규칙은 문장이 옳고 그름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규칙이나 전략이다. 따라서 문장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칙, 또는 단서들이 서로 협력해서 의미를 도출한다(박승휴, 2014:6). 하지만 가정(3)에서 언급하듯이 형태들의 연합이 붕괴되면 경쟁 관계가 발생한다. 단서 간 경쟁을 해결하고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서마다 어느 정도의 신뢰도

를 제공하는지 알아야 한다. 경쟁 상태에서 문장의 의미는 영향력이 큰 단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권영신, 1997:10).

2.3. 단서 습득과 언어 습득의 관계

단서 사용에 관한 이론적 근거는 Bates & MacWhinney(1987)의 단서 경쟁 모형(competition model)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언어 습득에 있어 경쟁 모형의 기본 가정은 기능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설정되며 기능주의 관점에서 모든 언어는 의사소통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형태’와 ‘기능’ 두 가지 층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언어의 형태 즉, 단서로는 강세, 어조, 굴절, 의미자질 등이 있는데 이 단서들에 의해 통사적/의미적 격 역할, 주제, 신정보, 구정보 등 의사소통의 기능이 표시된다(McDonald 1987:380). 따라서 단서 경쟁 모형은 언어 습득을 언어 학습자들이 입력에 내재된 단서들의 상대적인 강도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경쟁 모형의 언어 습득은 단서들의 타당도 체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언어 학습자들의 언어 처리 기제 및 중간 언어 체계를 탐구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박승휴, 2016).

단서 경쟁 모형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 제2언어 또는 외국어의 습득은 목표어의 단서와 학습자 모어의 단서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목표어와 모어의 여러 가지 단서들과 그것들이 갖고 있는 강도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느냐에 따라 제2언어 습득 또는 학습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쟁 모형은 제2언어 또는 외국어의 습득을 그 언어들이 지니고 있는 단서의 습득으로 보며, 학습자들이 저지르는 오류나 겪게 되는 어려움은 외국어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모어의 단서나 단서 강도를 그대로 외국어 학습에 전이시킴으로써 발생한다고 주장한다(황중배, 2004:79).

단서 경쟁 모형에 입각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제2언어 및 외국어 학습자들은 초기 단계에는 자신들의 모어가 지니고 있는 단서와 단서 강도에 의존하며, 자신들의 모어와 목표어 사이에서 단서의

유형과 단서 강도에 있어 갈등을 겪을 때에는 보편적인 원칙인 의미적 및 화용적인 단서를 적용시키고, 그 후 외국어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목표어의 단서와 강도를 습득하게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Gass, 1987; Harrington, 1987; Sasaki, 1991, 1994; 황종배, 2004). 또한 Muriel Saville-Troike(2006; 임병빈 역, 2008:103)에 의하면 제2언어 초기 습득 단계에서 제1언어, 제2언어 체계가 다른 경우, 제1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서가 제2언어로 옮겨가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학습자들은 제2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제1언어의 단서들을 적극적으로 버리고, 어떤 학습자들은 두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고 접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2언어의 습득은 결국 모어의 단서 체계를 벗어나, 목표어의 단서 타당도를 파악함으로써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McDonald, 1987:380).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목표 항목인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은 중국어에 없는 문법 항목이므로 언어 간의 단서 전이가 아닌 언어 내에서의 단서 습득을 탐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여, 모어 단서 유형에서 벗어나, 목표어의 단서 습득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McDonald (1989:31)에서는 단서 습득을 문장 해석에서 형식 대 기능의 사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사상은 두 종류의 단서 타당도에 의해 이뤄진다고 하였다. 첫 번째 단서 타당도는 전반적인 단서 타당도(overall cue validity)로, 빈번하게 등장하고 옳은 해석을 제시하는 정도를 말한다. 두 번째 단서 타당도는 갈등 타당도(conflict validity)로 단서들이 상충하는 문장, 즉 갈등 문장에서 주어진 각 단서들이 문장 이해하는 데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전반적인 단서 타당도에 의해 언어를 습득하다가, 숙달도가 향상됨에 따라 갈등 타당도까지 습득하게 되어 갈등 타당도가 가장 높은 단서에 의존하게 된다(박승후, 2016:10). 이처럼 단서 경쟁 모형의 전반적인 타당도와 갈등 타당도라는 개념은 언어 습득을 단서들의 강도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습득의 양상, 즉 계속 변화해 나가는 제2언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의 변화 원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단계를 거쳐 변화

하는지에 관해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권영신, 1997:13).

Ⅲ. 연구 방법

1. 실험 도구 및 문항 개발

본 연구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의미 기능을 가진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단서 경쟁 모형(Competition Model)을 적용하여,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이/가’와 ‘은/는’ 습득 양상을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 각각의 의미 기능을 ‘선택지정, 도입 주제, 지시적 신정보’와 ‘대조,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로 나누어, 서로 조합하여 문항을 설정하였다. 즉, ①‘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②‘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③‘대조+지시적 신정보’, ④‘대조+지시적 구정보’, ⑤‘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⑥‘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총 6개의 조합을 도출하였다. 지시적 신정보와 구정보가 모든 단서 조합에 포함된 이유는 어떤 문장이든 그것이 발화되는 순간, 문장에 있는 모든 요소들은 그의 정보 구조적인 지위를 반드시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조합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정리

의미 기능 단서 종류		해당 조사
1.	선택지정	이/가
2.	대조	은/는
3.	도입 주제	이/가
4.	중심 주제	은/는
5.	지시적 신정보	이/가
6.	지시적 구정보	은/는

위 <표5>와 같이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는 각각 ‘선택지정, 도입 주제, 지시적 신정보’와 ‘대조,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 등 6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항목들을 다시 ‘단서 경쟁 관계가 일어나는 항목’ 2개와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 4개로 나누었다. 한 항목당 5개씩, 총 30개의 실험 문항을 만들었다. 이를 문항 예시와 같이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7>과 같다.

<표6>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 문항 수

‘이/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조합				적절한 조사	문항 수
1.	단일 주어 문	선택지정	지시적 신정보	이/가	5
2.			지시적 구정보	이/가	5
3.		대조	지시적 신정보	은/는	5
4.			지시적 구정보	은/는	5

5.		도입 주제	지시적 신정보	이/가	5
6.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	은/는	5
총					30

<표7>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 예시

의미 기능 단서 조합				문항 예시
1.	단일 주어 문 주어	선택지정	지시적 신정보	가 : 꽃 이쁘다. 누가 봤어요? 나 : 길에서 어떤 남자(가) 봤어요.
2.		선택지정	지시적 구정보	가 : 이번 발표 준호가 맡았어요, 재홍이가 맡았어요? 나 : 준호(가) 맡았어요.
3.		대조	지시적 신정보	가 : 너 두유 마실래? 나 : 아니. 두유 대신 우유(는) 없어?
4.		대조	지시적 구정보	가 : 수빈이랑 슬기 이번에 모두 서울대 대학원에 붙었다며? 나 : 수빈이만 붙었어. 슬기(는)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붙었어.
5.		도입 주제	지시적 신정보	가 : 어제 학교에서 축제를 했어요? 나 : 네,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완전 신났어요.
6.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	가 : 일반쓰레기통이 어디에 있어요? 나 : 일반쓰레기통(은) 저쪽에 있어요.

<표8> 경쟁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항목

‘이/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조합				적절한 조사
1.	단일 주어문	선택지정	지시적 신정보	이/가

2.	주어	대조	지시적 구정보	은/는
3.		도입 주제	지시적 신정보	이/가
4.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	은/는

<표9> 경쟁 관계가 일어나는 항목

‘이/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조합				적절한 조사
1.	단일 주어문 주어	선택지정 (이/가)	지시적 구정보 (은/는)	이/가
2.		대조 (은/는)	지시적 신정보 (이/가)	은/는

실험 문항의 형식 담화의 조사 부분에 빈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적절한 조사를 적어 넣는 빈칸 채우기 과제를 설계하였다. 선택지에는 ‘이/가’ 및 ‘은/는’이 제시되고, 응답 시에는 다른 맥락을 생각해볼 필요가 없이 각 빈칸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를 선택하게끔 안내를 하였다.

문항은 ‘가’와 ‘나’의 대화로 설계되어, ‘나’의 대답 중, 밑줄 친 빈칸의 조사 선택만을 분석하였다. ‘가’의 발화 중 나타난 ‘이/가/은/는’은 피험자가 조사를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가’에서 나타난 ‘이/가/은/는’은 빈칸으로 처리하되 통계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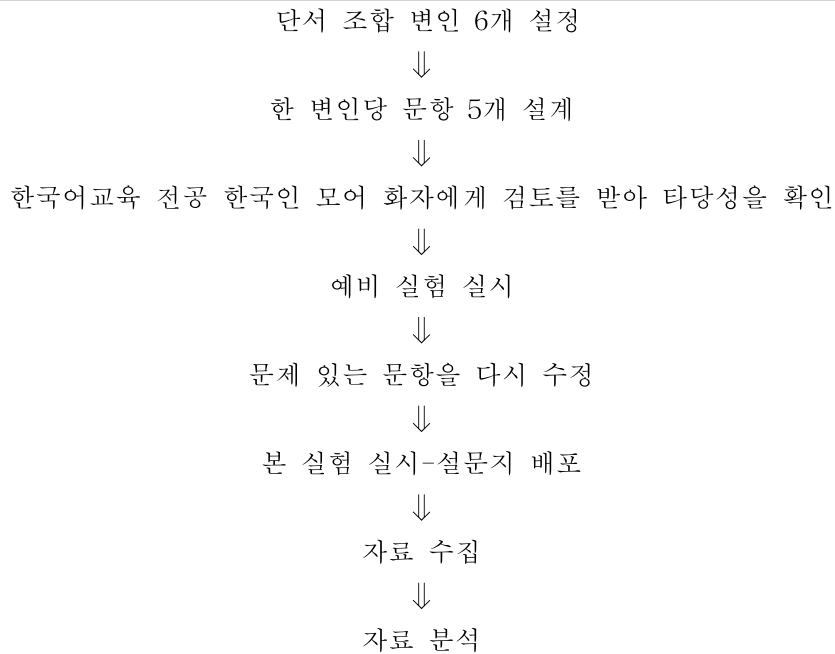
<표10> 빈칸 채우기 과제 문항 제시 예시

	실험 문항	선택 사항	
예시 1.	가: 세상에서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u>건강(㉡)</u> 제일 중요해요!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예시 2.	가: 케이크 맛있겠다. 누/누구(㉠) 찾았어요? 나: 길에서 <u>어떤 남자(㉡)</u> 찾았어요.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예시 3.	가: 일반쓰레기통(㉠) 어디에 있어요? 나: <u>일반쓰레기통(㉡)</u> 저쪽에 있어요.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2.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그림6>과 같은 연구 절차를 밟았다. 먼저 문항 개발과 실험 설계를 대비하여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및 그에 관한 한국어교육학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의미 기능 단서들을 조합에 따라 문항을 개발하였다. 그 다음 예비실험을 실시하였고 예비 실험을 실행한 결과로 실험의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새로운 문항으로 본 실험을 실행하여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EXCEL에 코딩한 뒤 SPSS를 이용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6> 연구 과정



2.1. 예비 실험

1) 예비 실험 참여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의미 기능 단서 조합에 따라 개발한 문항이 필자가 예상한 결과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전공자 3명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시험의 참여자는 중국어권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를 각각 12명씩 모집하였고, 참여자의 국적에는 대만, 홍콩, 중국이 포함되었다. 대조군인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은 13명으로 구성되었다.

2) 예비 실험 결과 분석

이상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 36명, 한국어 모어 화자 13명에게 빈칸 채우기 과제를 실시한 후, 각 단서 조합에서 각 집단 참여자들이 응답한

조사의 정답률과 선택률을 계산하여 IBM SPSS STATISTICS 26를 이용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단서 경쟁의 유무에 따른 초급, 중급, 고급 집단의 조사 선택 양상을 살펴본 결과, 중국어권 모든 집단은 모두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정답률이 단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은 항목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리고 단일 주어문임에도 불구하고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에 있어,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어권 학습자는 각 의미 기능 단서 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을 매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b. 모든 학습자 집단에서 조사 ‘은/는’에 비해 조사 ‘이/가’를 정확히 선택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중급 학습자의 경우, 단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항목 중에, ‘선택지정’ 혹은 ‘대조’ 단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시적 신/구정보’ 모두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선택지정’ 혹은 ‘대조’ 단서가 주어진 경우, ‘대조+지시적 구정보’는 훨씬 더 높은 정답률을 나타낸 반면,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는 훨씬 더 낮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즉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들에게는 ‘선택정보’ 혹은 ‘대조’ 단서가 조사의 선택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 c. ‘지시적 신정보’ 단서에 ‘선택지정’ 단서가 주어지면 정답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 d. 초급 학습자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지시적 구정보’ 단서에 ‘대조’ 단서가 주어진 경우에 정답률이 현저하게 높았다.
- e. ‘지시적 신정보’ 단서가 ‘선택지정’ 단서와 조합할 때와 ‘대조’ 단서와

조합할 때, 모든 집단에서 다른 선택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고급 학습자 집단에서는 ‘선택지정’ 단서보다 ‘대조’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시적 신정보’ 단서를 ‘지시적 구정보’ 단서로 대치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상 예비 실험을 실행한 결과로 유의미한 발견과 실행의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새로운 문항으로 본 실험을 실행하여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EXCEL에 코딩한 뒤 IBM SPSS STATISTICS 26를 이용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3) 문항 수정

예비 실험을 통해 일부 문항에서 문장 또는 문맥이 어색하다는 문항, 또는 모어 화자 응답의 일치성이 비교적 낮은 문항을 다음 <표14>와 같이 새로 설계하였다. 수정한 문항은 다시 한국어 교육 전공 모어 화자의 검토를 받았다.

<표11> 문항 수정 내역

수정 원인	문항 번호	수정 전 문항	수정 후 문항
문장 또는 문맥이 부자연스러움	8	가: 회 좋아요? 나: 아니요, 안 좋아요. 근데 육회() 좋아요	가: 지금 밖에 날씨 어때? 나: 먹구름 좀 있긴 해. 근데 비() 안 와.
	23	가: 맞다. 어제 <u>내 친구()</u> 한국에 왔어. 나: 친구 누구?	가: 어제 뭐 했어? 나: 나는 쉬었지. 너는 뭐 했어? 가: 어제 <u>내 대만 친구()</u> 한국에 왔어. 그래서 공항으로 마중 나갔어. 나: 대만 친구 누구?

	5	가: 어제 학교에 공연() 있었어요? 나: 네, <u>유명한 가수들()</u> 와서 완전 신났어요.	가: 어제 학교에서 축제를 했어요? 나: 네, <u>유명한 가수들()</u> 와서 완전 신났어요.
모어 화자 응답의 일치성 저하	2	가: 어제 학교 공연에 아이유() 왔다면서요? 나: 아이유 안 왔어요. <u>아이린()</u> 왔어요.	가: 너 주변 사람들() 백신 많이 맞았어? 나: 응응, 거의 다 맞았지. 아! 내 <u>동생()</u> 안 맞았어. 침 맞는 게 무서워서 안 맞겠대.
	6	가: 버블티() 대만 음식이에요? 나: 네, <u>버블티()</u> 대만 음식이에요.	가: 일반쓰레기통() 어디에 있어요? 나: <u>일반쓰레기통()</u> 저쪽에 있어요.
	4	가: 저 연예인 실물 봤어? 잘생겼지? 나: <u>얼굴()</u> 잘생겼지. 하지만 성격() 안 좋잖아.	가: 수빈이랑 슬기 이번에 모두 서울대 대학원에 붙었다며? 나: 수빈이만 붙었어. <u>슬기()</u>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붙었어.
	11	가: 이번 발표 준호() 진짜 잘했더라. 나: <u>준호()</u> 원래 발표 잘해.	가: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나: 나 요즘 남자친구() 생겨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가: 진짜? 어떻게 만났어? 나: 동아리에서 만났어. 가: 그래? 어떤 사람이야? 나: 음... <u>내 남자친구()</u> 엄청 자상한 사람이야.

2.2. 본 실험

2.2.1. 실험 대상

본 연구는 동일한 시점에 다양한 숙달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횡단적 조사로서, 연구 참여자는 중국어권 초급 학습자 60명, 중급 학습자 60명, 고급 학습자 60명, 모어 화자 60명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 지역 변인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는 다양한 중국어권 나라에서 모집하였다. 이상의 정보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2> 피험자 숙달도별 인원 수

숙달도	한국어능력시험		참가 인원(명)	합계
	성적			
초급	1급		20	60
	2급		40	
중급	3급		29	60
	4급		30	
고급	5급		30	60
	6급		30	
한국어 모어 화자	-		60	60
합계			240	

<표13> 피험자 국적별 인원 수

국적	참가 인원(명)	
중국어 모어	대만	162
	홍콩	9
	중국	5
	말레이시아	4
한국어 모어	한국	60
합계	240	

피험자 선정에 있어 학습자의 학습 배경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어 전공인 학습자,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학습자, 독학으로 한국어 배우는 학습자 등 다양한 배경의 피험자들을 실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초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또는 2급을 취득한 자로, 중급 학습자의 경우 최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또는 4급을 취득한 자로, 고급 학습자의 경우 최근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또는 6급을 취득한 적이 있는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숙달도 변인에 따른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중간 언어 문법 능력 발달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교 집단으로는 한국어 모어 화자 60명을 모집하였다.

2.2.2. 신뢰도 검증

신뢰도 검증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 즉 같은 사람이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여 실시하였을 때 측정된 값의 일치성 및 일관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 도구인 빈칸 채우기 과제의 문항 내적일관성신뢰도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모든 문항의 평균 크론바흐 알파의 계수는 0.809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2.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빈칸 채우기 과제를 실시하였고 데이터를 EXCEL 파일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데이터로 우선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 간’ 및 ‘각 집단 내’에서 단서 경쟁 여부에 따라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정답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답률을 도출²³⁾한 후,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과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정답률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정답률과 일어나지 않는 항목의 정답률에 있어서 각각 숙달도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 또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분석(scheffe test)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단서 조합에 따라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선택률²⁴⁾에도 변화가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초급 학습자 집단-중급 학습자 집단-고급 학습자 집단-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의 조사 선택률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분석(scheffe tes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 내에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있어서 단서 조합에 따라 선택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 내에 대응표본 t검정을 실행하였다.

<표14> 자료 분석 방법 정리

23) 정답률 도출하는 방법 = 정답 개수/해당 변인 문항 수 x 100

24) 조사 선택률 도출하는 방법 = 점수/해당 변인 문항 수 x 100

각 항목에 더 적합한 조사에 기준으로		→	점수 매김
‘이/가’가 더 적합한 항목에서	‘이/가’ 선택		
	‘은/는’ 선택		0
‘은/는’이 더 적합한 항목에서	‘이/가’ 선택		0
	‘은/는’ 선택		1

내용	분석 방법
설문지 문항의 타당성 검정	한국어교육 전공한 한국어 모어 화자 판정
빈칸 채우기 과제의 신뢰도 검정	cronbach α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간의 ‘이/가’와 ‘은/는’ 선택 양상 차이 유의성 검정	독립표본 t-검정
학습자 집단 내 단서 조합에 따른 ‘이/가’와 ‘은/는’ 선택 정답률 및 선택 양상 차이 유의성 검정	대응표본 t-검정
각 숙달도 학습자 집단 간, 또는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 차이 유의성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OVA)
각 숙달도 학습자 집단 간, 또는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의 화용적 단서 변화에 따른 조사 선택률 차이 유의성 검정	

모든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는 IBM SPSS STATISTICS 26로 실현하였고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 $p < .05$ 에서 이루어졌다.

IV. 결과 분석

1.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조사 선택과 정확도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 간의 조합, 또는 경쟁 여부가 학습자의 조사 선택 또는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경쟁이 있는 문항과 경쟁이 없는 문항의 정답률을 살펴보았다.

<표15> 경쟁이 있는 문항과 경쟁이 없는 문항의 세부 분류

단서 경쟁이 있는 변인 항목	단서 경쟁이 없는 변인 항목
단일 주어문 주어 + 선택지정 + 지시적 구정보 (변인2)	단일 주어문 주어 + 선택지정 + 지시적 신정보 (변인1)
단일 주어문 주어 + 대조 + 지시적 신정보 (변인3)	단일 주어문 주어 + 대조 + 지시적 구정보 (변인4)
-	단일 주어문 주어 +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변인5)
-	단일 주어문 주어 +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변인6)

위 <표15>를 보면, 경쟁이 있는 문항으로는 [‘이/가’의 사용이 더 적합한 ‘선택지정’과 ‘은/는’의 사용이 더 적합한 ‘지시적 구정보’]의 단서 조합과, [‘은/는’의 사용이 더 적합한 ‘대조’와 ‘이/가’의 사용이 더 적합한 ‘지시적 신정보’]의 단서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경쟁이 없는 문항으로는 [‘이/가’의 사용이 더 적합한 ‘선택지정’ 및 ‘지시적 신정보’]의 단서 조합, [‘은/는’의 사용이 더 적합한 ‘대조’ 및 ‘지시적 구정보’]의 단서 조합, [‘이/가’의 사용이 더 적합한 ‘도입 주제’ 및 ‘지시적 신정보’]의 단서 조합, [‘은/는’의 사용이 더 적합한 ‘중심 주제’ 및 ‘지시적 구정보’]의 단서 조합이 있다. 따라서 이 단서 조합들, 즉 변인들의 정답을 합산하여, 정답

를25)을 도출하였다. 다음은 전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 기술 통계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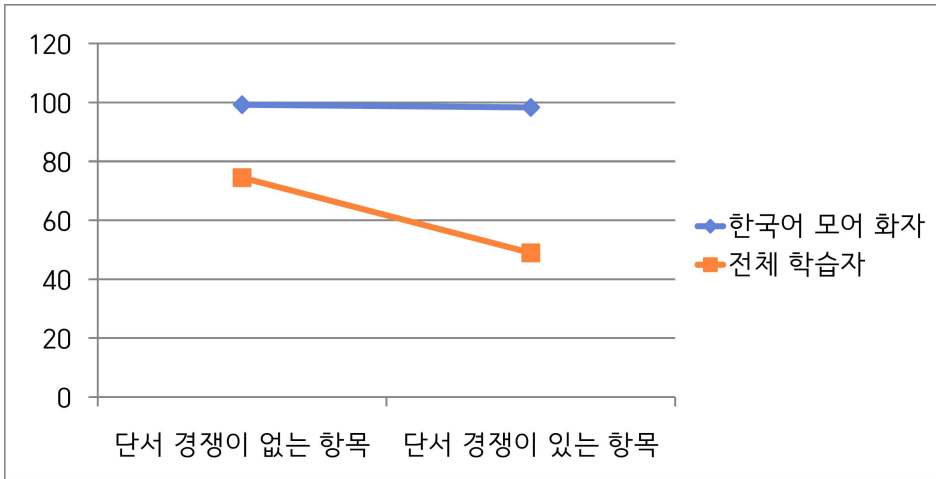
<표16> 전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의 기술 통계량

	숙달도	피험자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정답률(%)	표준편차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정답률	전체 학습자	180	0.00	90.00	48.9444	16.39244
	모어 화자	60	70.00	100.00	98.3333	4.92887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정답률	전체 학습자	180	30.00	100.00	74.5000	15.14455
	모어 화자	60	95.00	100.00	99.2500	1.80042

위 <표16>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학습자(초급+중급+고급)의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들의 정답률은 74.5%였고,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들의 정답률은 48.94%에 불과하였다.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정답률은 모두 100%에 가까웠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7>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

25) 정답률 생산하는 방법 = 점수/해당 변인 문항 수 x 100



위 <그림7>을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단서 경쟁의 유무에 따른 정답률이 거의 차이가 없지만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단서 경쟁의 유무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의 정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정확도는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보다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 간 서로 경쟁이 일어나면 학습자에게 어떤 조사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이 야기됨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과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평균 정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7> 전체 학습자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의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전체 학습자	180	48.94	16.39244	-18.736(0.000)***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				
각 항목	180	74.50	15.14455	
정답률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				

*p<0.1, **p<0.05, ***p<0.01

위 <표17>을 보면 두 변수 간의 t분포 값은 -18.736이고, 이 t분포에 따른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전체 학습자의 단서 경쟁이 있는가에 따른 평균 정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다면·다층면적인 의미 기능을 지닌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을 때 각 의미 기능 단서가 서로 대응되는 조사가 다르면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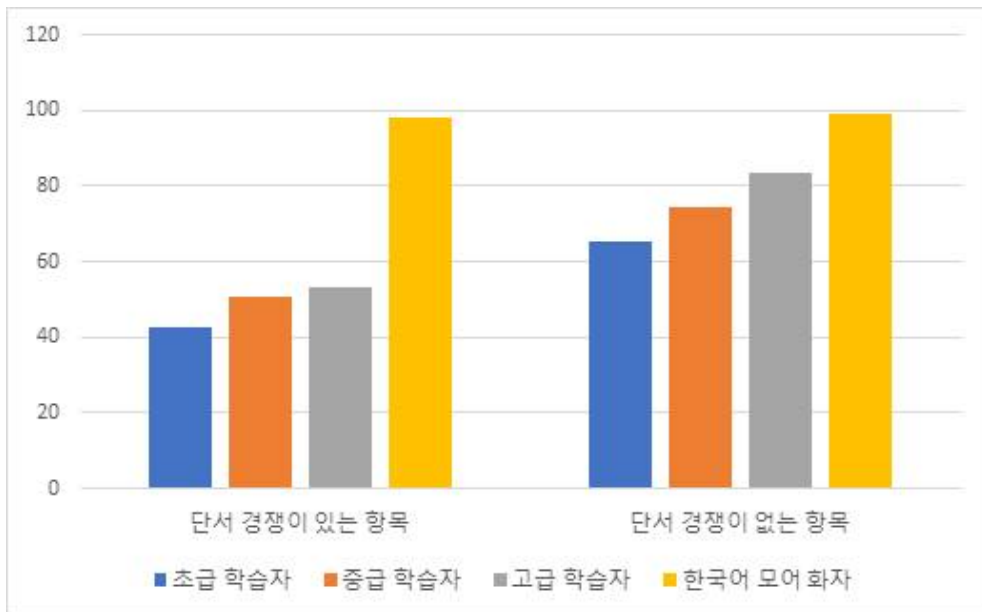
하지만 위 결과는 초급, 중급, 고급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이/가’와 ‘은/는’의 정확도가 학습자 숙달도와도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숙달도에 따른 조사 정답률을 알아보겠다. 우선 숙달도별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겠다.

<표18> 숙달도별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의 기술 통계량

	숙달도	시험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정답률(%)	표준편차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정답률	초급	60	.00	70.00	42.83	15.63261
	중급	60	10.00	90.00	50.67	15.93064
	고급	60	20.00	80.00	53.33	16.01553
	모어 화 자	60	70.00	100.00	98.33	4.92887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정답률	초급	60	35.00	95.00	65.58	13.11913
	중급	60	30.00	100.00	74.33	16.63330
	고급	60	60.00	100.00	83.58	9.07089
	모어 화 자	60	95.00	100.00	99.25	1.80042

위 <표18>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림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8> 숙달도별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



위 <그림8>을 보면 각 숙달도 집단에서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이 모두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보다 정답률이 높지만, 각 집단에서 이 두 항목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숙달도별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중국어권 초급 학습자의 검정 결과를 살펴보겠다.

<표19> 초급 학습자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 (SD)	
초급 학습자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	60	42.83	15.63261	-10.452(0.000)***
각 항목 정답률				
초급 학습자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	60	65.58	13.11913	

*p<0.1, **p<0.05, ***p<0.01

초급 학습자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정답률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10.452$, $p=0.000$ 으로 유의수준 0.001보다 작으므로 단서 경쟁의 유무가 초급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 선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를 살펴보겠다.

<표20> 중급 학습자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SD)	
중급 학습자	60	50.67	15.93064	-8.863(0.000)***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				
정답률	60	74.33	16.63330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				

*p<0.1, **p<0.05, ***p<0.01

위 <표20>을 보면, 유의확률이 0.000이기에 0.05보다 작으므로 단서 경쟁 유무가 중국어권 중급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 선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를 살펴보겠다.

<표21> 고급 학습자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표준편차(SD)	
고급 학습자	60	53.33	16.01553	-14.264(0.000)***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				
정답률	60	83.58	9.07089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				

*p<0.1, **p<0.05, ***p<0.01

위 <표21>을 보면, 근사 유의확률이 0.000이기에 0.05보다 작으므로 단서 경쟁 여부가 중국어권 고급 학습자에게 조사 ‘이/가’와 ‘은/는’의 선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일 주어문임에도 불구하고 문구 중에 드러난 의미 기능들이 대응되는 조사가 서로

다를 때, 고급 학습자 역시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이상을 다시 정리하자면 각 집단 안에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과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정답률에 있어 모든 숙달도 학습자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단서 경쟁의 유무가 초급, 중급과 고급 학습자 모두의 조사 ‘이/가’와 ‘은/는’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은 숙달도 간에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과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정답률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22> 집단 간의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정답률 차이 검정(ANOVA) 결과

구분	종속변수-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정답률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숙달도	초급 ^a	60	42.83	15.63261		
	중급 ^b	60	50.67	15.93064	7.105	0.001*** c·b>a
	고급 ^c	60	53.33	16.01553		

*p<.05, **p<.01, ***p<.001

<표23> 집단 간의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정답률 차이 검정(ANOVA) 결과

구분	종속변수-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정답률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숙달도	초급 ^a	60	65.58	13.11913		
	중급 ^b	60	74.33	16.63330	27.462	0.000*** c>b>a
	고급 ^c	60	83.58	90.07089		

*p<.05, **p<.01, ***p<.001

위 <표22>와 <표23>에서 알 수 있듯이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에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하여 $F=7.105$, $p=0.001$ 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에서도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하여 $F=27.462$, $p=0.000$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사후 검정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에서 중급·고급 학습자 집단과 초급 학습자 집단 간에만 정답률 평균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나왔다. 즉 중급·고급 학습자 집단이 초급 학습자 집단보다 평균 정답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중급-고급’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에 있어, 고급의 숙달도에 달해도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에 있어서는 중급과 고급 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에 사후 검정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초급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정답률(=65.5833)보다 중급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정답률(=74.3333)이 유의하게 더 높았고, 중급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정답률보다 고급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정답률(=83.5833)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에 있어,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표24>에서 알 수 있듯이 고급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평균 정답률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단일 주어문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의 숙달도에 달해도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래 <표25>를 보면,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의확률 0.000이므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24> 고급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평균 정답률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구 분	숙달도	N	평균(M)	표준편차(SD)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평균 정답률	고급	60	83.58	9.07089
	한국어 원어민	60	99.25	1.80042
t(p)		-13.0122(0.000)***		

*p<.05, **p<.01, ***p<.001

<표25> 고급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평균 정답률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구 분	숙달도	N	평균(M)	표준편차(SD)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평균 정답률	고급	60	53.33	16.01553
	한국어 원어민	60	98.33	4.92887
t(p)		-20.802(0.000)***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숙달도와 단서 경쟁 유무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26> 숙달도와 단서 경쟁 여부 간의 상호작용 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p)	부분에타제곱
종속변수	수정된 모형	195772.865 a	7	27967. 552	170.371 (0.000 ^{***})	.716
	절편	2418970.05 2	1	241897 0.052	14735.715 (0.000 ^{***})	.969
	숙달도	135965.573	3	45321. 858	276.089 (0.000 ^{***})	.637
	단서 경쟁 여부	45143.802	1	45143. 802	275.004 (0.000 ^{***})	.368
	숙달도*단서 경쟁 여부	14663.490	3	4887.8 30	29.775 (0.000 ^{***})	.159
	오차	77482.083	472	164.15 7		
	전체	2692225.00 0	480			
	수정된 합계	273254.948	479			

*p<.05, **p<.01, ***p<.001

단일 주어문의 주어 자리의 조사 선택 정답률은 숙달도 변인에 따른 차이(F(3, 472)=276.089, p<.001)와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차이(F(1, 472)=275.004, p<.001)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F(3, 472)=2.376, p<.001). 즉 숙달도와 단서 경쟁 여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단서 경쟁이 없는 경우의 조사 선택 양상

학습자들이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을 얼마만큼 습득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본 절에서는 단서 경쟁이 없는 ‘이/가’의 의미 기능 단서,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를 각각 나눠서 조합하여 각 조합에 따라 어떤 조사를 선택하는지,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선택과 일치

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1. ‘이/가’ 의미 기능 단서 조합에 따른 조사 선택 양상

우선 한국어 조사 ‘이/가’의 의미 기능으로서, 본고는 ‘선택지정’과 ‘도입 주제 및 지시적 신정보’를 설정하였다. 지시적 신정보는 지시적 주어 집성에 관한 개념으로, 어떤 언어적 표현에 따른 대응되는 비언어적 실체 사이의 관계가 새로운 것임을 가리킨다. 즉 이 비언어적인 실체는 화자·청자가 인식한 범위 안이나 담화 범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면, 지시적 신정보라고 한다(전영철, 2009:223). 그러므로 모든 실체가 그의 ‘인지적 지위(cognitive statuses)’를 반드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단서 조합에 ‘지시적 신/구정보’가 반드시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지시적 신정보’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상황 맥락에 따라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이 주어지면,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이 되는 것이고, 만약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시적 신정보’가 자연스럽게 ‘도입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의 경우에는 더하기 부호 ‘+’를 사용하고, 후자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의 경우 ‘및’의 뜻을 가진 부호 ‘·’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도입 주제는 반드시 지시적 신정보이며(박진호, 2015:384) 담화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지시항 및 신정보를 끌어 들여 화자-청자의 공동의식의 영역을 만들려고 할 때, ‘이/가’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지시체를 주제로 도입한다는 것이다(김선희, 1983)²⁶. 이 때문에 김지현(2007)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가’가 사용된 지시적 신정보에서는 서술부의 정보 지위에 따라 ‘도입 주제’와 ‘선택지정’ 두 가지 의미 기능을 한다고 하였고, 전자는 조사 ‘이/가’를 생략해도 되지만, 후자의 ‘이/가’는 생략이 불가하며 이는 ‘이/가’의 주된 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26) 김선희(1983)에서 ‘담화의 출발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고의 ‘도입 주제’와 동일한 개념이므로, 서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 주제’로 통일했다.

따라서 아래는 ‘이/가’의 사용이 더 적합한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을 살펴보고 나서 ‘선택지정’이 주어지지 않을 때의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과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이 주어질 때의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에서 중국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조사 선택이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1)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

‘선택지정’의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주어에 해당하는 지시체가 ‘지시적 신정보’일 때의 단서 조합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항목에 있어 각 숙달도별 중국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조사 ‘이/가’의 선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네 집단의 ‘이/가’ 선택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아울러 네 집단의 선택률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27>과 <그림10>와 같이 정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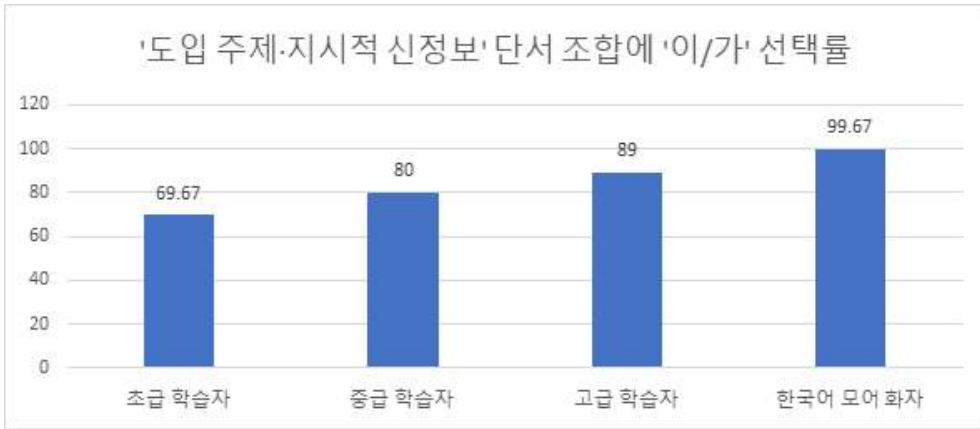
<표27>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의 조사 ‘이/가’ 선택률 기술통계량 및 F검정(ANOVA) 결과

구분	기술통계량			ANOVA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도 입 주 제 · 신 정 보	지 시 적	초급 ^a	60	69.67	20.66412	36.911 .000 d>c>b> a
		중급 ^b	60	80.00	20.50217	
		고급 ^c	60	89.00	14.46211	
		모어 화자 ^d	60	99.67	2.58199	

*p<.05, **p<.01, ***p<.001

<그림9>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의

단서 조합 조사 ‘이/가’의 선택률



위 <표27>과 <그림9>를 보면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에서의 조사 ‘이/가’의 선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27>로 알 수 있듯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항목에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하여 $F=36.911$, $p=0.000$ 이기 때문에 각 집단 간의 ‘이/가’ 선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 검정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위 <표27> 맨 오른쪽에서 보고된 사후 검정 scheffe test 실시 결과에 따르면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항목에서 모어 화자 집단, 고급 학습자 집단, 중급 학습자 집단, 그리고 초급 학습자 집단 간 조사 선택률 평균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선택지정’과 ‘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

‘선택지정’의 상황 맥락이 주어지면서, 주어에 해당하는 지시체가 ‘지시적 신정보’일 때의 단서 조합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항목에 있어 각 숙달도별 중국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조사 ‘이/가’의 선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네 집단의 ‘이/가’ 선택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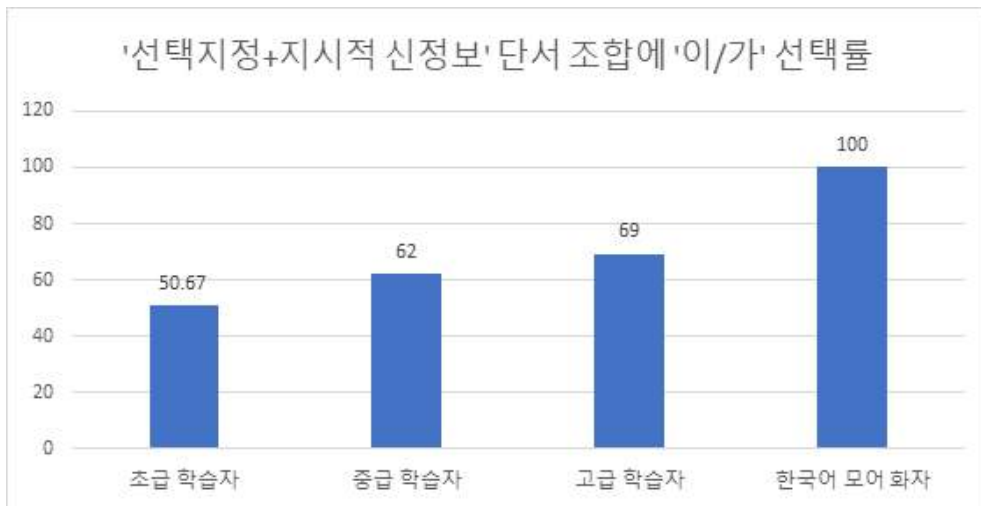
아울러 네 집단의 선택률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28>과 <그림10>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28>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의 조사 ‘이/가’ 선택률 기술통계량 및 F검정(ANOVA) 결과

구분	기술통계량			ANOVA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선택지정 + 신정보	초급 ^a	60	50.67	22.83817	56.153	.000	d>c • b >a
	중급 ^b	60	62.00	29.15767			
	고급 ^c	60	69.00	23.12091			
	모어 화자 ^d	60	100	0.00000			

*p<.05, **p<.01, ***p<.001

<그림10>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의 단서 조합 조사 ‘이/가’의 선택률



위 <표28>와 <그림10>을 보면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에서의 조사 ‘이/가’의 선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표28>로 알 수 있듯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항목에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하여 $F=56.153$, $p=0.000$ 이므로 각 집단 간의 ‘이/가’ 선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 검정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위 <표28> 맨 오른쪽에서 보고된 사후 검정 scheffe test 실시 결과에 따르면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항목에 있어 모어 화자 집단과 고급 학습자 집단 간, 그리고 중급 학습자 집단과 초급 학습자 집단 간 조사 선택률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고급 학습자 집단과 중급 학습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으로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 각각의 숙달도별 선택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위 두 가지 단서 조합 간에 조사 ‘이/가’의 선택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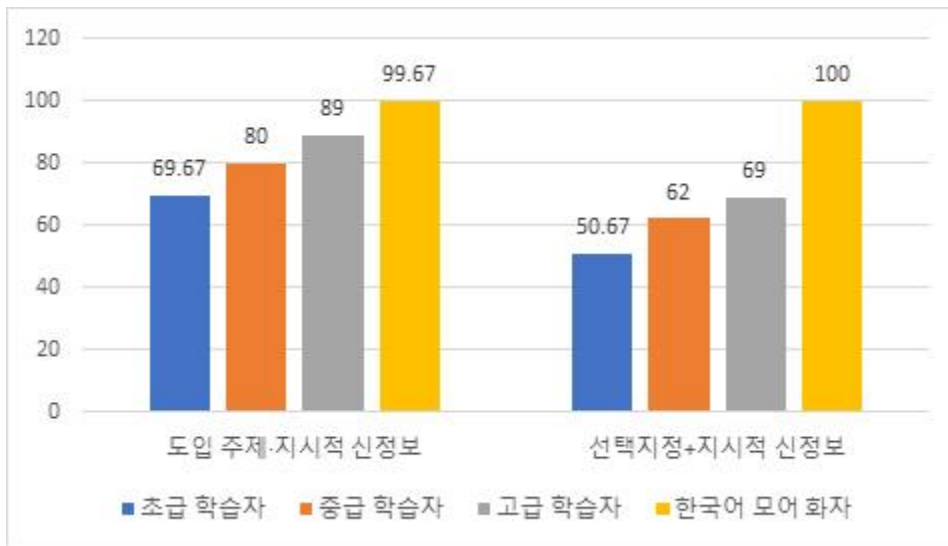
(3) ‘이/가’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의 조사 선택 양상 비교

본 절에서는 ‘이/가’의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이 달라질 때, 학습자들의 조사 선택도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즉 단서의 조합들에서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항목의 조사 ‘이/가’의 선택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선 이 두 항목의 ‘이/가’ 선택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29>와 <그림12>와 같다.

<표29>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조사 ‘이/가’의 선택률 기술 통계량

구 분	숙달도	N	평균(M)(%)	표준편차(SD)
도입 주제 • 지시적신정보	초급	60	69.67	20.66412
	중급	60	80.00	20.50217
	고급	60	89.00	14.46211
	한국어 모어 화자	60	99.67	2.58199
선택지정+ 지시적 신정보	초급	60	50.67	22.83817
	중급	60	62.00	29.15767
	고급	60	69.00	23.12091
	한국어 모어 화자	60	100	0.00000

<그림11>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조사 ‘이/가’의 선택률



위 <표29>와 <그림11>을 보면 모든 집단에서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보다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의 단서 조합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는 각 집단 내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조사 ‘이/가’의 선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30> 각 숙달도별 집단 내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조사 ‘이/가’의 선택률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M)	평균차 표준편차 (SD)		
초급 학습자	도입 주제· 지시적 신정보	60	69.67	20.66412	19 5.468(0.000)***
	선택지정+ 지시적 신정보	60	50.67	22.83817	
중급 학습자	도입 주제· 지시적 신정보	60	80.00	20.50217	18 5.120(0.000)***
	선택지정+ 지시적 신정보	60	62.00	29.15767	
고급 학습자	도입 주제· 지시적 신정보	60	89.00	14.46211	20 5.477(0.000)***
	선택지정+ 지시적 신정보	60	69.00	23.12091	

*p<.05, **p<.01, ***p<.001

위 <표30>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숙달도 집단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0.001보다 작고, 이것은 즉 똑같이 ‘이/가’의 선택이 더 적합한 ‘도입 주제 및 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 및 지시적 신정보’ 항목에서 모든 숙달도의 학습자가 조사 선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뜻한다.

2.2. ‘은/는’ 의미 기능 단서 조합에 따른 조사 선택 양상

다음으로 한국어 조사 ‘은/는’의 의미 기능으로서, 본고는 ‘대조’와 ‘중심 주제 및 지시적 구정보’를 설정하였다. 앞의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실체는 그 ‘인지적 지위(cognitive statuses)’를 반드시 지니고 있으므로 본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은/는’ 의미 기능에 관한 모든 단서 조합에 ‘지시적 구정보’가 반드시 존재한다. 더불어 상황 맥락에 따라 ‘대조’의 의미 기능이 주어지면,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이 되는 것이고, 만약 ‘대조’의 의미 기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시적 구정보’가 자연스럽게 ‘중심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중심 주제는 반드시 지시적 구정보이며(박진호, 2015:384), “어떤 문장이 무엇에 관하여 말한다고 할 때 ‘무엇’에 해당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최규수, 1999;2006:47). 남윤진(2005: 167)에 따르면 ‘은/는’의 일차적이고 중심적인 기능은 ‘중심 주제’이지만 의미, 화용적인 환경에 의해 주제가 다른 대상과 ‘대조’되면 ‘대조 표시’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김지현(2007)에서도 ‘은/는’의 선행 명사구 주어집성에 따라 ‘은/는’의 사용을 살펴본 결과, 지시적 구정보에서는 ‘주제’, 또는 의미·화용적 상황에 따라 ‘대조’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주제’²⁷⁾의 경우 조사 ‘은/는’을 생략해도 되지만, ‘대조’를 나타낼 때 ‘은/는’은 생략이 불가하며 이는 ‘은/는’의 주된 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아래는 ‘은/는’의 사용이 더 적합한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을 살펴보고 나서 ‘대조’의 의미 기능이 주어지지 않을 때의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대조’가 주어질 때의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에서 중국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조사 선택이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볼 것이다.

(1)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

27) 김지현(2007)에서 ‘지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개념은 본고에서 설정한 ‘도입 주제’과 동일하다. 서술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제’로 적는다.

‘대조’의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주어에 해당하는 지시체가 ‘지시적 구정보’일 때의 단서 조합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항목에 있어 각 숙달도별 중국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조사 ‘은/는’의 선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네 집단의 ‘은/는’ 선택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아울러 네 집단의 선택률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1>과 <그림13>와 같이 정리되었다.

<표31>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의 조사 ‘은/는’ 선택률 기술통계량 및 F검정(ANOVA) 결과

구분		기술통계량			ANOVA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	초급 ^a	60	76.00	19.41518	25.246	.000**	d>c>b
		중급 ^b	60	75.67	23.89005			
		고급 ^c	60	85.33	13.20845			
		모어 화자 ^d	60	99.00	4.39568			

*p<.05, **p<.01, ***p<.001

<그림12>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의 단서 조합 조사 ‘은/는’의 선택률



위 <표31>과 <그림12>를 보면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에서의 초급 학습자의 조사 ‘은/는’의 선택률 평균값이 76%이고, 중급 학습자의 75.67%보다 오히려 높았다. 그리고 고급 학습자 집단에서 85.33%로 다시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이 유의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과 사후 검정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숙달도별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항목에서 유의 수준 0.001을 기준으로 하여 $F=25.246$, $p=0.000$ 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 검정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항목에서 모어 화자 집단, 고급 학습자 집단, 중급 학습자 집단 간 조사 선택률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급 학습자 집단과 초급 학습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대조’와 ‘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

‘대조’의 상황 맥락이 주어지면서, 주어에 해당하는 지시체가 ‘지시적 구정보’일 때의 단서 조합 ‘대조+지시적 구정보’ 항목에 있어 각 숙달도별 중국어권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조사 ‘은/는’의 선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네 집단의 ‘은/는’ 선택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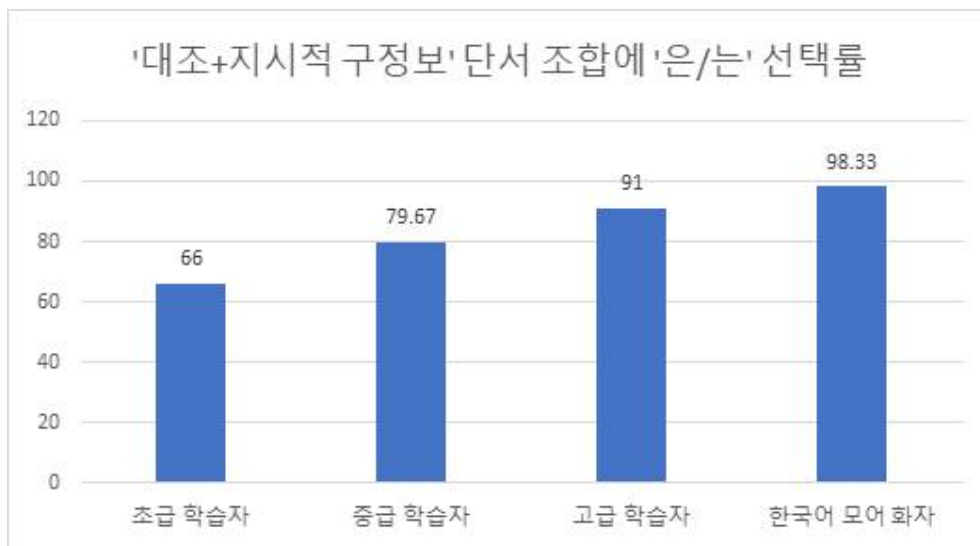
올러 네 집단(초급, 중급, 고급, 모어 화자)의 선택률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32>와 <그림 14>와 같이 정리되었다.

<표32>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의 조사 ‘은/는’ 선택률 기술통계량 및 F검정(ANOVA) 결과

구분	기술통계량			ANOVA			
	n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대조 + 지시적 구정보	초급 ^a	60	66.00	23.37607	34.698	.000***	d • c>b>a
	중급 ^b	60	79.67	24.00330			
	고급 ^c	60	91.00	14.92353			
	모어 화자 ^d	60	98.33	5.57436			

*p<.05, **p<.01, ***p<.001

<그림 13>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대조+지시적 구정보’의 단서 조합 조사 ‘은/는’의 선택률



위 <표32>와 <그림13>을 보면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에서의 조사 ‘이/가’의 선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표32>로 알 수 있듯이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대조+지시적 구정보’ 항목에서 유의수준 0.001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F=34.698$, $p=0.000$ 이므로 각 집단 간의 ‘은/는’ 선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 검정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위 <표32> 맨 오른쪽에 보고된 사후 검정 scheffe test 실시 결과에 따르면 ‘대조+지시적 구정보’ 항목에 있어 초급 학습자 집단, 중급 학습자 집단과 고급 학습자 집단 간 조사 선택률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고급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은/는’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의 조사 선택 양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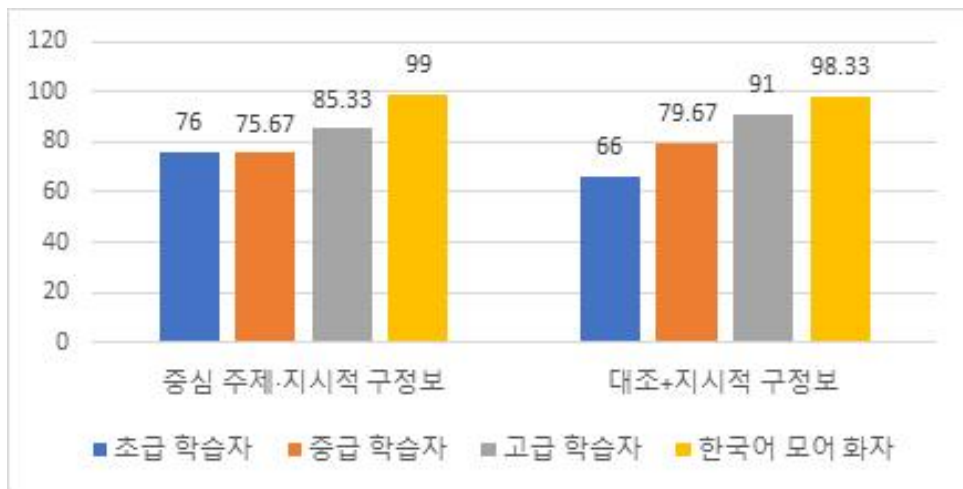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이 달라질 때, 학습자들의 조사 선택도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즉 단서의 조합들에서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와 ‘대조+지시적 구정보’ 항목의 조사 ‘은/는’의 선택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우선 이 두 항목의 ‘은/는’ 선택률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33>과 <그림15>와 같다.

<표33> 구정보’에 따른 조사 ‘은/는’의 선택률 기술 통계량

구 분	숙달도	N	평균(M)(%)	표준편차(SD)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	초급	60	76.00	19.41518
	중급	60	75.67	23.89005
	고급	60	85.33	13.20845
	한국어 원어민	60	99.00	4.39568
대조+ 지시적 구정보	초급	60	66.00	23.37607
	중급	60	79.67	24.00330
	고급	60	91.00	14.92353
	한국어 원어민	60	98.33	5.57436

*p<.05, **p<.01, ***p<.001

<그림14>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대조+지시적 구정보’에 따른 조사 ‘은/는’의 선택률



위 <표33>과 <그림1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급 학습자 집단을 제외한 중급과 고급 학습자 집단에서 단서가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보다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의 정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34> 각 숙달도별 집단 내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대조+지시적 구정보’에 따른 조사 ‘이/가’의 선택률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M)	표준편차 (SD)		
초급 학습자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	60	76.00	19.41518	-3.265(0.002)**
	대조+ 지시적 구정보	60	66.00	23.37607	
중급 학습자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	60	75.67	23.89005	1.271(0.209)
	대조+ 지시적 구정보	60	79.67	24.00330	
고급 학습자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	60	85.33	13.20845	2.596(0.012)*
	대조+ 지시적 구정보	60	91.00	14.92353	

위 <표34>를 보면, 초급 학습자 집단과 고급 학습자 집단의 조사 선택률 평균 차이 유의확률은 각각 0.002와 0.012로, 모두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고급 학습자 집단에서는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항목이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단서 항목보다 ‘은/는’의 선택률이 더 높은 반면, 초급 학습자 집단에서는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항목보다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단서 항목에 ‘은/는’의 선택률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즉, 이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다른 의미로 유의하였다. 반면 중급 학습자 집단에서는 ‘대조+지시

적 구정보’ 단서 항목과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단서 항목 간의 조사 선택률 평균 차이 유의확률은 0.209이므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단서 경쟁이 있는 경우의 조사 선택 양상

앞 절에서는 단서 경쟁이 없는 ‘이/가’와 ‘은/는’ 각각의 의미 기능 단서 조합을 살펴보았는데 본 절에서는 단서 경쟁이 있는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을 살펴볼 것이다. 단서 경쟁이 있는 조합은 본고에서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조사 ‘이/가’가 더 적합한 ‘선택지정’과 조사 ‘은/는’이 더 적합한 ‘지시적 구정보’의 단서 조합, 두 번째로 ‘은/는’이 더 적합한 ‘대조’와 조사 ‘이/가’가 더 적합한 ‘지시적 신정보’의 단서 조합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시적 주어집성’은 모든 지시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정보 지위이기 때문에 모든 지시체는 반드시 ‘지시적 신정보’나 ‘지시적 구정보’의 지시적 정보 지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의 상황 맥락에 의해 ‘선택지정’이나 ‘대조’의 의미 기능이 주어지면 조사 선택은 각각 ‘이/가’와 ‘은/는’으로 선택해야 더 적합하다(유현경 외, 2007).

3.1. 숙달도별 ‘선택지정 단서 유무’에 따른 선택 양상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단서 조합에 관하여 본 절에서는 ‘선택지정’이 주어지지 않은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선택지정’이 주어지는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의 조사 선택률을 살펴볼 것이다. 즉 ‘선택지정’ 단서의 유무가 학습자에게 조사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선택지정 단서 유무 이외의 모든 단서가 통제되어야 하고, 또 ‘이/가’와 ‘은/는’의 선택이 달라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과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²⁸⁾ 단서 조합을 비교하고자 한다. 전자는 제 II장에서 검

또한 결과로 ‘이/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후자는 ‘은/는’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며 한국어 모어 화자의 조사 선택 양상도 이와 부합하였다.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도 ‘이/가’의 선택이 마땅하므로 학습자들이 ‘지시적 신정보’ 단서에 의존했는지, ‘선택지정’ 단서에 의존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제외시켰다.

<표35> 비교 항목 예시

‘선택지정’ 단서의 유무	
무	유
[지시적 구정보+중심 제주] 남: 일반쓰레기통() 어디에 있어요? 여: <u>일반쓰레기통(은)</u> 저쪽에 있어요.	[지시적 구정보+선택지정] 남: 영화<신과 함께>랑 <부산행> 뭘 볼지 고민이네요. 여: <부산행> 봐요! <부산행>(이) 더 재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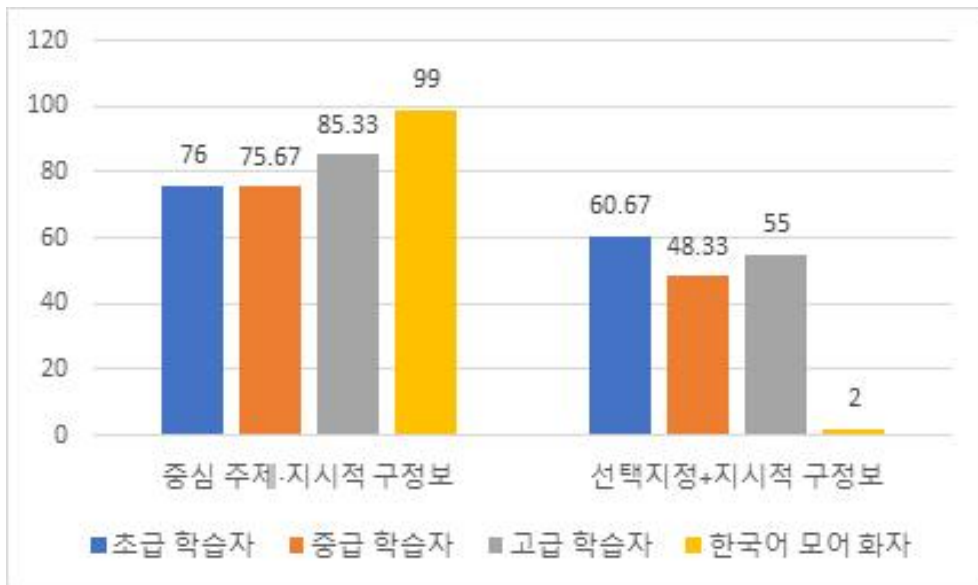
다음은 ‘선택지정’ 단서 유무 이외의 모든 변인을 통제한 후에,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단서 경쟁이 있는 ‘지시적 구정보+선택지정’에 따른 각 피험자 집단의 ‘이/가’ 선택률 평균값에 대한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6>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단서 경쟁이 있는 ‘지시적 구정보+선택지정’에 따른 ‘은/는’ 선택률 기술 통계량²⁹⁾

28) ‘선택지정’ 이외의 모든 단서를 통제하려면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이 아닌 ‘지시적 구정보’와 비교해야 되지 않느냐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시적 주어집성’은 화·청자가 해당 지시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뜻하므로 해당 지시체가 ‘지시적 구정보’에다가 ‘선택지정’이나 ‘대조’의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중심 주제’가 된다. 본고에서 설정한 ‘중심 주제’는 초점과 상보적인 관계를 가진 ‘관계적 주어집성’에 해당하는 ‘관계적 구정보’이고, 이는 본고에서 ‘중심 주제’로 정의되며 이의 지시적 정보 지위는 반드시 ‘지시적 구정보’이다(전영철, 2009:223). 따라서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에서 ‘선택지정’의 맥락이 제외되면, ‘지시적 구정보’만 남지만, 한 문장에서의 지시체가 지시적 정보 지위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중심 주제’가 된다.

‘은/는’ 선택률	숙달도	N	평균(M)(%)	표준편차(SD)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초급	60	76.00	19.41518
	중급	60	75.67	23.89005
	고급	60	85.33	13.20845
	한국어 원어민	60	99.00	4.39568
선택지정+ 지시적 구정보	초급	60	60.67	21.46078
	중급	60	48.33	27.38097
	고급	60	55.00	24.59847
	한국어 원어민	60	2.00	6.05063

<그림15>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와 단서 경쟁이 있는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의 ‘은/는’ 선택률



위 <표36>을 보면,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단서 항목에서 초급과

29) ‘은/는’이 더 적합한 ‘지시적 구정보’ 단서가 ‘이/가’가 더 적합한 ‘선택지정’ 단서와 조합할 때, 피험자들의 조사 선택 변화, 즉 ‘은/는’의 선택률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보기 위해 ‘지시적 구정보’ 단서에 적합한 조사인 ‘은/는’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중급 학습자 집단의 ‘은/는’ 선택률 평균값이 각각 76%와 75.67%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고급 학습자 집단에서는 ‘이/가’의 선택률이 약 10% 더 높은 85.33%였다. 다음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단서 항목에 초급 학습자 집단의 ‘은/는’ 평균 선택률은 60.67%, 중급 학습자 집단은 48.33%, 고급 학습자는 55%에 달했다. 다음은 각 숙달도 집단 내의 이러한 선택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37>과 같다.

<표37> 숙달도별 선택지정 단서 유무에 따른 조사 ‘은/는’의 선택률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M)	표준편차 (SD)		
초급 학습자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60	76.00	19.415518	-3.989(0.000)***
	선택지정+ 지시적 구정보	60	60.67	21.46078	
중급 학습자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60	75.67	23.89005	-6.238(0.000)***
	선택지정+ 지시적 구정보	60	48.33	27.38097	
고급 학습자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60	85.33	13.20845	-8.724(0.000)***
	선택지정+ 지시적 구정보	60	55.00	24.59847	

*p<0.1, **p<0.05, ***p<0.01

위 <표37>로 알 수 있듯이, 모든 숙달도 집단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0.001보다 작고, 이것은 즉 ‘은/는’의 선택이 더 적합한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와 ‘이/가’의 선택이 더 적합한 ‘지시적 구정보+선택지정’의 항

목에서 모든 숙달도의 학습자가 조사 선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이/가’의 의미 기능 단서인 ‘선택지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숙달도별 ‘대조 단서 유무’에 따른 선택 양상

단서 경쟁이 있는 두 번째 단서 조합에 관하여 본 절에서는 ‘대조’가 주어지지 않은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와 ‘대조’가 주어지는 ‘대조+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의 조사 선택률을 살펴볼 것이다. 즉 ‘대조’ 단서의 유무가 학습자에게 조사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를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대조’ 단서 유무 이외의 모든 단서가 통제되어야 하고, 또 ‘이/가’와 ‘은/는’의 선택이 달라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대조+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과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³⁰⁾ 단서 조합을 비교하고자 한다. 전자는 제 II장에서 검토한 결과로 ‘은/는’을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후자는 ‘이/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며 한국어 모어 화자의 조사 선택 양상도 이와 부합하였다.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도 ‘은/는’의 선택이 마땅하므로 학습자들이 ‘지시적 구정보’ 단서를 의존했는지, ‘대조’ 단서를 의존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를 제외시켰다.

<표38> 비교 항목 예시

‘대조’ 단서의 유무	
무	유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남: 어제 학교에서 축제를 했어요?	[대조+지시적 신정보] 남: 너 두유 마실래?

30) ‘대조’ 이외의 모든 단서를 통제하려면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이 아닌 ‘지시적 신정보’와 비교해야 되지 않느냐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지시적 주어 집성’은 화·청자가 해당 지시체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정보를 뜻하므로 해당 지시체가 ‘지시적 신정보’에다가 ‘선택지정’이나 ‘대조’의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입 주제’가 된다. 따라서 ‘대조+지시적 신정보’에서 ‘대조’의 맥락이 제외되면, ‘지시적 신정보’만 남지만, 한 문장에서의 지시체가 지시적 정보 지위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입 주제’가 된다.

여: 네,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완전 신났어요.	여: 아니. 두유 대신 우유(는) 없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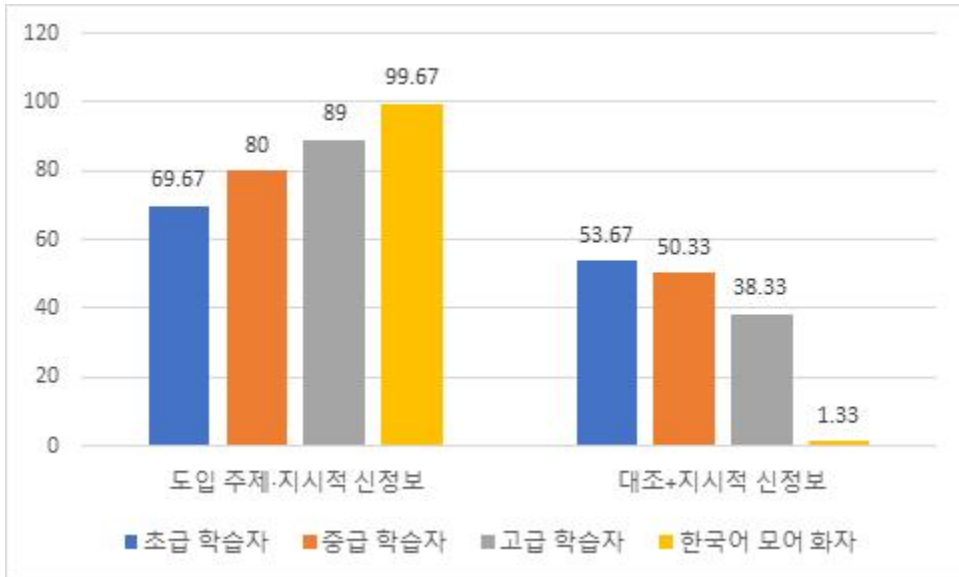
다음으로 ‘대조’ 단서 유무 이외의 모든 변인을 통제한 후에,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단서 경쟁이 있는 ‘대조+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각 피험자 집단의 ‘이/가’ 선택률 평균값을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9>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단서 경쟁이 있는 ‘대조+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이/가’ 선택률 기술 통계량³¹⁾

‘이/가’ 선택률	숙달도	N	평균(M)(%)	표준편차(SD)
도입 주제· 지시적 신정보	초급	60	69.67	20.66412
	중급	60	80.00	20.50217
	고급	60	89.00	14.46211
	한국어 원어민	60	99.67	2.58199
대조+ 지시적 신정보	초급	60	53.67	25.10768
	중급	60	50.33	22.54688
	고급	60	38.33	21.24647
	한국어 원어민	60	1.33	6.23459

<그림16> 숙달도별 단서 경쟁이 없는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단서 경쟁이 있는 ‘대조+지시적 신정보’의 ‘이/가’ 선택률

31) ‘이/가’가 더 적합한 ‘지시적 신정보’ 단서가 ‘은/는’이 더 적합한 ‘대조’ 단서와 조합할 때, 피험자들의 조사 선택 변화, 즉 ‘이/가’의 선택률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보기 위해 ‘지시적 신정보’ 단서에 적합한 조사인 ‘이/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위 <표39>를 보면,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단서 항목에서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이/가’ 선택률 평균값이 각각 66.67%, 80%, 89%, 99.67%로 나타났다. ‘대조+지시적 신정보’ 단서 항목에서의 초급 학습자 집단의 ‘이/가’ 평균 선택률은 53.67%로, 중급 학습자 집단은 50.33%로, 고급 학습자는 38.33%, 한국어 모어 화자는 1.3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숙달도 집단 내의 이러한 선택률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40>과 같다.

**<표40> 숙달도별 대조 단서 유무에 따른 조사 ‘이/가’의 선택률
대응표본 t검정 실시 결과**

구 분	기술통계량			t(p)
	N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차		

초급 학습자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60	69.67		20.66
	대조+ 지시적 신정보	60	53.67	16.00	3.816(0.000)***
중급 학습자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60	80.00		20.50
	대조+ 지시적 신정보	60	50.33	29.67	7.135(0.000)***
고급 학습자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60	89.00		14.46
	대조+ 지시적 신정보	60	38.33	50.37	14.311(0.000)***

*p<0.1, **p<0.05, ***p<0.01

위 <표40>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숙달도 집단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0.001보다 작고, 이것은 즉 ‘이/가’의 선택이 더 적합한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와 ‘은/은’의 선택이 더 적합한 ‘대조+지시적 신정보’의 항목에는 모든 숙달도의 학습자가 조사 선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인 ‘대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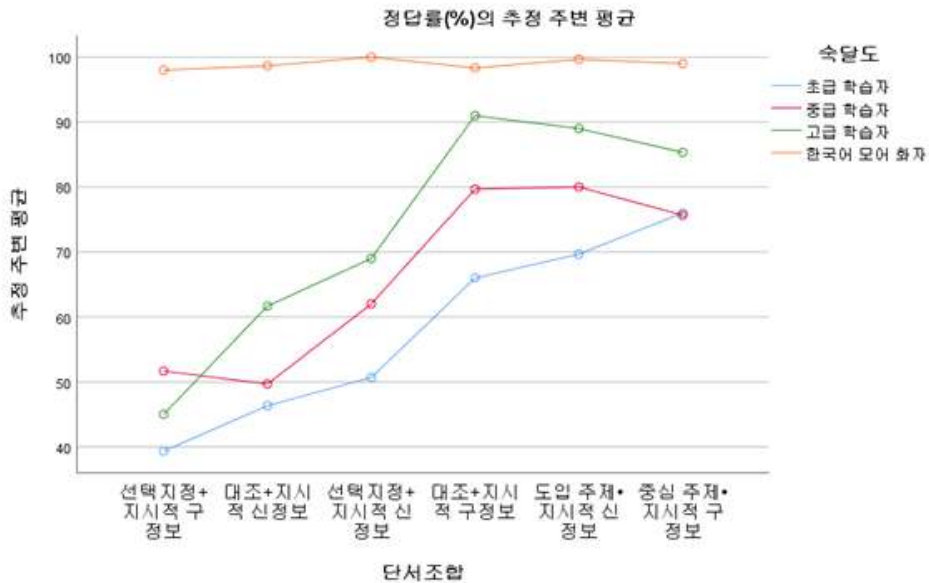
V. 논의

1.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 습득에 대한 논의

1.1. 단서 경쟁이 있는 경우 의미 기능 습득에 대한 논의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중국어권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 집단의 조사 선택 양상을 살펴본 결과, 중국어권 모든 집단에서는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정답률이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의 정답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림17>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별 정답률



위 <그림17>에서 알 수 있듯이 단서 경쟁이 있는 두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것은 단서 경쟁 모형의 기본 가정에 부합하였다. 즉 각 의미 기능 단서가 대응되는 형태가 달라 단서 경쟁이 있는 경

우,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Brian MacWhinney, Elizabeth Bates, Reinhold Kliegl, 1984:129). 다시 말하여,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 단서가 ‘이/가’의 의미 기능 단서인 ‘지시적 신정보’와 같이 드러날 때는 적합한 조사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는 학습자들이 더 강력하게 인지하고 사용하는 단서를 탐구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사용 체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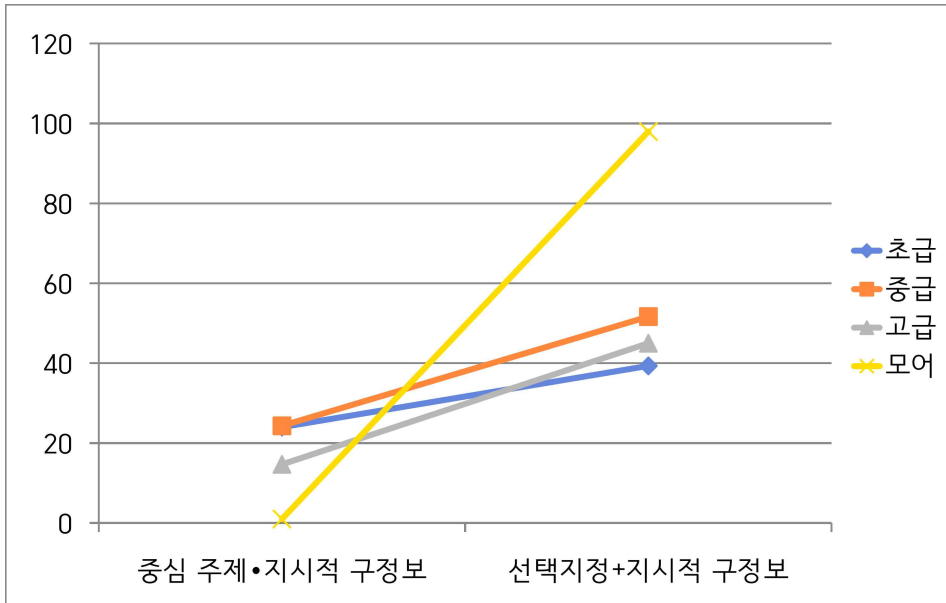
아래 <표41>을 보면, 세 집단의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의 정답률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각 집단 내의 항목 점수 상위권은 모두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대조+지시적 구정보)이고, 하위권은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대조+지시적 신정보)과 ‘이/가’의 의미 기능 단서들로 조합된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표41> 각 숙달도 집단의 각 변인 정답률 기술 통계량(내림차순)

숙달도	단서 조합 (정답률 높은 순)	N	평균(M)(%)	표준편차(SD)
초급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60	76.00	19.41518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60	69.67	20.66412
	대조+지시적 구정보	60	66.00	23.37607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60	50.67	22.83817
	대조+지시적 신정보	60	46.33	25.10768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60	39.33	21.46078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60	80.00	20.50217
	대조+지시적 구정보	60	79.67	24.00330
중급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60	75.67	23.89005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60	62.00	29.15767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60	51.67	27.38097
	대조+지시적 신정보	60	49.67	22.54688
	대조+지시적 구정보	60	91.00	14.92353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60	89.00	14.46211
고급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60	85.33	13.20845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60	69.00	23.12091
	대조+지시적 신정보	60	61.67	21.24647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60	45.00	24.59847

위 <표41>에서 제시된 각 숙달도 집단의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의 정답률을 보면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 조사 ‘이/가’를 정확히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조사 ‘은/는’을 정확히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보다 더 많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학습자의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의 습득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이 포함된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항목을 살펴보았다.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항목을 살펴보지 않았던 이유는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에서는 ‘선택지정’, ‘지시적 신정보’ 모두 조사 ‘이/가’에 해당되므로 학습자들이 어느 의미 기능에 의해 조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항목에서 ‘선택지정’은 ‘이/가’의 의미 기능에 해당되고, ‘지시적 구정보’는 ‘은/는’의 의미 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가’를 선택했다면 어느 정도 ‘선택지정’의 의미 기능에 의해 조사 ‘이/가’를 선택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는’의 선택이 더 적합한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과 비교하여 ‘선택+지시적 구정보’에서 ‘이/가’의 선택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 습득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18> 숙달도별 ‘중심 주제 • 지시적 구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항목의 조사 ‘이/가’ 선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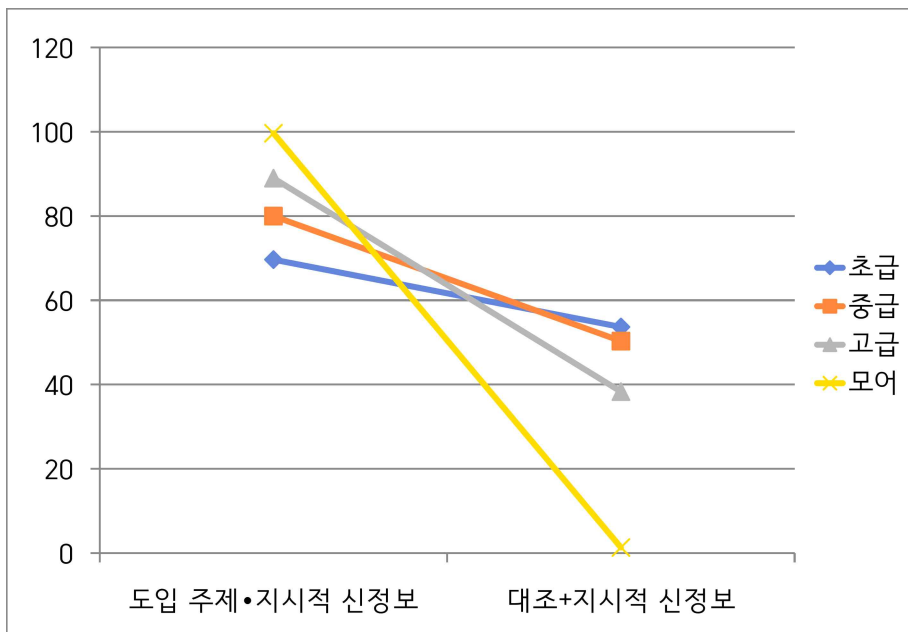


위 <그림18>을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은/는’의 선택이 더 적합한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이/가’의 선택이 더 적합한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항목에서의 조사 선택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전체 학습자 집단에서는 이 두 항목 간의 조사 선택 차이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그리고 중국어권 학습자의 조사 선택률을 살펴보면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선택률과 가깝지만 ‘선택지정’ 의미 기능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선택률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은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가’를 단순히 주어를 표시하는 주격조사로 알고 있으며, ‘은/는’이 주어를 강조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였다는 김령(2012)의 연구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을 확실하게 살펴보기 위해 ‘대조’의 의미 기능이 포함된 ‘대조+지시적 신정보’ 항목을 살펴보았다. ‘대조+지시적 구정보’ 항목을 살펴보지 않았던 이유는 ‘대조+지시적 구정보’에서는 ‘대조’, ‘지시적 구정보’ 모두 조사 ‘이/가’에 해당해서 학습자들이 어느

의미 기능에 의해 조사를 선택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대조+지시적 신정보’ 항목에서 ‘대조’는 ‘은/는’의 의미 기능에 해당되고, ‘지시적 신정보’는 ‘이/가’의 의미 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은/는’을 선택했다면 어느 정도 ‘대조’ 의미 기능에 의해 조사 ‘은/는’을 선택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가’의 선택이 더 적합한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과 비교하면서 ‘대조+지시적 신정보’에서 ‘이/가’의 선택률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 습득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19> 숙달도별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와 ‘대조+지시적 신정보’ 항목의 조사 ‘이/가’ 선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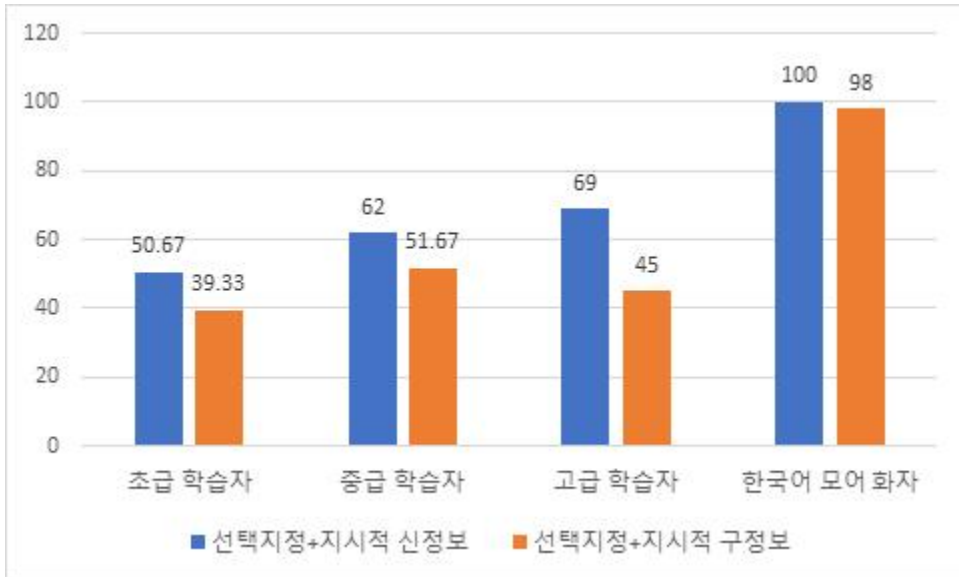


위 <그림19>를 보면, ‘도입 주제 • 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에서 초 • 중 • 고급 학습자 집단의 조사 ‘이/가’ 선택률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조사 ‘이/가’ 선택률이 ‘대조+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깝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사도, 즉 ‘대조’ 의미 기능 단서에 대해 반응하는 강도가 높은 순은 ‘한국어 모어 화자 > 고급 학습자 > 중급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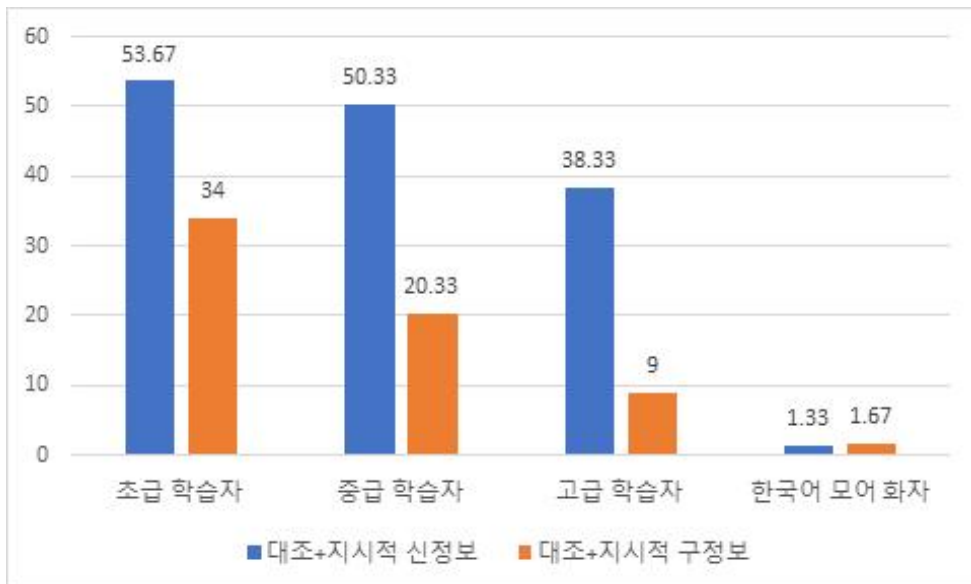
습자 > 초급 학습자'이다. 초급 학습자가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조'에 대해 아직 교수·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오아림, 2021).

다음으로, 아래 <그림20>과 <그림21>을 보면,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인 '선택지정'과 '대조'를 고정시킬 때 모두 '지시적 신정보'가 포함된 단서 조합 항목에서 조사 '이/가'의 선택률이 더 높았다. 즉 '선택지정'과 '대조' 의미 기능 단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적 주어 집성 단서에 의존하여 조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21>을 보면, '대조+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 항목은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이/가'의 선택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지시적 주어 집성 단서 이용이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경(2017)에서 도출한 결과와 동일하다. 김미경(2017:108)에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이/가', '은/는' 사용 양상 및 선택 요인을 조사한 결과, 선행 담화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채 연구의 경우 '은/는'보다는 '이/가'의 사용률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습자의 숙달도가 올라가면서 '은/는'이 신정보와 결합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주어의 지시적 주어 집성이 곧 절대적인 조사 선택의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습득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림20> 숙달도별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과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항목의 '이/가' 선택률(%)



<그림21> 숙달도별 ‘대조+지시적 신정보’과 ‘대조+지시적 구정보’ 항목의 ‘이/가’ 선택률(%)



반면에 <그림21>을 보면, ‘선택지정+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의 조사 ‘이/가’의 선택률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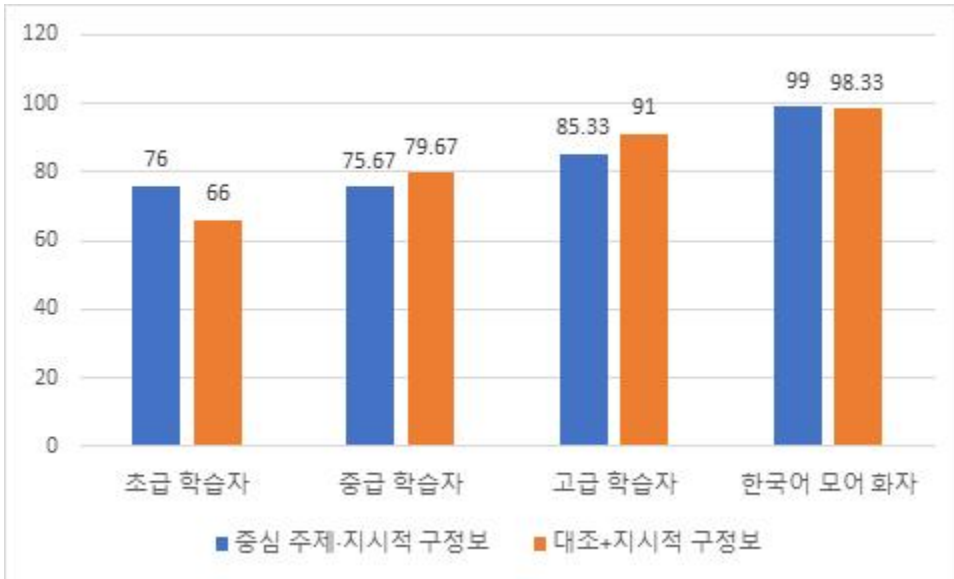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 때,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앞선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하락세가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중급에서 고급까지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정’ 의미 기능에 대한 습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김령(2012)에서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김령(2012:60-61)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 조사 및 인터뷰한 결과, ‘선택지정’ 의미 기능의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을 잘 알지 못하며 ‘은/는’이 주어 강조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1.2. 단서 경쟁이 없는 경우 의미 기능 습득에 대한 논의

단서 경쟁 모형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모든 의미 기능 단서들이 서로 같은 형태로 유도하여 연합(coalition)되면, 각 단서의 강도가 높아지고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게 문장을 해석하고 조사를 선택할 수 있다. 아래 <그림22>를 보면, 검증 결과 이 현상은 고급 학습자 집단에만 해당되었다(Brian MacWhinney, Elizabeth Bates, Reinhold Kliegl, 1984:129). 즉 고급 학습자 집단에서 동일하게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의 단서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 ‘대조’의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 정답률이 증가하였으며 ‘대조+지시적 구정보’의 단서 조합 전체 정답률이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단서보다 높았다. 반면에, 초급 학습자 집단에서 단서 경쟁 모형의 기본 가정과 반대인 양상을 나타낸 이유는 초급의 초급 학습자들이 아직은 ‘대조’에 대해 교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급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중급 학습자 집단의 경우, ‘대조’의 의미 기능을 알게 되어 정답률이 급속히 상승하였고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비슷한 정답률이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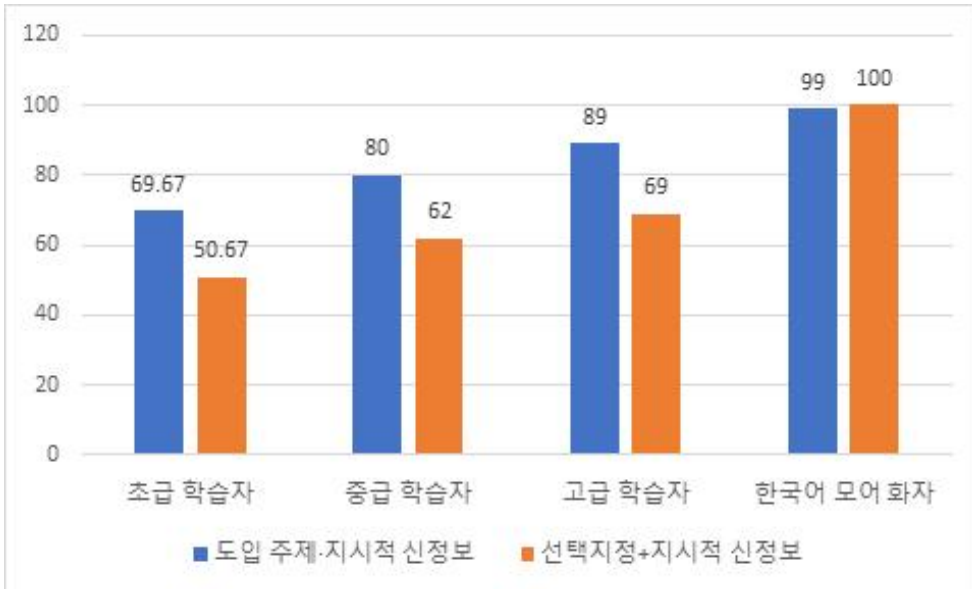
<그림22> 숙달도별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와 ‘대조+지시적

구정보'에 따른 정답률



하지만 아래 <그림23>을 보면 동일하게 ‘이/가’가 더 적합한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의 단서 조합 조건 하에,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 모든 숙달도 학습자 집단의 정답률이 ‘은/는’과 달리 오히려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의 단서 조합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23> 숙달도별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에 따른 정답률



더불어 모든 학습자 집단에서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와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항목의 정답률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단서 경쟁 모형의 기본 가설과 김호정·강남옥(2010:24-25)에서 찾을 수 있다. 단서 경쟁 모형의 기본 가설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문법 기반 전략보다 의미 기반 이해 전략이 더 우선이라고 하였다. 김호정·강남옥(2010:24-25)에서도 주장하였듯이 조사 ‘이/가’는 주어를 표시해 주는 문법적인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어휘적·의미적 기능이 더 큰 ‘은/는’으로 대치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적 함의

2.1. 조사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교육 방향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서들 간의 경쟁이 있는지 따라 중국어권 숙달도 학습자 집단의 습득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단서 경쟁이 중국어권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일부 항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정보 및 단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단서 경쟁 모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발화 상황에서 주어에 해당된 지시체가 가지는 의미 기능들은 각각 대응되는 조사(‘이/가’ 혹은 ‘은/는’)가 서로 다를 때 즉, 각 의미 기능 단서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 초급 학습자는 물론, 단일 주어문임에도 불구하고 중급과 고급 학습자에게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현행 한국어 교재 혹은 교육 현장에서 흔히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들을 따로 분리시켜 교수·학습을 시킨 결과로 보인다. 즉 한 발화 맥락에서 하나가 아닌 동시에 여러 개의 의미 기능들이 실현될 수도 있는데, 이 의미 기능들이 대응되는 조사가 서로 다를 때, 어떤 의미 기능에 의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담화 차원의 조사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담화 차원에서의 문법 교육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다(김호정, 2006).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가’와 ‘은/는’의 사용 또는 습득 양상을 문장 차원에서만 분석했는데 이는 최석재(2013)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서술어라고 해도 발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에 따라 조사의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컨대 ‘있다’, ‘없다’ 등의 서술어가 쓰인 문장에서의 주어는 주로 ‘이/가’와 결합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맥락에 따라 “(펜은 없지만) 종이는 있다.”처럼 ‘있다’, ‘없다’ 앞에 ‘은/는’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김영일, 2012). 또한 학습자들은 흔히 ‘이/가’와 ‘은/는’이 각각 ‘신정보’와 ‘구정보’란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학습했기 때문에 단순히 선행 언급 여부로 조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김령, 2012:71). 하지만 “A: 동원이 내일 온대. B: 동원(이/*은) 누구야?”와 같은 예시처럼 실제 조사 ‘이/가’의 ‘은/는’의 사용은 언급 여부뿐만 아니라 맥락에 의해

해당 지시체가 다른 의미 기능(선택지정)도 주어지는지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적절한 조사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행 언급이 없는 정보이더라도 앞의 지시체에 대해 ‘대조’의 의미를 가진 지시체이면 ‘은/는’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양세희, 2014:109).

이것이 처음부터 ‘이/가’와 ‘은/는’의 모든 의미 기능을 교수·학습을 시켜 의미 기능 간의 선택 층위를 초급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초급에서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각각을 교수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선형 교육 모형을 선택하여 학습자 발달 단계에 맞춰 점차 새로운 의미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전의 교수·학습 내용과 연계시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반복과 점진적 발전을 적용하며 최종적 목표로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가’와 ‘은/는’에 대한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학습자들이 조사 ‘이/가’와 ‘은/는’이 쓰이는 문장에 여러 정보 및 단서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이/가’와 ‘은/는’ 선택 및 사용에 결정적인 단서를 특정 정보에 학습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조사 ‘이/가’와 ‘은/는’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가’의 의미 기능인 ‘선택지정’에 대한 교수가 추가·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가’의 ‘도입 주제 및 지시적 신정보’가 출현되었을 때는 ‘이/가’의 선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습득이 잘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택지정’ 의미 기능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초·중·고급 학습자 집단에서 모두 ‘이/가’의 선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습득 정도가 낮았다. 이는 단서 경쟁 모형의 기본 가정, 즉 단서들이 서로 연합될 때, 각 단서의 강도가 높아지고, 조사 선택의 정답률이 더 높아져야 하는 것과 반대인 양상이다.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7권(서울대 한국어, 연세대 한국어,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성균관대 배우기 쉬운 한국어, 서강대 한국어, 이화여대 한국어, 세종 한국어)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가’의 의미 기능을 살펴본 결과, 비록 예문에서 제시된 ‘이/가’가 ‘선택지정’의 의미 기

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모두 초급 단계에서 ‘이/가’는 명사 뒤에 붙여 문장의 주어를 나타냄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이/가’의 의미 기능인 ‘선택지정’에 관한 지식을 교수하여 ‘이/가’의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보완해야 보다 정확한 조사 사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둘째와 같은 맥락으로 ‘이/가’와 ‘은/는’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맥락에 맞게 적합한 조사 사용을 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 원인은 학습자들이 ‘대조’ 단서가 ‘지시적 구정보’와 같이 드러날 때,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지시적 신정보’와 같이 드러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습득 정도를 나타냈다. 이것은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 단서와 ‘이/가’의 ‘지시적 신정보’ 의미 기능 단서가 서로 경쟁이 생겨서 일으킨 현상으로도 설명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지시체가 어떤 대상과 대조되며 ‘지시적 신정보’인 정보 지위로 등장하는 이러한 상황 맥락은 대부분 ‘암시적 대조’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암시적 대조’도 ‘대조’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김령(2012)과 한비하(2019)에서 모두 조사된 바와 같이 많은 학습자들이 ‘명시적인 대조’의 의미 기능은 쉽게 습득하지만 ‘암시적인 대조’도 대조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맥락에서 올바른 조사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한국어 교재 2권(서울대 한국어, 연세대 한국어)에서 제시되고 있는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모두 ‘명시적 대조’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조’ 의미 기능이 지시적으로 신정보에 해당되는 ‘암시적 대조’인 경우도 학습자에서 교수·학습을 시키면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을 보다 전면적으로 학습하고 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2. 단서 경쟁 모형을 토대로 한 교육 내용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 단서들이 서

로 경쟁이 있는 경우,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조사 ‘이/가’와 ‘은/는’ 선택률이 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어떤 지시체는 한 담화 맥락에서 주어지는 의미 기능들이 서로 다른 조사, 즉 ‘이/가’ 혹은 ‘은/는’이 대응될 때 학습자에게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뜻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본고에서 적용하는 단서 경쟁 모형을 토대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수 내용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제시된 ‘이/가’, ‘은/는’ 관련 교육 방안은 대부분 단일 의미 기능에만 집중하였으며, 실제 사용되고 있는 대학교 출판 한국어 교재에서도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을 종합적으로 교수하는 내용이 없고, 이 두 개의 조사를 초급 단계에서 따로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학습자에게 ‘이/가’와 ‘은/는’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도 및 상황 맥락에 의해 해당 지시체에 어떠한 의미 기능들이 주어지는지, 이 의미 기능들은 어떠한 조사와 대응되는지, 만약 대응되는 조사가 다를 때 무엇에 의해 우선적으로 조사를 선택해야 더 적합한지를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학습자에게 교수하면 무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숙달도를 고려하여 초급에서 고급까지 단계적으로 교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들을 이해하고 특정 맥락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사를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숙달도별로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42> ‘이/가’와 ‘은/는’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

목표	‘이/가’와 ‘은/는’의 의미 기능들을 이해하고 특정 맥락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숙달도별 교수·학습 목표	단 일	초 급	1단 계 • 학습 목표 -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자기소개, 개인 경험 등)에서 ‘이/가’와 ‘은/는’을 적절

및 내용	의미 기능		<p>하게 사용할 수 있다.</p> <p>• 학습 내용</p> <p>-‘이/가’의 ‘도입 주제 및 지시적 신정보’ 의미 기능</p> <p>-‘은/는’의 ‘중심 주제 및 지시적 구정보’ 의미 기능</p>	
		2 단계	<p>• 학습 목표</p> <p>-대조되는 지시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날 때 ‘대조’의 맥락을 인지하고 ‘은/는’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p> <p>• 학습 내용</p> <p>-‘은/는’의 ‘명시적 대조’ 의미 기능</p>	
	중심	1 단계	<p>• 학습 목표</p> <p>-‘여러 개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하는 맥락에서 ‘이/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p> <p>-대조되는 지시체가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맥락에서 ‘대조’의 ‘은/는’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p> <p>• 학습 내용</p> <p>-‘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p> <p>-‘은/는’의 ‘암시적 대조’ 의미 기능</p>	
		중급	<p>• 학습 목표</p> <p>-화자의 의도와 맥락에 의해 주어지는 의미 기능 단서들에 대응하는 조사가 같을 때 적절한 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p> <p>• 학습 내용</p> <p>-‘선택지정’과 ‘지시적 신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p> <p>-‘대조’와 ‘지시적 구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p>	
	의미 기능 고려	2 단계	중급	<p>• 학습 목표</p> <p>-화자의 의도와 맥락에 의해 주어지는 의미 기능 단서들에 대응하는 조사가 다를 때, ‘선택지정’ 혹은 ‘대조’의 단서를 활용하여 적절한 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p> <p>• 학습 내용</p> <p>-‘선택지정’과 ‘지시적 구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p>
			고급	<p>1 단계</p> <p>• 학습 목표</p> <p>-화자의 의도와 맥락에 의해 주어지는 의미 기능 단서들에 대응하는 조사가 다를 때, ‘선택지정’ 혹은 ‘대조’의 단서를 활용하여 적절한 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p> <p>• 학습 내용</p> <p>-‘선택지정’과 ‘지시적 구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p>

			-‘대조’와 ‘지시적 신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
		2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목표 -다양한 장문, 맥락에서 조사 ‘이/가’와 ‘은/는’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다양한 장문, 맥락 이해 및 표현 연습

초급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언어 사용 장면, 예컨대 자기소개, 인사, 개인 경험 등 경우(서정숙, 2014:108)에서 많이 쓰이는 ‘은/는’의 ‘중심 주제 및 지시적 구정보’ 의미 기능을 우선 순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형식에 초점을 둔 초급 단계 학습에서 가장 처음 제시해야 할 의미 기능으로는 주격조사인 ‘이/가’가 있는데(최인숙, 2020:222) 이는 본고에서 설정한 틀에 따르면 ‘도입 주제 및 지시적 신정보’ 의미 기능에 해당된다. 이때 사용되는 교재 혹은 교수 자료에서 제시되는 예문에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과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이미지, 2013:425).

그다음으로 초급 단계의 후반부 들어서 일상생활에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은/는’의 ‘대조’ 의미 기능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설정하였다³²⁾. 하지만 ‘암시적 대조’는 담화 맥락 속에서 함축된 전달 의미를 파악해야 하므로 초급 학습자에게 난이도가 다소 높을 수 있다(서정숙, 2014:108). 따라서 ‘대조’는 초급 단계에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되, 학습의 부담이 최소화하기 위해 ‘명시적 대조’만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삼았다. 즉, 해당 지시체와 비교되는 지시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한다.

중급 단계 전반부에서는 조사 ‘이/가’와 ‘은/는’에 대한 더 세부적인 의미 기능인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과 ‘은/는’의 ‘암시적 대조’ 의미 기능을 교수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선택지정’과 ‘암시적 대조’ 의미 기능은 한 문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은/는’이 드러내는 ‘암시적 대조’ 의미 기능은 담화적인 개념으로서 전제된

32) 서정숙(2014)에서 총 10화분의 드라마 대화에서 나타난 ‘은/는’과 ‘이/가’가 실현한 의미 기능을 분석한 결과, 주격 표지 ‘이/가’ > 대조 ‘은/는’ > 화제 표지 ‘은/는’ > 선택지정 ‘이/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매항과의 관계에 따라 ‘대조’에서 세분화된 의미 기능이다. 따라서 단화에 여러 개체가 전제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문을 통해 의미 관계를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서정숙, 2014:117). 이렇게 다양한 상황 맥락을 제시해 주는 동시에 ‘이/가’와 ‘은/는’이 맥락에 따라 드러난 미묘한 의미 기능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유혜경·방성원, 2015). 다음으로 중급 단계 후반부에 들어 ‘이/가’와 ‘은/는’ 각각의 의미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자들에게 길러줘야 한다. 이때는 각 의미 기능 단서들이 서로 경쟁이 없는 ‘선택지정과 지시적 신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와 ‘대조와 지시적 구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를 설명해 준다. 즉, 전에 교수·학습했던 ‘도입 주제 및 지시적 신정보, 중심 주제 및 지시적 구정보, 선택지정, 대조’ 등 의미 기능들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닌 동시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알려 준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학습자들에게 다소 낯설 수 있으므로 ‘이/가’의 ‘선택지정’과 ‘지시적 신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에 당연히 ‘이/가’를, ‘은/는’의 ‘대조’와 ‘지시적 구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에 당연히 ‘은/는’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까지만 다양한 상황 맥락을 제시해 주면서 교수·학습을 한다.

그다음으로 고급 단계의 전반부에 들어서 ‘이/가’의 ‘선택지정’과 ‘은/는’의 ‘지시적 구정보’가 동시에 주어질 때, ‘선택지정’에 의해 ‘이/가’를 사용하는 것과 ‘대조’와 ‘지시적 신정보’가 동시에 주어질 때, ‘대조’에 의해 ‘은/는’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적절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불어 이때는 ‘대조’와 ‘지시적 신정보’의 조합이 앞선 학습했던 ‘암시적 대조’에 해당된 것을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급 단계 후반부에 들어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 ‘이/가’와 ‘은/는’은 각자 어떠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길러주며 자신의 의도에 맞게 조사를 사용하여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VI. 결론

본 연구는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단서 경쟁 모형에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에 따라 ‘이/가’와 ‘은/는’의 선택 및 습득 양상을 살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단서 경쟁 모형은 심리언어학에서 비롯된 모형이며, 외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습자들에 대해 습득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김현지, 2014:54-55).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은 초급부터 학습하는 문법 항목이지만 양 조사의 다면·다층적인 의미 기능과 서로 대치의 불규칙성 때문에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을 하나씩 나누어 학습자가 각 의미 기능의 사용 및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하나의 문장 혹은 담화 안에서 맥락에 의해 하나 이상의 의미 기능이 주어질 수도 있으며 주어진 의미 기능들이 각각 대응되는 조사는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 이처럼 본고는 상황 맥락에서 주어진 의미 기능들이 각각 ‘이/가’와 ‘은/는’에 대응될 때 학습자들이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을 더 겪게 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단서 경쟁 모형에 기반하여 연구 문제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우선 II장에서 ‘이/가’와 ‘은/는’ 각각의 의미 기능을 정리하였고, ‘이/가’의 ‘선택지정, 도입 주제, 지시적 신정보’와 ‘은/는’의 ‘대조, 중심 주제, 지시적 구정보’ 의미 기능들을 단서로 보고, 이들을 서로 조합하여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개발된 연구 도구로 중국어권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 집단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을 대상으로 과제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다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 단서 조합에서의 조사 선택 정당률과 선택률을 살펴봄으로써 학습자들이 과연 단서들 간에 서로 경쟁이 있을 때, 즉 조합된 의미 기능 단서들이 각자 대응되는 조사가 다를 때, 조사의 선택을 더 어려워 하는지, 그리고 숙달도별로 어려

워하는 단서 및 단서 조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습득 양상을 밝혔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서 경쟁 유무에 따른 초급, 중급, 고급 집단의 조사 선택 양상을 살펴본 결과, 중국어권 모든 집단에서 단서 경쟁이 있는 항목의 정답률이 단서 경쟁이 없는 항목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둘째, 모든 학습자 집단에서 한국어 조사 ‘이/가’를 정확히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사 ‘은/는’보다 많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이/가’의 ‘선택지정’ 의미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숙달도 학습자 집단에서,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에 각각 ‘선택지정’과 ‘대조’ 의미 기능 단서가 조합되었을 때, 단서 경쟁이 없는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의 정답률이 ‘도입 주제·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의 정답률보다 낮은 반면, 초급 학습자 집단을 제외한 모든 피험자 집단은 ‘대조+지시적 구정보’의 정답률이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즉 단서 경쟁 모형의 가정에 따르면 단서들이 서로 연합될 때, 학습자들이 보다 더 정확한 조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에서만 검증되고, ‘선택지정+지시적 신정보’ 단서 조합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셋째, 초급 학습자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의 단서가 존재하는 조건 하에, ‘대조’의 의미 기능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정답률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지시적 구정보’ 단서 조합의 전체 정답률이 ‘중심 주제·지시적 구정보’보다 높았다. 하지만 초급 학습자 집단에서 ‘대조’의 의미 기능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 정답률이 오히려 낮은 것도 ‘은/는’의 이러한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불충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육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발화 상황에서 주어에 해당된 지시체가 가지는 의미 기능 단서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 모든 숙달도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초급에서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들을 나선형으로 교육(Jerome

Bruner, 1985)하는, 즉, 반복과 점진적 발전을 적용하며 최종적 목표로 ‘이/가’와 ‘은/는’의 각 의미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가’와 ‘은/는’을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가’의 의미 기능인 ‘선택지정’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가’는 문법적인 격표지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교수 내용을 추가·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들은 해당 지시체가 ‘지시적 구정보’일 때 드러나는 ‘대조’의 의미 기능은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시적 신정보’일 때 드러나는 ‘대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단서 경쟁의 관점으로도 설명되지만, 한편으로 대조되는 대상이 ‘지시적 신정보’인 경우, 이때의 ‘대조’는 ‘암시적 대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들이 ‘명시적 대조’만 ‘대조’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조+지시적 신정보’ 항목의 습득 정도가 낮은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암시적 대조’가 갖는 맥락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맥락에 맞게 적합한 조사 사용을 교수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 각 집단의 참여자 인원수가 60명 정도로 연구의 결과를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문항을 설계할 때 문장의 종류를 단일 주어 문으로 통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가’와 ‘은/는’의 의미·화용적 의미 기능의 교수·학습 효과를 검증하고, 다양한 복문의 통사적 조건과 같이 조사 ‘이/가’와 ‘은/는’의 교육에 관한 확장적인 탐구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석주(2002). 조사 '가'의 의미. 국어학(國語學), 40, 221-247.
- 고석주(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 고석주(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1-'격 개념'과 조사 '-가'와 '-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고영근(1990). 텍스트 이론과 국어통사론 연구의 방향. 배달말, 15, 1-33.
- 고영근(1995). 단어, 문장, 텍스트. 한국문화사
- 공평(201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은/는> <이/가>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영신(1997). 영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의 이해 과정에 작용하는 어휘-의미 단서와 문법 단서의 비중 : 경쟁 모형(competition model)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령(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2017).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및 사용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강현화·김서형(2017). 중간 언어적 관점으로 본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 - 중·고급 학습자의 '이/가', '은/는'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24차 전국학술대회, 47-56.
- 김미형(2011).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본 전제와 기능 분석 담화와 인지. 담화와 인지, 18(3), 23-64.
- 김민희(2021). 언어적 단서에 따른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피동문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1983). 조사 '-가'의 의미와 '주제'. 연세어문학, 16, 28-41.
- 김영일(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은/는'과 '이/가'의 의미기능 및 상황 모형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일(2016). "은/는"과 "이/가"의 의미 기능 및 상황 모형 연구 -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28, 59-107
- 김영희(1980). 정태적 상황과 접주어구문. 한글, 169, 117-147.
- 김일규(2016), 한국어 '-은/는'과 '-이/가',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5, 83-117.
- 김정숙·남기춘(2002).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과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 13(1), 27-45.
- 김지은(2009). 조사 '이/가'와 '은/는'의 대치오류 분석. 언어과학연구, 48, 1-40.
- 김지현(2007). 한국어 주어의 무조사 현상 연구 - 담화, 화용 층위의 정보성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28, 7-31.
- 고효단(202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기능 인식 양상.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2008). 중간언어를 기반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선택에 대한 단서 연구 -문법 관계 교체 구문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2), 1-26.
- 김현지(2014). 한국어 문장 이해 전략으로 조사, 어순, 생략성 단서의 사용 연구 -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5(3), 29-58.
- 김호정·강남옥(2010).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습득 양상 연구 (Ⅱ), 국어 국문학, 156, 5-41.
- 남기심(1972). 주제어와 주어. 어문학, 128-131.
- 남윤진(2005). 현대국어 조사 '-은/는'의 분포와 기능: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157-191.
- 박승휴(2014). 어순, 유생성, 일치 단서가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문장 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2019). 한국어 사동과 피동 표현에 대한 고급 학습자 번역 양상과 인식 연구 -한국어 역번역문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82, 479-501.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國語學), 73, 375-435.
- 박철우(1998). 한국어 정보 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 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출판사.
- 박철우(2015). 보조사의 기능과 정보 구조. 국어학, 73, 269-307.
- 백수진(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교육 - 중국어와의 대응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1), 149-168.
- 별러러(2017).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교육 연구-‘이/가’, ‘은/는’, ‘을/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정수(1971). 국어(國語)의 이중주어(二重主語) 문제(問題)-변형생성문법적 분석. 국어국문학, 52, 1-28.
- 서정숙(2014). 한국어 조사 교육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성기철(1985). 국어의 주제 문제. 한글, 188, 65-90.
- 성기철(1994). 격조사 ‘-를’의 의미. 한국어교육, 5, 31-50.
- 신봉수(2005). 영어 문장 해석에 있어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어휘 - 의미단서와 문법단서의 이용에 관한 연구: 경쟁 모형을 중심으로. 영미어문학, 75, 229-252.
- 신창순(1975). 국어의 ‘주어문제’ 연구, 문법연구, 2, 131-170.
- 양세희(2014). 국어의 조사 교육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연재훈·박종원(2022). 한국어의 정보 구조 쟁점의 확인과 인지문법적 분석. 한글, 336, 375-414.
- 오아림(2021).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이/가’와 ‘은/는’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아림·박선희(201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39, 221-247.
- 오현정(2011). 보조사 {은/는}과 주격조사 {이/가}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어 의미학, 35, 189-213.
- 원미진(2016). 조사 ‘이/가’와 ‘은/는’의 중간언어 습득 양상 연구- 중국어권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제어문, 68, 261-281.

- 유동석(1998). 특집 / 격조사의 제문제 : 국어의 격 중출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國語學), 31, 307-337.
- 유민애(2017). 맥락 중심의 한국어 담화문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유현(2010). ‘이/가’와 ‘은/는’의 정보 구조 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유현(2010). 총칭성과 정보 구조. 텍스트언어학, 28, 129-149.
- 유현경·양수향·안예리(2007). 영어권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조사 ‘가’와 ‘는’의 교수 방안 연구 -한영 병렬 말뭉치를 이용하여-. 이중언어학, 34, 272-298.
- 유혜경·방성원(2015). 조사 “이/가”, “은/는”의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방안 및 효과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3, 161-189.
- 윤재원(1988). 국어 보조조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정기(2015).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의 오류 분석. 한국언어문학, 95, 29-48.
- 이관규(2014). 교육 문법에서 조사의 담화 문법적 탐색. 문법 교육, 20, 249-269.
- 이난희(2019). 한국어 학습자의 ‘이/가’, ‘은/는’ 사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지(2013).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 ‘이/가’, ‘은/는’의 제시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42, 407-442.
- 이보혜(2011). 폴란드어권 학습자들의 ‘이/가’, ‘은/는’ 사용 양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셋별(2020).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 사용 양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2010).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습득 순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임홍빈(1986). 國語 文法論. 學研社.

- 이인영(1996). “주제”와 “화제”. 어학연구, 32(1), 61-99.
- 이정민(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Indiana University, 박사학위논문.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개체 층위. 국어학(國語學), 22, 397-424.
- 이필영(1982). 조사 ‘가/이’의 의미분석. 관악어문연구, 7, 417-431.
- 이희자(1994). 국어의 ‘주제부/설명부’ 구조 연구. 국어학, 24, 319-351.
- 임동훈(2012). ‘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217-271.
- 임홍빈(1972). 國語의 主題化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영철(2005). 한국어의 대조초점. 언어학, 43, 215-237.
- 전영철(2006).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274, 171-200.
- 전영철(2009). ‘이/가’ 주제설에 대하여. 담화와 인지, 16(3), 217-238.
- 정보영(2004). 구어 이야기 담화에서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조사 ‘은/는’, ‘이/가’ 사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해권(2011). 한국어 문장의 주제와 초점 구조 습득 -‘은/는’과 ‘이/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2(3), 285-304.
- 조진수(2018). 유표적 정보 구조의 기능에 관한 연구- 지시적 신정보가 관계적 구정보로 표상되는 유형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34, 269-297.
- 채완(1976). 조사(助詞) ‘는’의 의미. 국어학(國語學), 4, 93-113.
- 채완(1977). 現代國語 特殊助詞의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수(1987). 주제 표지 ‘는’에 대하여. 문창어문논집, 24, 75-98.
- 최규수(1999). 한국어 주제어와 임자말 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 최동주(2012). ‘은/는’과 ‘이/가’의 출현 양상, 인문연구, 6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5-58.
- 최석재(2013). 조사 ‘은/는’과 ‘이/가’의 의미. 우리말연구, 35, 82-111.
- 최성희(2017). 한국어 조사 ‘이/가’의 습득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영(1993). 한국어 주제/주어 조사 '는', '가'의 패러다임. *語學研究*, 29(1), 49-73.
- 최영환(1987). {가}와 {는}의 의미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비하(2019).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보조사 '은/는'의 습득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송화·원미진(2017).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의 '은/는'과 '이/가'의 분포와 조사 선택 요인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41, 49-83.
- 허용·박은정(2019). 한국어 역번역문에 나타난 '이/가, 은/는'의 번역 양상과 그에 따른 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학*, 109, 265-294.
- 홍사만(1980). 한, 일어 의존형태소의 대조연구 (Ⅱ). *어문론총*, 13, 91-121.
- 홍사만(2002).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역락.
- 홍윤기·김중섭(2010).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선택 연구. *한국어교육*, 21(4), 393-424.
- 황중배(2004). 제2언어 습득론 개관. 경진문화사.
- Yu Xiao Qian(2013).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과 관련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tes, E., & MacWhinney, B. (1989). Functionalism and the competition model.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sentence processing*, 3, 73-112.
- Brian MacWhinney, Elizabeth Bates, Reinhold Kliegl (1984). Cue validity and sentence interpretation in English, German, and Italia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Volume 23, Issue 2, 1984, 127-150.
- Bright, W. (1992). *International encyclopedia. Psychology*, 9, 151.
- Bruner, J. (1985). Models of the learner. *Educational researcher*, 14(6),

5-8.

- Chafe, W. L. (1974). Language and consciousness. *Language*, 111-133.
- Chafe, W. L. (1976). Siouan, Iroquoian, and Caddoan. *Native Languages of the Americas: Volume 1*, 527-572.
- Chafe, W. (1994). *Discourse, consciousness, and time: The flow and displacement of conscious experience in speaking and writ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oreman, A., & Kilborn, K. (1991). Functionalism linguistics: Discourse structure and language processing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rosscurrent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linguistic theories*, 195-224.
- Ellis, N. (1993). Rules and instance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Interactions of explicit and implicit knowledge. *European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5(3), 289-318.
- Gass, S., & Varonis, E. (1994). Input, Interaction, and Second Language Produc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6(3), 283-302.
- Gundel, J. & T. Fretheim(2004). Topic and focus, in L. R. Horn & G. Ward ed.,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173-196.
- Gundel, J. K. (1988). Universals of topic-comment structure. *Studies in syntactic typology*, 17(1), 209-239.
- Halliday, Michael A. K. (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2), 199-244.
- Kuno, S. (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from Japanese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3, 269-320.
- Kuno, S. (1973). Constraints on internal clauses and sentential subjects. *Linguistic Inquiry*, 4(3), 363-385.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u, H., Bates, E., & Li, P. (1992). Sentence interpretation in bilingual speakers of English and Chinese. *Applied Psycholinguistics*, 13(4), 451-484.
- MacWhinney, B., & Bates, E. (1993).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Sentence Processing. *Journal of Child Language*, 20(2), 463-71.
- MacWhinney, B., Pleh, C. & Bates, E. (1985). The development of sentence comprehension in Hungarian. *Cognitive Psychology* 17, 178-209.
- McDonald, J. (1987). Sentence interpretation in bilingual speakers of English and Dutch. *Applied Psycholinguistics*, 8, 379-413.
- Muriel Saville-Troike (2006). *Introduc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2언어 습득론 / 임병빈, 송해성, 이은표 공역, 세진무역.
- Prince, E. F. (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P. Cole.(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Prince, E. F. (1992). The ZPG letter: Subjects, definiteness, and information-status. *Discourse description: diverse analyses of a fund raising text*, 295-325.
- Sasaki, Y. (1991). English and Japanese interlanguage comprehension strategies: An analysis based on the competition model. *Applied Psycholinguistics*, 12(1), 47-73.
- Sasaki, Y. (1994). Paths of Processing Strategy Transfers in Learning Japanese and English as Foreign Languages: A Competition Model Approach.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6(1), 43-72.
- Vallduvi, E. (1990). *The informational compone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Von Heusinger, K. (1999). Intonation and information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Verlag nicht ermittelbar.

<부록> 빈칸 채우기 과제 설문지

您好，我是首爾大學韓語教育研究生진예린。本研究之目的為探討韓語學習者學習韓語助詞‘이/가’及‘은/는’的情況。問卷由基本資料問答及30個韓語對話組成，完成問卷所需時間約為5分鐘~10分鐘左右。回答時無需考慮其他情境，只需單純依所提供的對話，選擇您認為最合適的選項即可。如有不會的單字可以查字典，但在作答‘이/가’及‘은/는’時請勿參考其他資料或接受他人幫助。各位的回答將會對韓國教育學界研究有很大的貢獻。問卷內容只用於研究目的，不會外泄，請您放心。最後再次感謝您抽出寶貴的時間作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진예린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어 조사 ‘이/가’와 ‘은/는’의 습득 양상을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은 기본 정보에 관한 질문과 한국어 문항 30개로 구성되어 응답 소요 시간은 5분~10분 정도 됩니다. 응답 시에는 다른 맥락을 생각할 필요없고 단순히 제시되어 있는 문항들만 고려하시면 되시고 각 빈칸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한국어 조사 습득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간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진예린 드림

<기본 정보>

국적:

성별: 남 여

연령: 10~19세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토픽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한국어 원어민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어 학습 방식:

한국 거주 기간:

실험 문항	선택 사항
<p>1. 가 : 꽃 이쁘다. 누/누구(㉠) 봤어요? 나 : 길에서 어떤 남자(㉡) 봤어요.</p>	<p>㉠ 1. 이/가 2. 은/는</p> <p>㉡ 1. 이/가 2. 은/는</p>
<p>2. 가 : 너 주변 사람들(㉠) 백신 많이 맞았어? 나 : 응응, 거의 다 맞았지. 아! 내 동생(㉡) 안 맞았어. 침 맞는 게 무서워서 안 맞겠대. <small>*백신(을) 맞다 打疫苗</small></p>	<p>㉠ 1. 이/가 2. 은/는</p> <p>㉡ 1. 이/가 2. 은/는</p>
<p>3. 가 : 식혜랑 버블티 중에 식혜(㉠) 대만 음료수이죠? 나 : 아니요. 버블티(㉡) 대만 음식이에요. <small>*식혜 糯米露(韓國傳統飲料)</small></p>	<p>㉠ 1. 이/가 2. 은/는</p> <p>㉡ 1. 이/가 2. 은/는</p>
<p>4. 가 : 수빈이랑 슬기 이번에 모두 서울대 대학원에 붙었대며? 나 : 수빈이만 붙었어. 슬기(㉠)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붙었어.</p>	<p>㉠ 1. 이/가 2. 은/는</p>
<p>5. 가 : 어제 학교에서 축제를 했어요? 나 : 네, 유명한 가수들(㉠) 와서 완전 신났어요.</p>	<p>㉠ 1. 이/가 2. 은/는</p>
<p>6. 가 : 일반쓰레기통(㉠) 어디에 있어요?</p>	<p>㉠ 1. 이/가 2. 은/는</p>

<p>나 : 일반쓰레기통(㉞) 저쪽에 있어요.</p>	<p>㉞ 1. 이/가 2. 은/는</p>
<p>7. 가 : 이번 발표 준호(㉠) 말았어요? 재홍(㉞) 말았어요? 나 : 준호(㉡) 말았어요.</p>	<p>㉠ 1. 이/가 2. 은/는 ㉞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p>
<p>8. 가 : 지금 밖에 날씨 어때? 나 : 먹구름 좀 있긴 해. 근데 비(㉠) 안 와.</p>	<p>㉠ 1. 이/가 2. 은/는</p>
<p>9. 가 : 세상에서 무엇(㉠)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 건강(㉞) 제일 중요하지요!</p>	<p>㉠ 1. 이/가 2. 은/는 ㉞ 1. 이/가 2. 은/는</p>
<p>10. 의사: 어떻게 오셨습니까? 환자: 어제부터 머리(㉠) 아프고, 열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의사: 콧물도 나오니까? 환자: 아니요. 콧물(㉞) 안 나와요. <small>*콧물 鼻涕、鼻水</small></p>	<p>㉠ 1. 이/가 2. 은/는 ㉞ 1. 이/가 2. 은/는</p>
<p>11. 가 :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나 : 나 요즘 남자친구(㉠) 생겨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p>	<p>㉠ 1. 이/가 2. 은/는</p>

<p>가 : 진짜? 어떻게 만났어? 나 : 동아리에서 만났어. 가 : 그래? 어떤 사람이야? 나 : 음...내 남자친구(㉞) 엄청 자상한 사람이야.</p>	<p>㉞ 1. 이/가 2. 은/는</p>
<p>12. 가 : 은빈 씨, 괜찮아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나 : 어제 어떤 사람(㉠) 밤새 노래를 했어요...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요.</p>	<p>㉠ 1. 이/가 2. 은/는</p>
<p>13. 가 : 오! 안녕! 여기서 다 만나네! 나 : 어....안녕. 가 :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p>	<p>㉠ 1. 이/가 2. 은/는</p>
<p>14. 가 :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랑 싸우면 누/누구(㉠) 이길까요? 나 : 사슴벌레(㉞) 이기지요! *사슴벌레 鍬形蟲 *장수풍뎅이 獨角仙 *이기다 贏</p>	<p>㉠ 1. 이/가 2. 은/는 ㉞ 1. 이/가 2. 은/는</p>
<p>15. 가 : 예진 씨, 취미(㉠) 뭐예요? 나 : 제 취미(㉞) 한국어 공부예요.</p>	<p>㉠ 1. 이/가 2. 은/는 ㉞ 1. 이/가 2. 은/는</p>
<p>16. (두 사람은 쇼핑 중이에요.) 가 : 이 옷 어때요? 나 : 예뻐요!</p>	<p>㉠ 1. 이/가 2. 은/는</p>

가 : 그럼 이 옷도 예뻐요? 나 : 그것(㉠) 좀 별로예요.	
17. 가 : 오늘 사무실에 누/누구(㉠) 가장 일찍 왔어요? 나 : 김성준 팀장님(㉡) 제일 먼저 오셨어요.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18. 가 : 영화 <신과 함께>랑 <부산행> 뭘 볼지 고민이네요. 나 : <부산행> 봐요! <부산행>(㉠) 더 재밌어요. <small>*신과 함께 與神同行(韓國電影) *부산행 屍速列車(韓國電影)</small>	㉠ 1. 이/가 2. 은/는
19. 가 : 조금 전에 누/누구(㉠) 들어왔어요? 나 : 현주(㉡) 들어왔어요.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20. 가 : 넌 왜 그래? 왜 자꾸 핸드폰을 흔들어? 나 : 핸드폰(㉠) 고장난 것 같아. 화면(㉡) 멈췄어. 가 : 설마, 지난달에 샀잖아. 벌써 고장(㉢) 날까? 나 : 그러게, 네 핸드폰(㉣) 괜찮아? 나랑 같이 샀잖아.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21. 가 : 아이폰 12 카메라 성능(㉠) 엄청 좋다던데? 나 : 그래? 야간 촬영 모드(㉡) 별로던데. <small>*야간 촬영 모드 夜間模式</small>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22.	㉠ 1. 이/가

<p>가 : 순대랑 취두부 다 한국 음식이에요? 나 : 아니요. 순대만 한국 음식이에요. 취두부(㉠) 대 만 음식이에요. *순대 血腸 *취두부 臭豆腐</p>	<p>2. 은/는</p>
<p>23. 가 : 어제 뭐 했어? 나 : 내/나(㉠) 쉬었지. 네/너(㉡) 뭐 했어? 가 : 어제 내 대만 친구(㉢) 한국에 왔어. 그래서 공항 으로 마중 나갔어. 나 : 대만 친구 누구?</p>	<p>㉠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p>
<p>24. 가 : 아이유(㉠) 대만에 왔대요! 나 : 아이유(㉡) 누구예요? 가 : 아이유를 모른다니! 아이유(㉢) 한국의 유명 가수 예요.</p>	<p>㉠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p>
<p>25. 가 : 넌 친구(㉠) 중요해? 애인(㉡) 중요해? 나 : 둘 다 아닌데? 나한테 가족(㉢) 제일 중요해.</p>	<p>㉠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 ㉢ 1. 이/가 2. 은/는</p>
<p>26. (통화 중) 가 : 엄마,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랑 빵 먹어도 돼? 나 : 케이크(㉠) 안 돼. 친구한테 줄 선물이야.</p>	<p>㉠ 1. 이/가 2. 은/는</p>
<p>27. 가 : 너 두유 마실래? 나 : 아니. 두유 대신 우유(㉠) 없어?</p>	<p>㉠ 1. 이/가 2. 은/는</p>

<p>28. 가 : 서울역 어떻게 가요? 나 : 지하철이나 버스로 다 갈 수 있어요. 가 : 어떤 게 더 빨리 갈까요? 나 : 지하철(㉠) 더 빨라요.</p>	<p>㉠ 1. 이/가 2. 은/는</p>
<p>29. 가 :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나 : 친구(㉠) 취했어.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줬어. *취하다 醉</p>	<p>㉠ 1. 이/가 2. 은/는</p>
<p>30. 가 : 뭐 타고 왔어? 나 : 택시 타고 왔어. 가 : 택시(㉠) 많이 비싸 텐데. 나 : 응 엄청 비싸. 버스 타고 왔어야 했는데...</p>	<p>㉠ 1. 이/가 2. 은/는</p>

Abstract

An Acquisition Study of the Korean Postpositions 'i/ga' and 'eun/neun' as Used by Chinese-speaking Korean Learners through Competition Model

CHEN, YANLI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a competition model,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quisition patterns of the semantic function cues of 'i/ga' and 'eun/neun' by Chinese-speaking learners of Korean and to explore education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d the semantic functions of 'i/ga' and 'eun/neun', which were divided into 'selection designation, introduction topic, and referential new information' and 'contrast, central topic, and referential old information'. Each of these six semantic functions was considered as one 'cue', and these cues were combined to derive a total of six combinations: ① 'selective designation + referential new information', ② 'selective designation + referential old information', ③ 'contrast + referential new information', ④ 'contrast + referential old

information', ⑤ 'introduction topic • referential new information', and ⑥ 'central topic • referential old information'. In addition, a cloze test was adopted as a research tool to examine the selection and acquisition patterns of the survey of 'i/ga' and 'eun/neun' by elementary, middle, and advanced learners who were Chinese-speaking learners for each cue combination given in each utterance context.

Section II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the semantic functions of 'i/ga' and 'eun/neun' along with which semantic functions should be selected first when these semantic functions are simultaneously revealed by the context of the utterance. In additi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ompetition model was also examined. Based on this, considering how the acquisition pattern of the Korean postpositions 'i/ga' and 'eun/neun' could be applied, basic assumptions were explored.

Section III describes in detail the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of this study, including the design process of the research tool used in the study, the preliminary experiment, the procedure of this experiment, the data collection method, and the analysis method.

Section IV analyzes the results of experiments conducted on elementary, middle, and advanced Chinese-speaking learners as well as native Korean speakers. As a result, all learner groups showed a lower correct answer rate in the context of cue competition than in the context without cue competition. In addition, regardless of the combination, if the semantic function 'selection designation' is included, it was found that learners did not accurately understand the semantic function 'selection designation' of 'i/ga'. In other words, if context included the semantic function 'selection designation', not only the context with cue competition but also the context without

cue competition is difficult for learners.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meaning function 'contrast' cue of 'eun/neun', when its referential givenness is 'referential old information', which is also the function cue of 'eun/neun', all of the middle, and advanced Chinese-speaking learners showed a high degree of acquisition, matching the basic assumption of the cue competition model. In other words, when all semantic functional cues are induced in the same form and with the same association, the strength of each cue increases such that learners can interpret the sentences and select the correct postposition. Conversely, if there is cue competition because each semantic function cue corresponds to a different form, that is, if the 'contrast' cue of 'eun/neun' is revealed as the 'referential new information' cue of 'i/ga', with this combination, correct use becomes difficult for learners.

In Section V,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and teach the semantic functions of 'i/ga' and 'eun/neun' individually, though the ability to consider the semantic functions of 'i/ga' and 'eun/neun' comprehensively should also be developed.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students so that they can learn by focusing on the semantic functions of 'selection designation' and 'contrast', which play a decisive role in the use of the Korean postpositions 'i/ga' or 'eun/neun'.

Section VI presents the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e semantic function cues that affect Chinese-speaking Korean learners when selecting the Korean postpositions 'i/ga' or 'eun/neun'. Based on this, it will be possible to reveal the acquisition patterns among more diverse cues with more diverse syntactic conditions in the future.

Key words : L2 Acquisition, Korean Postposition, 'i/ga', 'eun/neun',
Chinese-speaking learner, Competition Model

Student Number : 2020-24715